

정책연구

2025-06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A Study on Settling Industrial Complex Populations in Gunsan City

김동영 이주연 김현수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김동영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현수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25-06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A Study on Settling Industrial Complex Populations in Gunsan City

김동영 이주연 김현수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김동영 | 책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4장, 5장(1절, 2절)

공 동 연 구 이주연 | 책임연구위원 | 제2장 2절, 3장, 5장(2절 5항)

김현수 | 전문연구원 | 제2장 1절, 3장(1절, 2절, 3절 일부)

연구관리 코드 : 24JU3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배경 및 목적

- 군산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소룡동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기 전인 2016년 19,042명에서 2023년 16,968명으로 2천 명 이상이 감소하여 군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유입 및 정주인구화 추진 필요
-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 제시를 통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제2차 대량 인구유출방지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에 따른 새로운 기업 유치와 근로자 유입에 따른 정주화 방안 제시를 통해 인구유입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사업 발굴
- 본 연구는 군산시의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관외 거주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제시와 이를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여 산업단지 종사자 중 30%에 이르는 관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도출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FGI 조사)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 등 기본 정보, 출퇴근 방법, 관외 근무 장점과 단점, 관외 근무 사유와 주소 이전 요인, 정책 제언 등 관외근무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의견을 조사함
- (실태조사)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외근로자의 거주 현황, 산업단지 거주 환경, 전입 의사 및 정책 요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정책방향

- (체류시간 연장)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지역의 생활 환경, 문화, 인프라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체류인구가 군산시에 대한 호감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정착 의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 (도시매력도 증대) 장기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거지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정주는 선택이 아닌 매력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냄
- (지역정착 지속성 확보)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의 정주화는 단순한 일회적 주소이전을 넘어 장기적으로 군산시에 정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4+1 정책요인 도출

- 군산시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소지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좋은 일자리, 주거안정성, 생활인프라, 주소이전 편의성 4개의 요인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4+1 정책요인(대상)도출

■ 군산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추진전략

- (좋은 일자리) 기업유치 투자지원 내용에 주소 이전 비율 차등지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주소 이전) 인센티브 지원
- (주거안정성) 산업단지 장기근속자 주택(아파트) 우선분양 및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 이자지원
- (생활 인프라) 명문학교 재도약 및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원서비스 확충
- (주소이전 편의성) 산업단지 근로자 주소이전 혼장서비스 및 전입지원금 지급
- (외국인 근로자)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 및 내·외국인 근로자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 목적	4
2. 연구 과정	5
가. 연구 범위	5
나. 주요 연구 내용	5
다. 연구 절차	6

제2장 현황 분석

1. 군산시 현황	11
2.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	18
3. 관련 정책현황 분석	22
가.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 정책	22
나. 군산시 정주 관련 정책	30

제3장 군산시 산단 관외근로자 실태 분석

1. 산단 관외근로자 실태조사	37
가. 조사개요	37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8
다. 분석 결과	39
2. 산단 관외 근로자 FGI 조사	72
가. 조사개요	72
나. 조사 결과	75
3. 요약	85
가.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85
나. FGI 주요 결과 요약	86

제4장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방안

1. 체류인구 정주화 정책 방향	91
가.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방향설정	91
나.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요인도출	96
2.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방안	99
가. 좋은 일자리	99
나. 주거안정성	108
다. 생활 인프라	117
라. 주소이전 편의성	125
마. 외국인 근로자	133

제5장 제언

참고문헌	151
영문요약 (Summary)	152
부록	157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1-1] 지방소멸위험지수	4
[표 2-1] 군산시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2014~2023)	12
[표 2-2] 군산시 읍면동별 총인구(2014~2023)	13
[표 2-3] 군산시 이동자 수(2014~2023)	14
[표 2-4] 군산시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2014~2023)	15
[표 2-5] 군산시 전출 사유별 이동자 수(2014~2023)	15
[표 2-6] 군산시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17
[표 2-7] 군산시 산업단지 기초 정보	18
[표 2-8]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1) (단위 : 천㎡, %)	19
[표 2-9]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2)	19
[표 2-10] 군산시 등록공장 현황	20
[표 2-11] 군산시 관외 근로자 현황 조사 결과	21
[표 2-12] 산업단지 정주여건 구성요소 분석	22
[표 2-13] 전국 산업단지관련 조례	24
[표 2-14] 산업단지 혁신 전략 및 세부과제	25
[표 2-15] 산업단지 정주여건관련 혁신 종합대책 세부내용	26
[표 2-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 사업(2024)	27
[표 2-17]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지원 대상	28
[표 2-18]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모집 현황	29
[표 2-19] 군산시 산업단지 지원 사업	30
[표 2-20]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현황	31
[표 2-21] 군산시 전입관련 지원	32
[표 2-22] 군산시 청년 지원	33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8
[표 3-2] 군산시 관외 근로자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39
[표 3-3] 관외 근로자 실거주지 주거 형태	41
[표 3-4] 관외 근로자 주요 통근 수단	42

[표 3-5] 관외 근로자 평균 통근 시간	43
[표 3-6] 군산시 외 타 지역에서 통근 여부	44
[표 3-7]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1순위)	45
[표 3-8]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2순위)	46
[표 3-9]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1순위)	47
[표 3-10]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2순위)	48
[표 3-11] 관외 근로자의 산단 정주시간	49
[표 3-12]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주거 여건	50
[표 3-13]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교통 여건	51
[표 3-14]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치안(범죄) 여건	52
[표 3-15]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보육(어린이집 등) 여건	53
[표 3-16]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교육(학교 등) 여건	54
[표 3-17]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자연환경(공원 등) 여건	55
[표 3-18]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의료 여건	56
[표 3-19]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편의 시설 여건	57
[표 3-20]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문화체육 여건	58
[표 3-21]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전반적인 정주 여건	59
[표 3-22]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	60
[표 3-23]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1순위)	61
[표 3-24]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2순위)	62
[표 3-25]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1순위)	63
[표 3-26]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2순위)	64
[표 3-27]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로 함께 이전할 사람	65
[표 3-28]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1순위)	66
[표 3-29]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2순위)	67
[표 3-30]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1순위)	68
[표 3-31]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2순위)	69
[표 3-32]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1순위)	70
[표 3-33]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2순위)	71
[표 3-34] 군산 산단 관외 근로자 면접 내용	73
[표 3-35]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FGI 대상 일반 정보	74
[표 3-36]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사례연구 분석 결과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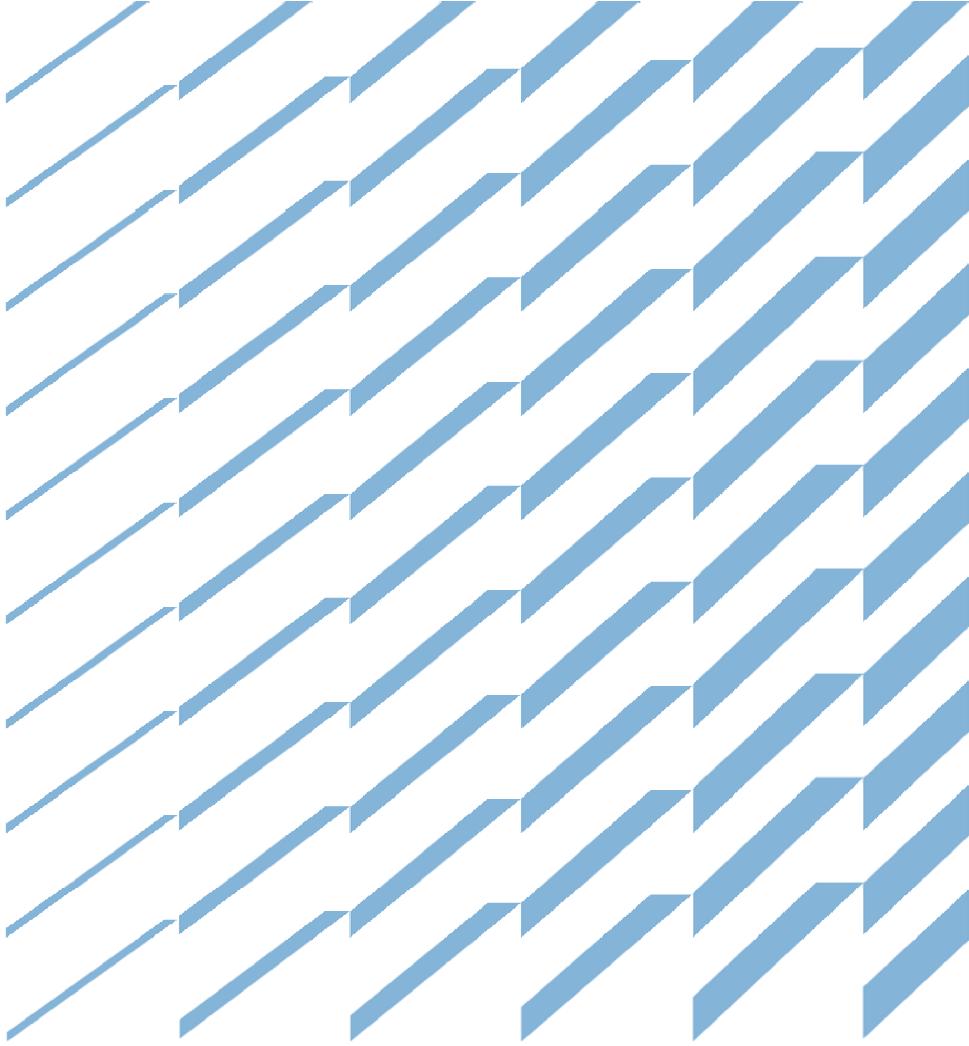
[표 3-37] 군산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 정도	86
[표 4-1] 체류형 관광객의 관광특성	91
[표 4-2] 관광방문인구, 체류인구, 정주인구의 특성	93
[표 4-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1순위)	103
[표 4-4] 일자리계층 유형별 입주계층	110
[표 4-5] 군산시 주소 이전에 필요한 지원(2순위)	113
[표 4-6] 군산 기숙사 운영 중·고등학교 현황	118
[표 4-7] 전북특별자치도 기숙사 운영 중학교 현황	119
[표 4-8]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황	122
[표 4-9] 군산시 전입관련 지원	130
[표 4-10] 합천군 전입장려지원 사업 현황	131
[표 4-11] 군산시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13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의 흐름	7
[그림 2-1] 군산시 인구 피라미드 변화(2014/2023)	11
[그림 2-2] 군산시 전입-전출 사유별 이동자 수(2023)	16
[그림 3-1]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조사 절차	37
[그림 3-2]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	40
[그림 3-3] 실거주지	40
[그림 3-4]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40
[그림 3-5] 관외 근로자 실거주 주거 형태	40
[그림 3-6] 관외 근로자 주요 통근 수단	42
[그림 3-7] 관외 근로자 주요 통근 시간	42
[그림 3-8] 관외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1, 2순위)	45
[그림 3-9] 관외 근로자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47
[그림 3-10]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50
[그림 3-11] 관외 근로자의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	61
[그림 3-12] 관외 근로자의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	63
[그림 3-13] 관외 근로자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	66
[그림 3-14] 관외 근로자 주소지 이전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68
[그림 3-15]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FGI 조사 절차	72
[그림 4-1] 비수도권 도시의 청년인구 이동패턴 및 요인분석	94
[그림 4-2]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로자 주소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97
[그림 4-3] 관외 근로자 주소지 이전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108
[그림 4-4] 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념도	110
[그림 4-5] 고창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계획도	112
[그림 4-6]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116
[그림 4-7] 김제 청년놀이터 사업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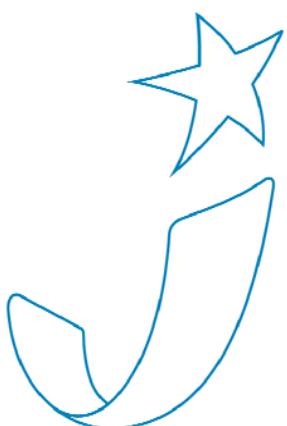
[그림 4-8] 인구플러스 찾아가는 전입창구(예)	128
[그림 4-9] 관외 근로자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129
[그림 4-10] 군산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1, 2순위) 133	
[그림 4-11]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	136
[그림 4-12]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휴스테이)	137
[그림 4-13]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근로자 기숙사	137
[그림 4-14] 외국인 주민 및 근로자 대상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예	140
[그림 4-15]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현황	142
[그림 4-16] 전북 시군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142
[그림 4-17] 경상북도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사례	14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과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군산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총 259,980명, 인구증가율 -0.31%로 2016년 이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 대비 6.51%가 감소하였고, 인구구성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유소년,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여 군산시 인구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음
- 군산시의 인구는 2017년 크게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이 군산시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군산시 인구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나운동은 군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기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수송동, 조촌동, 구암동 등 신도심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군산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소룡동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기 전인 2016년 19,042명에서 2023년 16,968명으로 2천 명 이상이 감소하여 군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군산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조사에 의하면 총 근로자 중 74.54%만 관내 정주 근로자이고 이중 25.46%가 관외 거주 근로자로 나타나 약 30%의 산업단지 관외 거주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가 군산시의 인구증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 군산시는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2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어 인구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표1-1] 지방소멸위험지수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소멸고위험 지역
	0.2 ~ 0.5 미만 0.2 미만

출처 : 저자 작성

-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 제시를 통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제2차 대량 인구유출방지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에 따른 새로운 기업 유치와 근로자 유입에 따른 정주화 방안 제시를 통해 인구유입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군산시의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관외 거주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제시와 이를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여 산업단지 종사자 중 30%에 이르는 관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군산시 인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구유입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 군산시의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관외 거주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제시와 이를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연구 과정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군산시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관외 근로자로,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등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함
 - (현황/실태) 군산시 인구 및 산업단지 현황은 군산시 인구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FGI와 실태조사는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소룡동, 오식도동 등 내 입주 기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행
-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군산시 산단 체류 인구 정주화 방안 정책 개발을 위해 현재 군산시 정책 현황과 대상자들의 요구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점은 2024년으로, 정책의 시간적 범위는 2025년 이후로 설정

나. 주요 연구 내용

1) 군산시 산업단지 관련 동향

■ 군산시 현황

- (군산시 인구 현황) 현재 군산시의 전반적인 인구변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적인 군산시 인구 변화, 연령계층별 인구, 외국인 인구 등을 파악함
-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 군산시 산업단지 유형과 근로자 수 등 전반적인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 함

■ 산업단지 관련 연구 동향

- (연구 동향)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국내 산업단지 관련 연구 동향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구성 요소를 파악함

■ 산업단지 정주 지원 정책 동향

- (중앙 정부 정책 동향) 산업단지 정주 여건 마련 및 개선,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국내 산업단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를 고찰함
- (군산시 정주 지원 정책)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청년, 외국인 대상 정주 여건 관련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현재 군산시 정주 지원 정책의 수준을 파악함

2)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 정책 요구 분석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 대상 FGI 조사

- (FGI 조사)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 등 기본 정보, 출퇴근 방법, 관외 근무 장점과 단점, 관외 근무 사유와 주소 이전 요인, 정책 제언 등 관외근무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의견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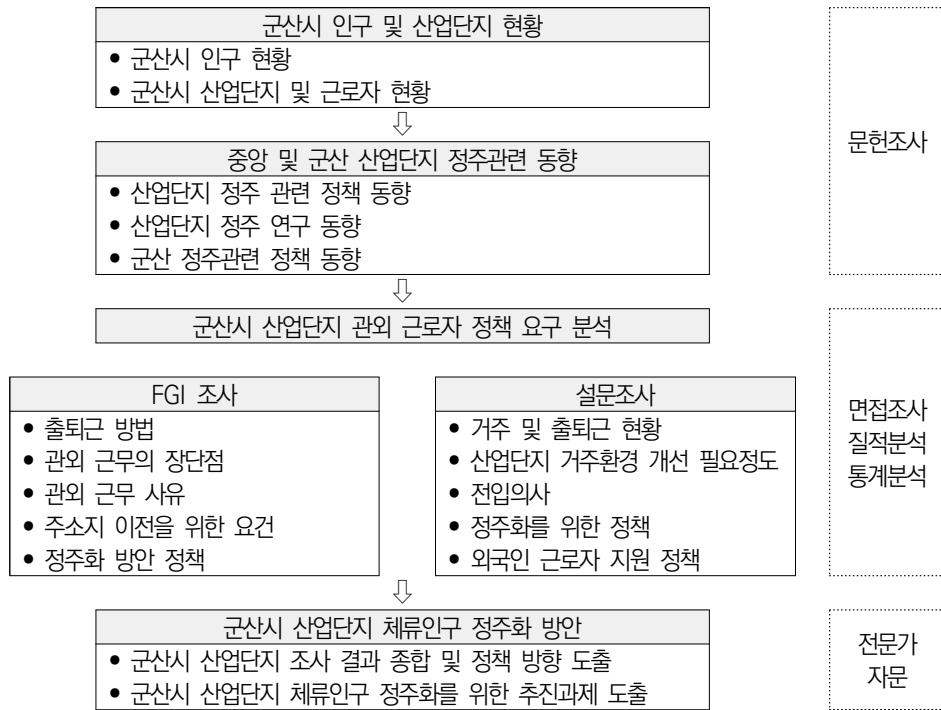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 (실태조사)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외 근로자의 거주 현황, 산업단지 거주 환경, 전입 의사 및 정책 요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파악) 관외 근로자의 군산시 전입 및 주소지 이전 의사와 함께 주소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 순위 파악, 산업단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영역별 필요 정도를 분석하여 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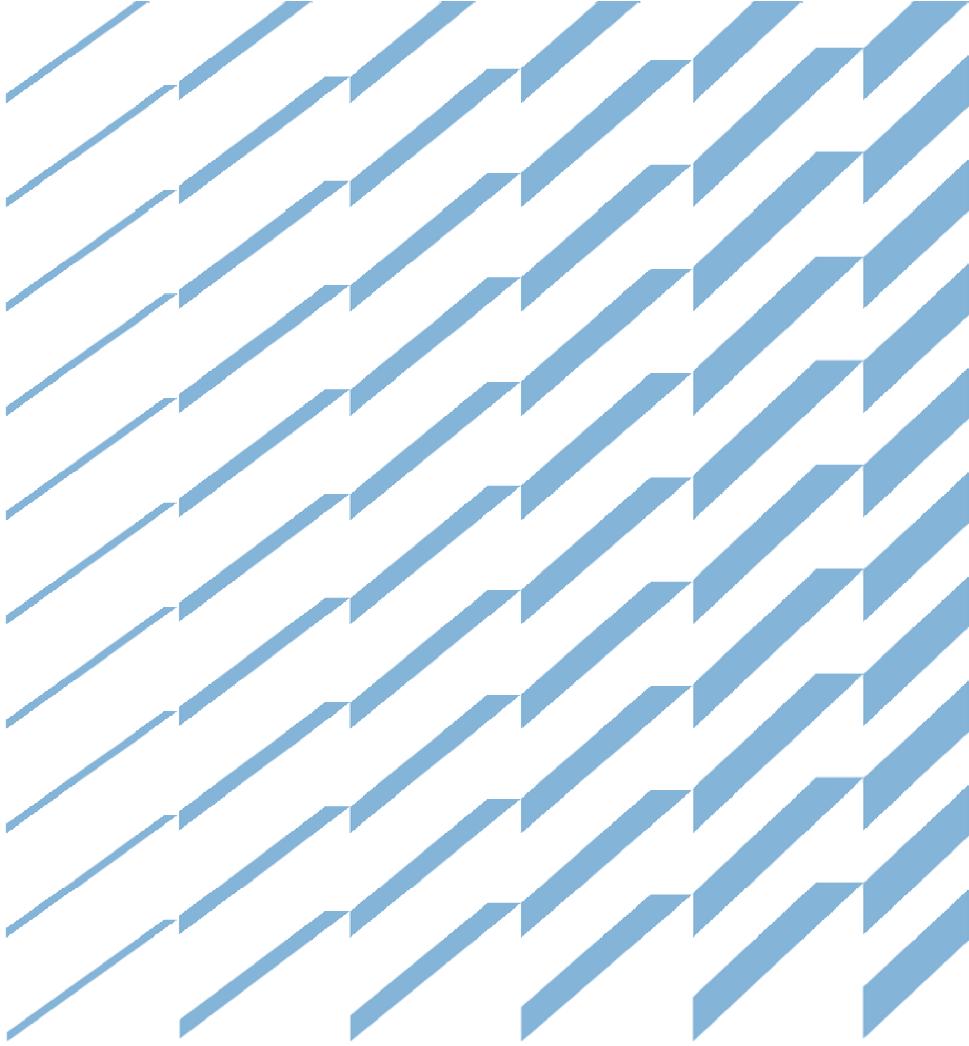
다. 연구 절차

- 군산시의 산업단지 관외 거주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도출을 위해 먼저 군산시 인구와 산업단지 현황, 중앙과 군산의 산업단지 정주관련 정책 동향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함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화 방안 연구를 위해 산단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FGI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정책 요구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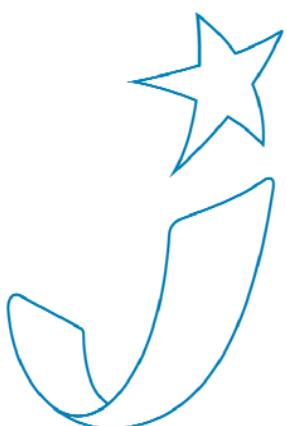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현황 분석

1. 군산시 현황
2.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
3. 관련 정책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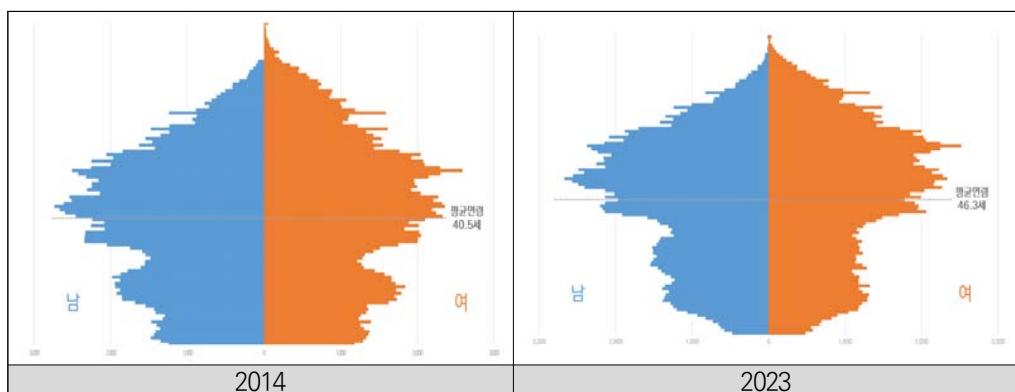


제2장 현황 분석

1. 군산시 현황

■ 군산시 일반 인구 현황

- 군산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총 259,980명, 인구증가율 -0.31% 로 2016년 이후로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 대비 6.51% 가 감소함
- 현재 군산시의 인구구성을 보면 10년 전(2014년)과 비교하여 유소년,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여 군산시 인구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음
 - 군산시 평균연령은 2014년 40.5세에서 현재 46.3세로 평균연령 증가
 - 군산시 유소년인구(0~14세)는 2014년 42,118명(15.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29,481명(11.3%)으로 3만 명 미만으로 감소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4년 39,555명(14.2%)에서 2015년 41,317명(14.8%), 2020년 50,700명(18.9%)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3년 현재 57,042명(21.9%)으로 증가



[그림 2-1] 군산시 인구 피라미드 변화(2014/2023)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

- 군산시의 인구는 2017년 크게 하락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현 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이 군산시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70%이하로 하락한 이후 2023년 현재 66.7%까지 떨어져 대기업의 폐쇄나 가동중단이 산업도시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군산시의 인구구성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유소년,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여 군산시 인구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음
 - 군산시 유소년인구(0~14세)는 2014년 42,118명(15.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29,481명(11.3%)으로 3만 명 미만으로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4년 196,425명(70.6%)에서 2017년 191,870명(69.8%)으로 전체 인구의 60대로 감소한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23년 현재 173,457명(66.7%)
 - 고령인구(65세 이상)은 2014년 39,555명(14.2%)에서 2022년 54,997명(21.0%)으로 전체 인구의 20%이상으로 증가한 후 2023년 현재 57,042명, 전체 인구의 21.9% 차지

[표 2-1] 군산시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2014~2023)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인구 증기율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2014	278,098	0.12	42,118	15.1	196,425	70.6	39,555	14.2
2015	278,398	0.22	41,027	14.7	196,054	70.4	41,317	14.8
2016	277,551	-0.31	39,890	14.4	194,851	70.2	42,810	15.4
2017	274,997	-0.98	38,547	14	191,870	69.8	44,580	16.2
2018	272,645	-0.68	37,127	13.6	189,605	69.5	45,913	16.8
2019	270,131	-0.76	35,563	13.2	186,509	69	48,059	17.8
2020	267,859	-0.93	34,090	12.7	183,069	68.3	50,700	18.9
2021	265,304	-0.92	32,738	12.3	179,852	67.8	52,714	19.9
2022	262,467	-0.68	31,004	11.8	176,466	67.2	54,997	21
2023	259,980	-0.31	29,481	11.3	173,457	66.7	57,042	21.9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

[표 2-2] 군산시 읍면동별 총인구(2014~2023)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군산시	278,098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265,304	262,467	259,980
옥구읍	3,638	3,541	3,488	3,420	3,389	3,287	3,184	3,103	2,984	2,945
옥산면	2,721	3,457	3,773	3,818	4,400	4,814	4,720	4,695	4,616	4,535
회현면	3,766	3,737	3,808	3,695	3,618	3,549	3,454	3,356	3,312	3,233
임피면	3,192	3,122	3,021	2,929	2,848	2,758	2,677	2,623	2,503	2,509
서수면	2,886	2,867	2,843	2,800	2,738	2,671	2,589	2,503	2,429	2,372
대야면	5,874	5,644	5,496	5,386	5,288	5,225	5,043	4,864	4,790	4,645
개정면	3,653	3,563	3,487	3,383	3,221	3,109	3,021	2,940	2,889	2,853
성산면	3,308	3,287	3,234	3,217	3,097	3,019	2,903	2,854	2,769	2,613
나포면	2,521	2,530	2,495	2,408	2,344	2,289	2,224	2,166	2,126	2,056
옥도면	4,207	4,081	3,937	3,820	3,740	3,629	3,394	3,285	3,115	2,983
옥서면	4,212	4,000	3,844	3,643	3,341	3,199	3,039	2,923	2,852	2,725
해신동	2,177	2,825	2,782	2,742	2,594	2,470	2,406	2,260	2,199	2,125
월명동	7,557	7,110	6,878	6,631	6,276	6,062	5,547	5,190	5,007	4,829
신풍동	8,664	8,388	8,171	7,943	7,742	7,527	7,186	6,965	6,717	6,380
삼학동	7,098	6,901	6,703	6,453	6,200	5,965	5,705	5,439	5,360	5,251
중앙동	3,829	3,721	3,529	3,357	3,095	2,953	4,466	4,358	4,234	4,110
흥남동	11,155	10,764	11,014	11,313	11,401	11,968	12,805	12,585	12,341	11,739
조촌동	16,044	15,668	15,456	15,851	20,301	21,180	22,238	24,159	24,707	26,780
경암동	8,407	8,456	8,645	8,533	7,966	7,769	7,511	7,344	7,230	7,040
구암동	6,664	6,488	6,251	6,090	5,788	5,579	7,753	8,119	8,544	8,963
개정동	3,456	3,364	3,290	3,208	3,085	3,006	2,878	2,802	2,671	2,567
수송동	45,927	50,589	54,105	55,771	55,888	56,282	55,353	54,888	54,047	53,044
나운1동	16,792	15,977	14,984	14,457	13,887	13,381	12,699	12,401	13,121	13,570
나운2동	27,447	26,894	26,355	25,725	24,959	24,463	23,838	23,117	22,489	21,901
나운3동	37,883	36,990	36,264	35,681	34,252	33,509	32,345	31,751	31,038	30,440
소룡동	19,742	19,281	19,042	18,430	17,630	17,251	16,755	17,222	17,243	16,968
미성동	15,278	15,153	14,656	14,293	13,557	13,217	12,126	11,392	11,134	10,804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군산시 읍면동별 인구를 살펴보면 나운동은 군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기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10여년 전과 비교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수송동, 조촌동, 구암동 등 신도심 중심으로 2018년 이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나운동은 2014년 82,122명에서 2023년 65,911명으로 16,211명 감소
- 수송동은 2014년 45,927명에서 2023년 53,044명으로 7,117명 증가, 조촌동은 2014년 16,044명에서 2023년 26,780명으로 10,736명 증가, 구암동은 2015년 6,664명에서 2023년 8,963명으로 2,299명 증가
- 옥산면은 2014년 2,721명에서 신규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2019년 4,8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4,720명, 2023년 4,535명으로 감소 추세
- 군산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소룡동의 인구현황을 보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기 전인 2016년 19,042명에서 2023년 16,968명으로 2천명 이상이 감소됨
- 군산시 이동자 수는 지난 10년 간 전체적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고, 현재(2023년) 전입 29,494명, 전출 30,722명으로 순이동이 -1,228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전입·전출은 지난 10년 간 군산시내 이동이 가장 많았고, 시도 간 전입·전출, 시도 내 전입·전출 순

[표 2-3] 군산시 이동자 수(2014~2023)

(단위 : 명)

구분	전체			시도 내			시도 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사군구내 이동	사군구간 전입	사군구간 전출	전입	전출
2014	41,312	42,317	-1,005	26,185	4,732	4,956	10,395	11,176
2015	42,522	43,065	-543	27,334	4,554	4,602	10,634	11,129
2016	39,410	40,705	-1,295	24,731	4,605	4,765	10,074	11,209
2017	33,640	36,171	-2,531	20,277	4,476	4,551	8,887	11,343
2018	38,888	40,958	-2,070	24,547	4,843	4,562	9,498	11,849
2019	33,808	35,805	-1,997	20,050	4,341	4,208	9,417	11,547
2020	40,013	41,781	-1,768	25,450	4,708	4,550	9,855	11,781
2021	35,364	36,211	-847	21,241	4,149	4,197	9,974	10,773
2022	30,032	31,361	-1,329	17,805	3,773	3,938	8,454	9,618
2023	29,494	30,722	-1,228	17,510	3,400	3,852	8,584	9,360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이동자수

- 군산시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는 지난 10년 간 주택 때문에 이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직업, 기타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4] 군산시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2014~2023)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업	7,426	7,827	6,812	6,453	7,542	8,021	7,741	7,900	7,174	6,914
가족	11,645	11,419	10,554	9,639	9,638	9,460	10,161	8,903	7,619	7,577
주택	18,347	19,141	16,954	12,802	13,978	9,723	13,639	11,152	9,565	9,388
교육	1,754	1,640	1,515	1,374	1,505	1,698	1,511	1,507	1,366	1,429
주거환경	670	717	579	777	1,106	1,429	1,613	1,331	1,354	1,403
자연환경	315	341	306	411	379	473	477	583	483	369
기타	1,155	1,437	2,690	2,184	4,740	3,004	4,871	3,988	2,471	2,414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 군산시 전출 사유별 이동자 수는 지난 10년간 주택 때문에 이동이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전출 이동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다음으로 전출 사유는 2018년까지는 가족을 이유로 이동한 수가 많았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직업 때문에 전출하는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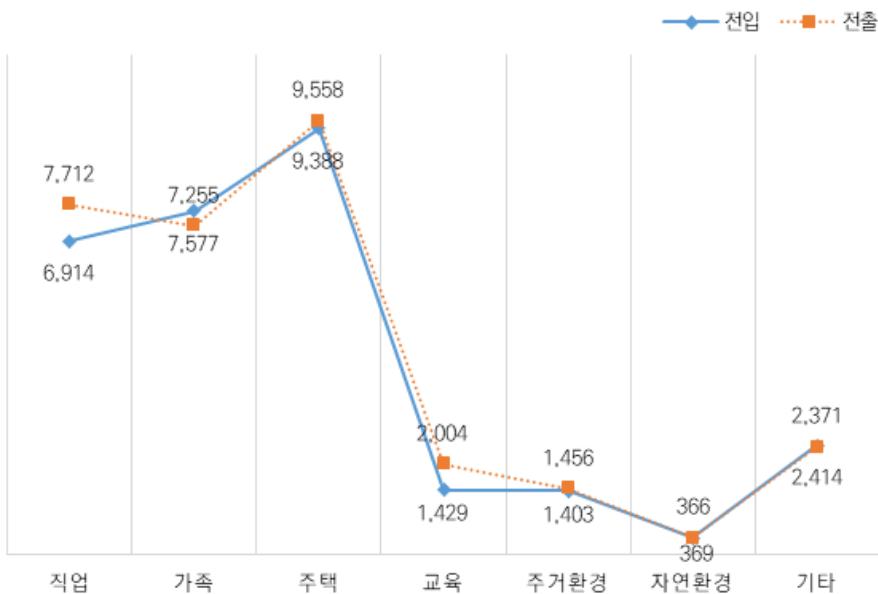
[표 2-5] 군산시 전출 사유별 이동자 수(2014~2023)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업	8,634	8,776	8,569	8,644	9,285	9,357	9,505	8,858	7,880	7,712
가족	10,856	10,689	10,032	9,077	9,484	8,970	9,821	8,350	7,120	7,255
주택	17,912	18,550	16,307	12,770	14,377	10,507	13,835	11,433	9,822	9,558
교육	2,115	2,147	2,050	2,056	2,079	2,352	2,167	2,118	2,183	2,004
주거환경	776	770	710	881	1,133	1,444	1,647	1,412	1,447	1,456
자연환경	379	363	358	468	417	421	477	504	408	366
기타	1,645	1,770	2,679	2,275	4,183	2,754	4,329	3,536	2,501	2,371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 현재 군산시 전입-전출 사유를 보면 전입은 주택(9,388명, 31.8%), 가족(7,577명, 25.7%), 직업(6,914명, 23.4%) 등 순이었고, 전출은 주택(9,558명, 31.1%), 직업(7,712명, 25.1%), 가족(7,255명, 23.6%)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군산시 전입-전출 사유별 이동자 수(2023)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전출사유별 이동자수

- 군산시 인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기업 유치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 향후 기업 유치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 군산시는 2023년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산업분야 기업과 근로자가 유입됐음에도 군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23년 이차전지 관련 21개사의 21건 투자협약에 의해 8조 8,011억원 투자와 6,843명의 고용이 예상되고 있으나, 군산시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월 평균 200여명 감소

■ 군산시 외국인 인구

- 군산시 등록외국인은 2016년 5,490명에서 현재(2024.6말) 8,74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체류자격별로 현재 비전문취업(E-9)이 2,75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학(D-2) 1,261명, 결혼이민(F-6) 885명, 일반연수(D-4) 580명, 영주(F-5) 535명, 방문동거(F-1) 529명, 특정활동(E-7)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6] 군산시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자격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4.6말
총 계	5,490	5,266	5,700	6,101	5,792	5,822	6,803	8,443	8,746
유학(D-2)	257	309	423	606	668	807	871	1,073	1,261
기술연수(D-3)	7	7	7	7	7	7	7	7	7
일반연수(D-4)	74	200	321	387	308	367	680	657	580
종교(D-6)	1	3	2	4	1	-	2	-	-
주재(D-7)	1	1	1	1	2	1	1	1	1
기업투자(D-8)	26	12	12	19	23	28	38	55	57
무역경영(D-9)	15	2	0	0	12	7	9	5	41
구직(D-10)	13	13	11	12	20	48	86	174	147
교수(E-1)	4	2	2	2	2	3	4	4	3
회화강사(E-2)	76	79	73	71	62	57	53	51	40
연구(E-3)	4	12	7	11	13	17	25	28	22
예술흥행(E-6)	114	53	40	32	27	26	23	19	15
특정활동(E-7)	43	39	45	51	57	62	80	291	357
계절근로(E-8)	-	-	-	-	-	-	13	54	51
비전문취업(E-9)	2,062	1,835	1,958	2,015	1,714	1,616	2,012	2,708	2,757
선원취업(E-10)	313	339	321	317	303	288	302	337	341
방문동거(F-1)	579	556	588	608	492	412	489	542	529
거주(F-2)	107	108	110	107	105	101	124	143	160
동반(F-3)	45	34	39	61	63	51	83	117	138
영주(F-5)	370	425	437	438	454	459	486	520	535
결혼이민(F-6)	771	751	771	780	805	836	845	869	885
기타(G-1)*	40	60	73	123	172	142	158	315	351
관광취업(H-1)	1	-	2	2	-	1	-	1	1
방문취업(H-2)	510	362	371	336	264	214	152	171	173
기타(other)**	57	64	86	111	218	272	260	301	294

2.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

■ 군산시 산업단지 및 근로자 현황

- 군산시 산업단지는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새만금지구,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로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지구를 포함하고 있음
- 전체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를 제외한 지원, 공공, 녹지, 주택 등 면적은 약 16,044천m²로, 정주 여건 관련 시설은 산업시설 전체면적 40,009천m² 대비 40%정도 규모를 보임

[표 2-7] 군산시 산업단지 기초 정보

유형	위치	면적	유치업종
군산 국가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	20,184천m ² (산업 14,450, 지원 1,108, 공공 2,924, 녹지 1,702)	운송장비,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업종 등
군산2 국가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 일원		
새만금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남측)	18,465천m ² (산업물류 10,170, 복합시설 543, 산업업무 1,105, 주택 797, 공공 5,848)	부품제조산업(자동차부품, 2차 전지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등), 첨단융 합산업(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고부가가치식품 등), 제조 서비스관 련 융복합산업(ICT융복합, 문화, 관 광, 의료융복합)
자유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방조제 초입)	1,256천m ²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일반	군산시 소룡동 일원	5,641천m ² (산업 3,624, 지원 1,220, 공공 645, 녹지 152)	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 자, 운송장비
농공	군산시 옥구읍, 서수면, 성산면, 임피면 일원	559천m ²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식품 등

- 군산시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142,046천m², 관리면적은 60,955천m²로, 산업시 설구역은 전체면적 40,009천m²중 분양대상은 35,341천m²로 전체 평균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 유형별 면적을 보면 국가 산업단지 83,882천m², 일반 산업단지 5,641천m², 농공단지 808천m²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9.1%가 국가 산업단지로 산업단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8]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1) (단위 : 천㎡, %)

유형	단지명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	분양 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군산	13,702	6,828	5,577	5,577	5,577	-	100
국가	군산2(구 군장지구)	51,715	14,612	9,994	9,994	9,909	85	99
	군산2국가산업단지	50,459	13,356	8,873	8,873	8,873	-	100
	군산(자유무역)	1,256	1,256	1,121	1,121	1,036	85	92
국가	새만금지구(조성중)	18,465	18,465	10,171	5,503	4,520	983	82
일반	군산	5,641	5,641	3,630	3,630	3,630	-	100
농공	서수	287	287	239	239	239	-	100
농공	성산	142	142	126	126	126	-	100
농공	옥구	140	130	103	103	103	-	100
농공	임피	239	238	175	175	152	23	87
	전체	142,046	60,955	40,009	35,341	34,165	1,176	96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2024년2분기)

-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총 1,797개소로 이중 현재 가동업체는 1,581개소 약 8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군산시 산업단지 고용현황을 보면 총 26,908명으로 남성 근로자 22,798명, 여성 근로자 4,10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4.7%가 남성으로 나타남

[표 2-9]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2)

유형	단지명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원)	누계 수출 (천달러)
				남	여	계		
국가	군산	213	182	4,013	475	4,488	2,009,274	484,169
국가	군산2(구 군장지구)	651	577	5,892	1,196	7,088	2,277,750	387,181
	군산2국가산업단지	593	519	4,799	862	5,661	1,743,333	146,300
	군산(자유무역)	58	58	1,093	334	1,427	534,417	240,881
국가	새만금지구(조성중)	69	33	1,256	297	1,553	467,932	70,196
일반	군산	62	62	4375	239	4,614	2,315,144	831,734
농공	서수	44	44	619	391	1,010	118,864	2,028
농공	성산	24	24	150	55	205	46,356	1,330
농공	옥구	43	43	291	169	460	39,756	2,912
농공	임피	40	39	310	87	397	25,014	164
	전체	1,797	1,581	22,798	4,105	26,903	9,577,840	2,166,895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2024년2분기)

- 군산시 등록공장 현황을 보면 전체 1,124개 공장 중 산업단지 내 등록공장은 808개로 군산시 전체 등록공장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 등록공장 내 종업원 수는 전체 남자 25,291명, 여자 4,095명, 외국인 남자 616명, 외국인 여자 40명으로 총 30,042명이 근무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등록공장 종업원은 남자 23,501명, 여자 3,196명, 외국인 남자 577명, 외국인 여성 37명으로 총 27,311명이 근무하고 있어, 군산시 등록공장 종업원의 90.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0] 군산시 등록공장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공장수	종업원 수					
		남자	여자	외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	합계	
전체	1,124	25,291	4,095	616	40	30,042	
설립 구분	국가산단	580	15,702	1,939	331	26	17,998
	농공단지	123	1,244	598	51	5	1,898
	일반산단	69	5,048	253	39	0	5,340
	자유무역	36	1,507	406	156	6	2,075
	소계	808	23,501	3,196	577	37	27,311
	일반	273	1,589	810	29	3	2,431
	창업	43	201	89	10	0	300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등록공장현황(20200229) 재구성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무자 현황

- 군산시의 산업단지 현황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10인 이상 산업단지 내 기업은 530개 소에 이르며, 기업체 협조요청 및 유선조사 병행을 통해 147개소의 6,254명의 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관내 근로자 4,622명(74.54%), 관외 근로자 1,592명(25.4%)으로 나타남
- 군산시는 샘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내를 70%로 관외를 30%로 추정하여 현재 530개 소 근로자 30,439명을 근거로 관내 21,307명, 관외 9,132명으로 추정

- 군산시가 산업단지 기업체 중 83개의 기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근로자는 3,647명으로 이중 군산시 주거 근로자는 2,688명(73.7%), 관외 근무자 중 전북특별자치도내 정주자는 648명(17.8%), 관외 근무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외 정주자는 311명(8.5%)에 달함
-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화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주소지 외에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자녀유무 등의 다양한 현황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와 정책연구의 한계상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시의 협조를 통해 군산시 산단 관외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대표적인 사례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FGI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표 2-11] 군산시 관외 근로자 현황 조사 결과

(단위 : 명, %)

화신 기업체	총 근로자 수(명)	현주소지 현황		
		관내(명)	관외(명)	
147개소	6,254	4,662 (74.54)	1,592 (25.46)	전북도 내 전북도 외 961 (15.37) 631 (10.09)

출처 : 군산시 자체조사(2024.2.21.~3.15)

3. 관련 정책현황 분석

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정책

■ 산업단지 정주여건 구성요소

- 산업입지개발법(2014.1)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복합용지 지정이 허용되어 공장뿐만 아니라 상업·업무·지원·편의·휴식시설 등 확충이 가능해졌고, 이는 교육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산업단지 내 정주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연미 외(2014)는 산업단지 배후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시설, 상업편의시설, 금융, 운동서비스 시설 등 생활기반 중심 정주시설을 7개 영역으로 정리함

[표 2-12] 산업단지 정주여건 구성요소 분석

산업단지 생활기반 (서연미 외, 2014)	산업단지 고용환경 (조혜영 외, 2015)	산업단지 정주환경 (조성철 외, 2018)
1. 주거시설(단독주택, 아파트 등)	1. 주거시설(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1.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숙사)
2. 상업편의시설(식당, 카페, 마트, 편의점 등)		2. 상업·금융시설(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은행)
3. 금융·운송서비스(은행, 우체국, 택배 등)		3. 교통시설(버스정류장, ktx고속철도역, 지하철역, 철도역, 주차장)
4. 공원·체육시설(스포츠시설, 공원, 운동장 등)	2. 체육시설(체육관, 체력단련장, 운동장 등 옥외체육시설)	4. 공원시설(공원, 어린이 놀이터) 5. 문화체육시설(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커피매장, 영화관)
5. 문화시설(극장, 공연장 등)	3. 문화시설(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6. 복지시설(유치원, 보육시설 등)	4. 보육시설(어린이집)	6. 복지시설(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7.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7. 의료시설(병원, 의원, 약국 등)		8. 의료시설(병의원, 응급의료시설, 보건소, 종합병원)
		9. 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조혜영 외(2015)는 고용환경 관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명시된 근로복지시설 목록에 기초하여 주거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을 필수 정주환경 구성요소로 도출하였고, 산업단지에 원거리 통근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교통시설(통근버스)을 구성요소에 포함하였음
 - 조성철 외(2018)는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산업단지 내부 시설 및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배후도시의 정주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의 산업단지 근무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정주환경과 근로자 가족구성원 전체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주환경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소를 제안함
 -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필수 정주시설 실태에 초점을 두고, 일터와 삶터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의 사회적 비용 완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목적이 있다면 종합적인 정주시설 공급방안에 집중
 - 따라서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군산시 산업단지 내와 배후단지의 정주여건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현재 군산시의 종합적인 정주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관련 조례

- 현재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분석하면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관련 조례, 산업단지 개발 지원관련 조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관련 조례, 특별회계 설치·운용,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대한 조례 등 17개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운영 등에 관련 조례 외에 산업단지 정주환경관련 조례는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정주여건 개선 조례, 임시이주자 지원 조례 등 5개 정도로 파악되었음
 -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관리 관련 조례는 거창, 군산, 사천, 담양, 영암, 음성, 정읍, 김제, 진안, 무안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 지원센터 설립·운영은 광주, 전북, 제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제정
 -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은 경기, 서울, 부여, 상주, 인천 서구 등 2개 광역 시도, 3개 기초자체단체에서 제정

- 산업단지 관련 조례 중 ‘정주여건 개선’을 명시한 조례는 충남과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뿐이었고, 구미에서는 임시이주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특징적임

[표 2-13] 전국 산업단지관련 조례

구분	지자체	지자체 수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가평, 고령, 괴산, 단양, 동두천, 무주, 문경, 보령, 성주, 수원, 안성, 여주, 연천, 영암, 울주, 의정부, 익산, 정읍, 제천, 진주, 청양, 포천, 하동, 함평, 화순	기초 25
산업용지 확충	대구, 부산	광역 2
산업단지 개발 지원	강원, 경기,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역 13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대전, 거창, 광양, 괴산, 김포, 김해(2), 나주, 남원, 밀양, 기장, 부여, 사천, 상주, 속초, 아산, 안성, 양산(2), 양주, 영동, 완주, 용인, 음성, 계양(2), 장흥, 진주(2), 진천, 창원, 춘천, 통영, 평택, 포천, 함평, 화성, 횡성	광역 1 기초 33
산업단지 관리 및 관리업무 위탁	광주, 대전, 세종, 고령, 공주, 광주 광산구, 보령, 사천, 안성, 천안, 청주, 평택, 홍천	광역 3 기초 9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세종(2), 거제, 공주, 군포, 김제, 김해, 나주, 논산, 목포, 아산(3), 안동, 양주, 예산, 용인, 의왕, 정읍, 증평, 진주, 창녕, 창원(2), 천안(2), 충주(2), 합천	광역 1 기초 22
주식회사 출자·운영	괴산, 남동, 양산, 원주, 음성(3), 계양	기초 6
특별회계 설치·운용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남, 강진, 거창, 고성, 광양, 괴산, 군산, 군포, 김제, 김천, 나주, 논산(2), 단양, 문경, 보은, 기장(2), 산천, 서산, 서천, 성주, 아산(3), 양산, 영동, 영천, 예산, 옥천, 완주(2), 울주, 음성, 익산, 계양(2), 장흥, 정읍, 증평, 진주, 창원, 천안(2), 청주, 춘천, 충주, 하동, 함안, 함평, 해남, 홍성, 횡성	광역 5 기초 50
기금설치 운용	광주 광산구, 부여, 청주	기초 3
지방채 발행	광주	광역 1
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관리	거창, 군산, 사천, 담양, 영암, 음성, 정읍, 김제, 진안, 무안	기초 10
지원센터 설립·운영	광주(2), 전북, 제주	광역 3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경기, 서울, 부여, 상주, 인천 서구	광역 2 기초 3
정주여건 개선	충남,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광역 1 기초 14
임시이주자 지원	구미	기초 1
온실가스 감축지원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광역 7
재생주진협의회 구성·운영	인천, 구미, 성남, 안산, 진주	광역 1 기초 4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산업단지 정주여건 관련 정부 정책

-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정주여건의 악화와 청년층의 기피,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함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산업단지 직접효과 극대화와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종합대책에서는 크게 디지털화, 저탄소화, 정주여건, 안전강화, 관리제도 5개 분야에 따른 5대 전략(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함께 하는 안전·안심 산업단지,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 83개 과제를 계획함

[표 2-14] 산업단지 혁신 전략 및 세부과제

전략	세부과제
1.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1] 산업단지를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앵커로 육성 [2] 산업단지 제조기업 디지털 수준 대진단 [3] 산업단지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2.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1]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추진 [2]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 확대 [3]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지원 [4] 미활용 자원의 재이용 촉진
3.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1]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 [2] 테마가 있는 공간 조성 [3] 산업단지 기초 인프라 확충
4. 함께 하는 안전·안심 산업단지	[1] 디지털 기술로 산업단지 생산시설의 안전 강화 [2]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 [3] 안전관리체계 통합으로 산업단지 안전 기반 강화
5.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	[1] 성장지원형 산업단지 관리제도로 전환 [2] 수요자 친화적 산업입지 제도 [3] 산업단지 정책 거버넌스 개편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2.11.3.). 혁신적·역동적 新산업공간으로의 전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 종합대책에서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후 산업단지 증가와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 문화시설 부족 등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층의 산단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청년창업의 거점화로 혁신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 미래형 융복합공간 확산, 산업단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표 2-15] 산업단지 정주여건관련 혁신 종합대책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용	
[1]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청년 창업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공동화 지역,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과 리스트트기업 등 창업공간 저렴하게 제공 • 창업기업과 산단내 제조기업 매칭, 제조수요 발굴, 시제품, 편딩, 양산,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산업단지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별 업종특성에 맞는 특화교육, 산업현장 프로젝트 기반 R&D 지원 • 지역특화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 지역으로 귀환한 지역인재에 대한 정착 지원 • 산단 기업 및 협·단체 중심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민·관 협력 선도기업 자체 지방 청년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속 확대
[2] 테마가 있는 공간 조성	산업단지 브랜드화로 지역산업관광 수요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산단' 조성 • 산단별 전략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콘텐츠 개발, 체험형 시설 확충
	미래형 융복합공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주거·문화·여가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확산
[3] 산업단지 기초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공간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산업단지 기본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확충·정비 • 재생사업지구 내 활성화구역을 대규모 고밀 복합개발 • 재생사업의 기금용자 규모 확대, 복합개발·리모델링 촉진, 민간투자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 • 공해·약취 등 도시 비친화적 시설 이전·집단화, 유류부지는 녹지, 기술사 등 공공편의시설로 전환 • 산단과 주변지역을 묶어 일자리, 문화·복지, 주거 등 융합된 공간 조성 방안 검토
	안정적인 주거와 편리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공급, 산업단지 재생지구 추가 공급 추진 • 지방산단 내 기숙사 공급확대, 아파트 특별분양, 사택, 공유주택 제공 방안 검토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하용지역 확대 추진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지속 추진 • 산업단지 안팎의 유류부지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용친화적인 공간으로 틸바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청년, 신중년 및 고령자 고용 시 고용장려금 등 지원 제도의 산단 내 활용 촉진 • 지방과 산업단지 등에 거주, 여가, 교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재마을' 구축 추진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을 확대한 지방 산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2.11.3.). 혁신적·역동적 新산업공간으로의 전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산업단지 환경·인프라(문화, 정주, 보육, 안전, 환경 등)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사업을 통합하여 공모 중에 있으며,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약 4,700억원 규모로 투입 계획에 있음
- 산업단지 환경개선관련 사업은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거리 조성, 온실가스 감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안전보건관련 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 다만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은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음

[표 2-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 사업(2024)

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산업부	국가·일반 /농공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출연) 패키지 지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비 지원(최대 70억원)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건축비용 지원(최대 60억원)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사업	설계·공사비용 지원(최대 20억원)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공사비용 등 지원(최대 0.2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		집적화, 복합시설 등 건립에 정부자금 출자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 등(최대 4억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단지 내 공동활용시설, 공동혁신활동 등 지원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대주택 건설·공급 (산단근로자 등 대상 입주)
고용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시설건립비 90%(20억원 한도)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단당 10억원 한도 소요비용 50% 지원
	산재예방시설 용자		안전보건시설 설치·개선 지원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산재보험 요율 인하)
환경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분석, 문제 진단, 제도설계, 이행관리 등 컨설팅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시설 설치비 지원(50~7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설치비 지원(70%)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관점 분석, 평가, 컨설팅 지원
산림청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조성사업비 지원(50%)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지원

- 중앙정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동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
- 또한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관에도 공급이 가능함

[표 2-17]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 가구일 경우 120%, 2인 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100% 이하
공급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90%, 고령자 10%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4.6.26.).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거부담 덜어드려요.

- 실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모집 현황을 보면, ‘서울 금천 행복주택(산업단지형)’을 2021년 6월에 서울시 금천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 여성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사례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전남 영암, 전북 정읍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대상자를 모집함
- 부산명지 행복주택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산업단지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였고, 2022년에는 소득요건과 기간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16m², 26A m², 26B m², 36m² 180호를 공급하여 산업단지근로자를 우선으로 모집함

- 2024년에는 모집공고(2024.8.13.)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였고, 그 대상은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형은 16㎡, 26㎡, 36㎡으로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모집하였음
- 전북자치도에서는 정읍첨단3블럭 행복주택을 자격완화하여 산단형으로 모집하였고, 16㎡, 26㎡, 36㎡, 36B㎡ 형으로 39호를 모집함
 - 입주자격은 소득요건 없음, 자산요건 없음(자동차는 기준액 3,708만원 이하, 대학생은 미소유), 무주택 요건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장성군에 주택이 없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기간요건은 사회초년생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가족은 자녀연령 만9세 이하로 자격 완화

[표 2-18]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모집 현황

지역	시기	명칭	대상
서울특별시	'21.6	서울금천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무중인 여성 • (일반공급) 산업단지 근로자 등
부산광역시	'22.7 '24.8	부산명지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대구광역시	'24.7	대구첨산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구미, 의성, 청송, 경남 창녕)에 소재한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전라남도	'24.11	염암용양3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p>※ 미계약 세대에 대한 분양으로 입주자격완화: 소득, 자산요건 배제, 무주택요건 완화</p>
전북특별자치도	'24.11	정읍첨단 3블럭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 김제,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성 소재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출처 : LH청약+홈페이지 공고문 재구성(<https://apply.lh.or.kr/>)

나. 군산시 정주 관련 정책

■ 군산시 산업단지 지원 사업

-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교통지원으로 ‘산단 출퇴근 버스 운행 지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지원을 위해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이 있음
- 군산시 산단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임차(월세)지원 사업은 1개 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20만원 한도 등 산업단지 지원 사업 중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산단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 정도로 전반적인 정주 여건 지원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표 2-19] 군산시 산업단지 지원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사업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월 세) 지원사업	군산 산업단지 내 입 주 중소기업 (군산1·2국가, 일반, 새만금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 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 부 비용(월세)을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20만원 한도	144,000천원 (도43,200, 시100,800)
군산형 유망 강 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혁신활동,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혁 신 지원, R&D지원 - 유망강소기업: 연 50백만원/자부담20(3년) - 강소기업: 연 30백만원/자부담 20(1년)	230,000천원 (1년)
산단 출퇴근 버 스 운행 지원	산단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인승, 15개 노선(그룹 8, 개별 6, 야간 안심 1), 1일당 출·퇴근 각 1회 *1인 왕복 월 5만원/ 편도2.5만원	20,300천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관내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수 200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복지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20백 만원 한도*기업자부담 400이상)	

출처 : 군산시 내부자료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 군산시는 오식도동과 요죽공원 일원에 지상3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2019년 9월부터 건립하여 2024년 9월에 정식 개관함
- 이를 위해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2024.8.1.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일부 시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기업지원센터, 산단민원센터,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실과 함께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등 산단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평일 9시에서 8시, 토요일 9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표 2-20]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현황

구분		면적 (㎡)	수용 (명)	공간활용
1층	산단민원센터	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실
	휴게실	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휴게공간(소파, 테이블 등)
2층	작은도서관	2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열람 및 대여
	체력단련실	1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렌닝머신 등 33종
	다목적구장	4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행사 및 농구코트
	소회의실	3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간(테이블, 의자 등)
	다목적실	3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간(방송시설, 빔프로젝터, 테이블, 의자)
3층	기업지원센터	6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시설관리 및 운영총괄사무실
	공유오피스	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전용 회의실<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식티비, 오피스기기, 테이블, 의자 등
	평생학습센터	8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실<ul style="list-style-type: none">- 빔프로젝터, 테이블, 의자- 커피머신, 오븐기 등
	대회의실	133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강연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및 소규모 음악 등 문화센터 활용- 방송시설, 빔프로젝터, 테이블, 의자
	소회의실	3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간(빔프로젝트, 테이블, 의자)
	다목적실	3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간(테이블, 의자 등)

출처 : 군산시 내부자료

■ 군산시 정주관련 지원

- 군산시 정주 관련 대표적인 지원은 군산시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무료 수강, 신규 관외 전입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타 지역 전입자 쓰레기 봉투 교환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지급 등 전입장려금 및 이사비,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을 실시하는 타지자체 대비 전입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편임

[표 2-21] 군산시 전입관련 지원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살기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	군산시 전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평생학습 타임테이블 제공 및 평생학습개설강좌 무료 이용•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연계, 포인트 달성(30,000점)에 따른 도서 수령	전입일 기준 2년 이내
군산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혜택	군산시 전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평생학습관 이용시 개설강좌 무료 이용	전입일 기준 2년 이내
군산시 신규 관외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군산시 전입 후 1년 이내에 18세 이상 검진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5종(신장, 간기능 검사 등)에 대한 무료 검진 안내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 등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타 지역 전입자 쓰레기 봉투 교환사업	타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주(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군산시 쓰레기 봉투 20L로 환산하여 교환	전입일 6개월이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지급	타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주(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주택 등으로 전입한 세대에 음식물 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 지급(1회)	

출처 : 군산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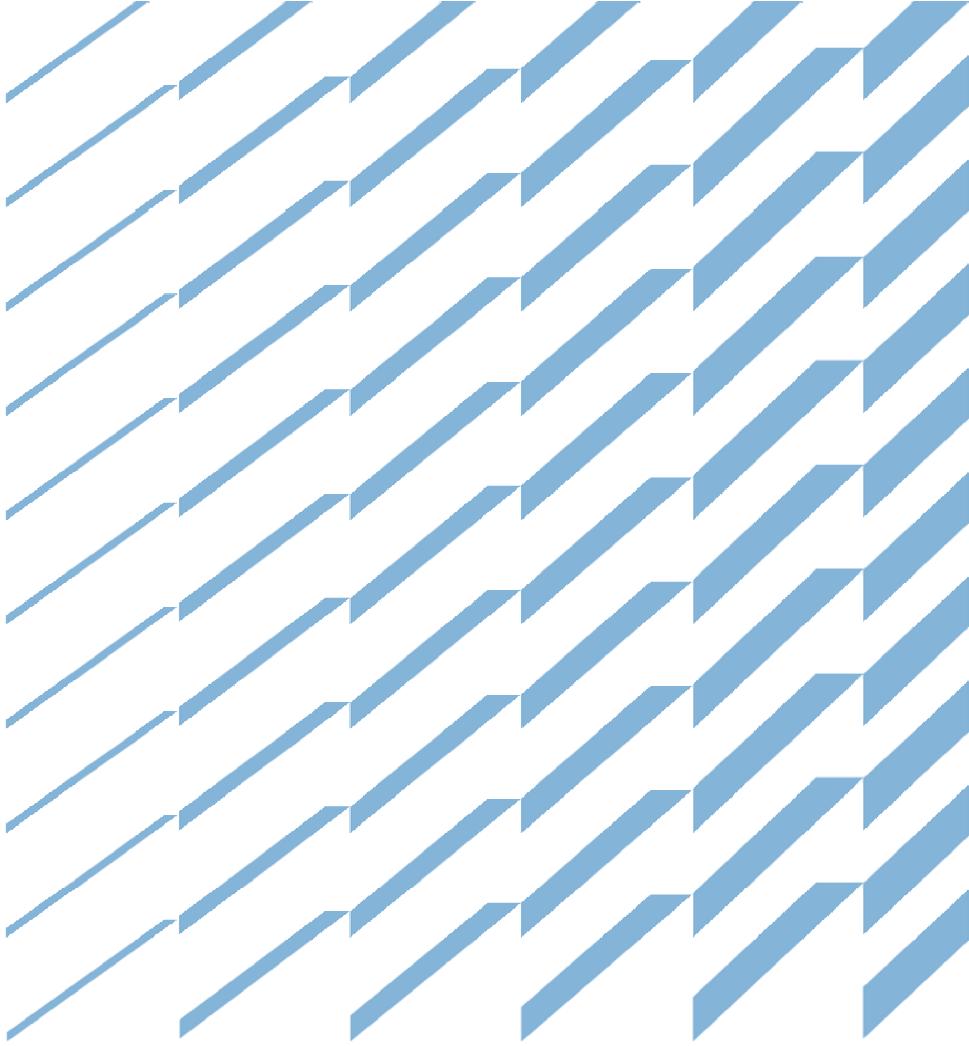
- 군산시는 청년의 정주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주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청년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군산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정착 수당, 복지수당 지원, 역량강화 지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희망키움사업으로 최대 2년 동안 2,900만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5년 이내 무주택자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으로 LH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22] 군산시 청년 지원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군산 거주 대학교 졸업생 중 39세 이하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40시간 근무(일 8시간*5일), 4 대 보험 가입(일 84,400원, 월 2.2 백만원) 	15명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기업: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청년 정규직 채용 업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무한 만18~39 세이하 군산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금 : 청년 신규채용 1인당 7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취업장려금 : 지원개시 후 6/12/24 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원 	15명
전북 청년 지역정책 지원사업	관내 주민등록된 만18~39세 청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포인트 월 30만원, 최대 12개 월 지원 	464명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지원 사업	군산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18~39세/중위소득15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정착지원금 지급(복지포인트) 	261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8~39세 이하 군산시 거주 청년 및 관내 중소·중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착수당 30만원/월, 복지수당 20만원/월, 네트워킹 등, 역량강화 지원, 3년차 정규직 유지·취업·창업 시 지역 정착 인센티브 1,000 만원 지원 •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1인당 월 최대 160만원) 	320명
창업 희망기움 사업	만19세~39세이하 예비창업자 및 5년미만 기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월 최대 2,900만원/인(팀), 1:1 맞춤형 컨설팅 	50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자인 부부로 합산소득 연8천만원 이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최대 200만원) 	100가구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군산시 거주 무주택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18~39세 미혼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제외 임대보증금 내 세대당 2,000만원이내 무이자 지원(최초 2년(1회), 추가 4회 연장 가능) 	60가구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 사업	만19~39세 이하 청년 중 (예비)창업자 및 청년직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보유 원룸 보증금(최대 3,500천 원), 월임대료(최대 100천원) 	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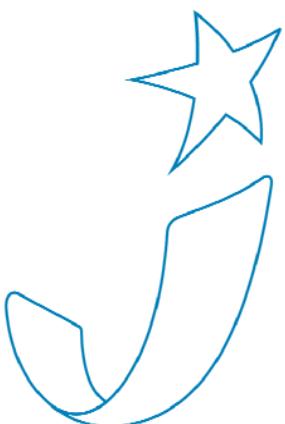
출처 : 군산시 내부자료



제3장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 분석

1.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조사
2. 산단 관외 근로자 FGI 조사
3. 요약



제3장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 분석

1.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 실태와 전입 의향, 전입에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1차로 연구진이 개발한 후 군산 시의 검토와 전문가의 서면 자문을 통해 설문 문항을 개발함
- 관외 근로자 실태조사를 위해 군산시에서 산업단지 내 기업의 협조를 얻어 산단 내 근무하고 있는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104명이 조사됨
- 기업의 협조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최종 분석 수가 104명으로, 기초통계분석인 기초분석과 교차분석만 실시함

단계	내용	세부내용
조사 준비	· 설문지 개발 · 전문가 자문	· 설문지 1차 개발 · 군산시 관계자 검토 · 전문가 서면자문
설문 조사	· 실태조사	· 군산시 산업단지 내 기업 협조를 통해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 실시(24.11.20~12.16) · 최종 104명 조사
자료 분석	· 통계분석	·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교차분석 등

[그림 3-1]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실태조사 절차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조사를 통해 응답한 관외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성 82.7%(86명), 여성 17.3%(18명)으로 산업단지 특성상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았음
-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9명(8.7%), 30대 45명(43.3%), 40대 38명(36.5%), 50대 이상 12명(11.5%)로 30-40대의 응답자가 많았고, 혼인상태는 기혼 62명(60.8%), 미혼 40명(39.2%)으로 기혼 응답자가 더 많았음
- 자녀유무는 자녀 없음 47명(45.2%), 자녀 있음 57명(54.8%)으로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으며 가구유형은 1인가구 25명(24.0%), 다인가구 79명(76.0%)로 나타남
- 계약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 89명(85.6%), 비정규직 15명(14.4%)으로 정규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04)

구분		n	%
성별	남	86	82.7
	여	18	17.3
연령	20대	9	8.7
	30대	45	43.3
	40대	38	36.5
	50대 이상	12	11.5
혼인상태	기혼	62	60.8
	미혼	40	39.2
자녀유무	무	47	45.2
	유	57	54.8
가구유형	1인가구	25	24.0
	다인가구	79	76.0
계약형태	정규직	89	85.6
	비정규직	15	14.4

다. 분석 결과

1) 관외 근로자 현황

■ 거주지 현황

- 군산시 관외 근로자 중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비율은 37.5%,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62.5%로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현재 미혼(73.5%)일 때, 1인 가구(95.2%)일 때, 비정규직(73.3%)일 때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 군산시 관외 근로자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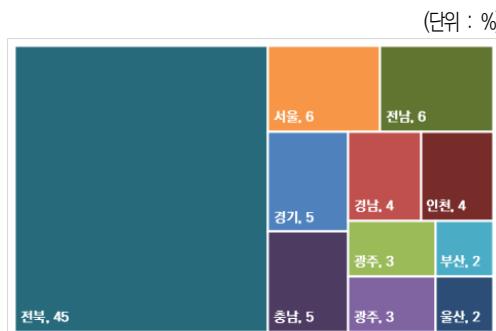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n(명)	36	60
	비율(%)	37.5	62.5
성별	남	35.9	64.1
	여	44.4	55.6
연령	20대	57.1	42.9
	30대	29.3	70.7
	40대	52.8	47.2
	50대 이상	8.3	91.7
혼인상태	기혼	43.3	56.7
	미혼	26.5	73.5
자녀유무	무	30.0	70.0
	유	42.9	57.1
가구유형	1인가구	4.8	95.2
	다인가구	46.7	53.3
계약형태	정규직	39.5	60.5
	비정규직	26.7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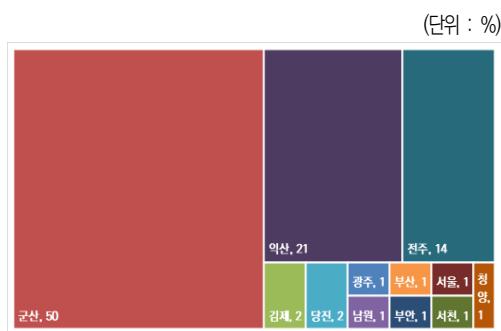
-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전북이 45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과 전남이 각 6명(7.1%), 경기와 충남 각 5명(5.9%), 경남과 인천 각 4명(4.7%) 등 순으로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전국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익산(24명, 2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주(13명, 12.5%), 서울(6명, 5.8%), 목포와 인천(각 4명, 3.8%), 광주(3명, 2.9%) 등 순

- 현재 실 거주지를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군산이 50명(5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익산 21명(21.9%), 전주 14명(14.6%), 김제와 당진 각 2명(2.1%) 등 순으로 실제로는 군산시에 살고 있으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관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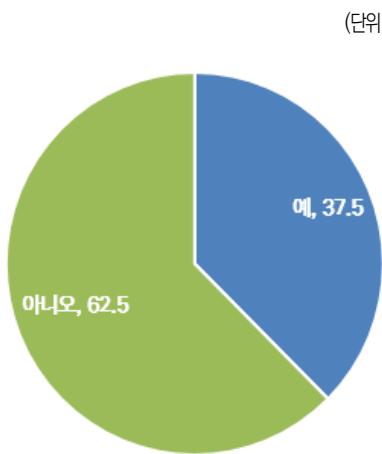


[그림 3-2]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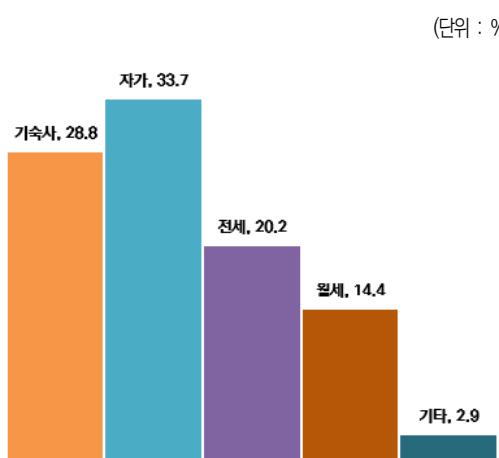


[그림 3-3] 실거주지

-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35명, 33.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숙사(30명, 28.8%), 전세(21명, 20.2%), 월세(15명, 14.4%)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그림 3-5] 관외 근로자 실거주 주거 형태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에 따라서 기혼자는 자가(35.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숙사(29.0%)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가구 유형에 따라서 1인 가구는 기숙사(36.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24.0%), 월세(20.0%) 등 순으로, 다인 가구는 자가(39.2%)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3] 관외 근로자 실거주지 주거 형태

(단위 : 명, %)

구분		기숙사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n(명)	30	35	21	15	3
	비율(%)	28.8	33.7	20.2	14.4	2.9
성별	남	31.4	32.6	17.4	16.3	2.3
	여	16.7	38.9	33.3	5.6	5.6
연령	20대	22.2	33.3	33.3	11.1	0.0
	30대	31.1	24.4	22.2	15.6	6.7
	40대	23.7	44.7	21.1	10.5	0.0
	50대 이상	41.7	33.3	0.0	25.0	0.0
혼인상태	기혼	29.0	35.5	24.2	11.3	0.0
	미혼	30.0	30.0	15.0	17.5	7.5
자녀유무	무	31.9	29.8	14.9	17.0	6.4
	유	26.3	36.8	24.6	12.3	0.0
가구유형	1인가구	36.0	16.0	24.0	20.0	4.0
	다인가구	26.6	39.2	19.0	12.7	2.5
계약형태	정규직	30.3	33.7	18.0	14.6	3.4
	비정규직	20.0	33.3	33.3	13.3	0.0

■ 통근 실태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주요 통근 수단은 자가용(83명, 79.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근버스(15명, 14.4%) 등으로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4] 관외 근로자 주요 통근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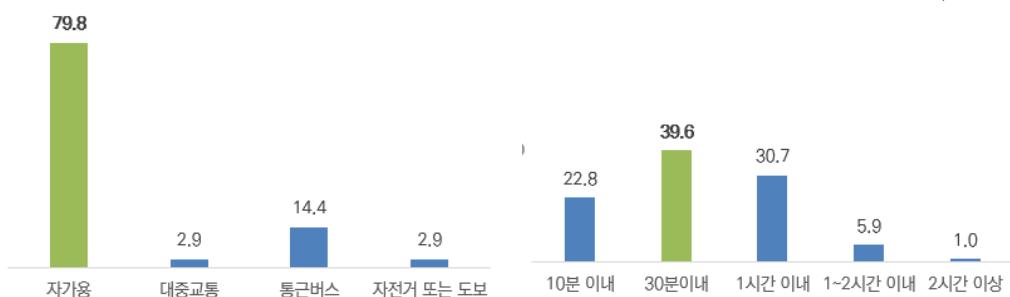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자가용	대중교통	통근버스	자전거 또는 도보
전체	n(명)	83	3	15	3
	비율(%)	79.8	2.9	14.4	2.9
성별	남	80.2	3.5	14.0	2.3
	여	77.8	0.0	16.7	5.6
연령	20대	55.6	0.0	44.4	0.0
	30대	73.3	6.7	15.6	4.4
	40대	89.5	0.0	7.9	2.6
	50대 이상	91.7	0.0	8.3	0.0
혼인상태	기혼	87.1	1.6	9.7	1.6
	미혼	67.5	5.0	22.5	5.0
자녀유무	무	70.2	4.3	21.3	4.3
	유	87.7	1.8	8.8	1.8
가구유형	1인가구	72.0	0.0	28.0	0.0
	다인가구	82.3	3.8	10.1	3.8
계약형태	정규직	84.3	3.4	9.0	3.4
	비정규직	53.3	0.0	46.7	0.0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주요 통근 시간은 30분 이내(40명, 39.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이내(31명, 30.7%), 10분 이내(23명, 22.8%)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단위 : %)



[그림 3-6] 관외 근로자 주요 통근 수단

[그림 3-7] 관외 근로자 주요 통근 시간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보면 혼인상태 별로 모두 30분 이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기 혼 41.0%, 미혼 36.8%), 미혼일 때 10분 이내가 2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인가구 일 때는 30분 이내(66.7%)가 가장 많았고, 다인가구 일 때는 1시간 이내(33.8%)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임

[표 3-5] 관외 근로자 평균 통근 시간

(단위 : 명, %)

구분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전체	n(명)	23	40	31	6	1
	비율(%)	22.8	39.6	30.7	5.9	1.0
성별	남	25.0	40.5	28.6	4.8	1.2
	여	11.8	35.3	41.2	11.8	0.0
연령	20대	0.0	55.6	33.3	11.1	0.0
	30대	26.2	38.1	26.2	9.5	0.0
	40대	21.1	36.8	36.8	2.6	2.6
	50대 이상	33.3	41.7	25.0	0.0	0.0
혼인상태	기혼	21.3	41.0	31.1	4.9	1.6
	미혼	26.3	36.8	28.9	7.9	0.0
자녀유무	무	20.0	40.0	28.9	11.1	0.0
	유	25.0	39.3	32.1	1.8	1.8
가구유형	1인가구	8.3	66.7	20.8	4.2	0.0
	다인가구	27.3	31.2	33.8	6.5	1.3
계약형태	정규직	24.1	39.1	29.9	5.7	1.1
	비정규직	14.3	42.9	35.7	7.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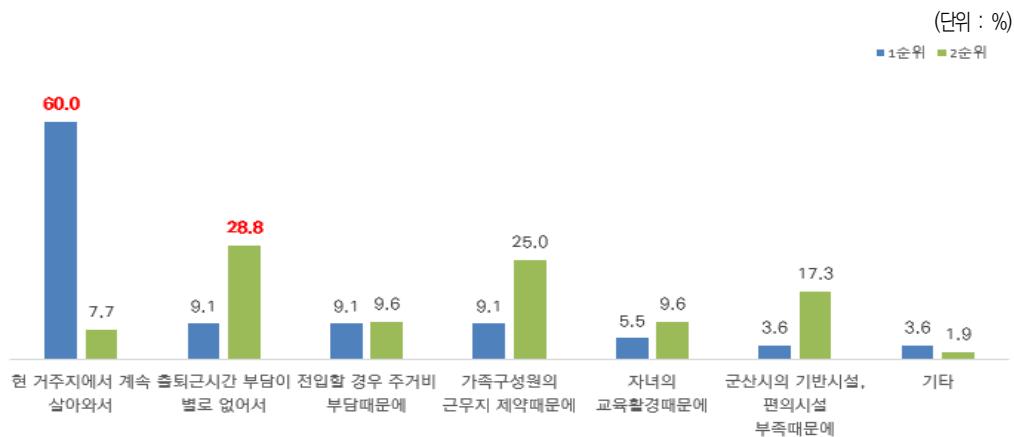
- 군산시 외 타지역에서 통근하고 있는 관외 근로자는 52.9%(55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외 타지역에서 통근하고 있는 관외 근로자의 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 20대 77.8%, 40대 6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유형별로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일 때 타지역에서 통근하고 있는 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6] 군산시 외 타 지역에서 통근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n(명)	55	47
	비율(%)	53.9	46.1
성별	남	54.1	45.9
	여	52.9	47.1
연령	20대	77.8	22.2
	30대	48.8	51.2
	40대	63.2	36.8
	50대 이상	25.0	75.0
혼인상태	기혼	54.1	45.9
	미혼	51.3	48.7
자녀유무	무	54.3	45.7
	유	53.6	46.4
가구유형	1인가구	32.0	68.0
	다인가구	61.0	39.0
계약형태	정규직	55.2	44.8
	비정규직	46.7	53.3

- 군산시 외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1순위)는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아와서’가 60.0%(33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출퇴근 시간 부담이 별로 없어서’, ‘전입할 경우 주거비 부담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근무지제약 때문에’가 각 9.1%(5명)으로 나타남
-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2순위)는 ‘출퇴근 시간 부담이 별로 없어서’가 28.8%(15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 25.0%(13명), ‘군산시 기반,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17.3%(9명) 등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복수의 사업장 때문에’, ‘연애와 결혼 때문에’ 등으로 응답함



[그림 3-8] 관외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1, 2순위)

[표 3-7]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현 거주지에 서 계속 살아 와서	출퇴근 시간 부담이 별로 없어서	전입할 경우 주거비 부담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	자녀의 교육 환경 때문에	군산시 기반, 편의 시설 부족 때문에	기타
전체	n(명)	33	5	5	5	3	2	2
	비율(%)	60.0	9.1	9.1	9.1	5.5	3.6	3.6
성별	남	63.0	6.5	10.9	8.7	6.5	0.0	4.3
	여	44.4	22.2	0.0	11.1	0.0	22.2	0.0
연령	20대	85.7	14.3	0.0	0.0	0.0	0.0	0.0
	30대	57.1	0.0	14.3	14.3	0.0	9.5	4.8
	40대	50.0	16.7	8.3	8.3	12.5	0.0	4.2
	50대 이상	100.0	0.0	0.0	0.0	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60.6	6.1	9.1	12.1	6.1	3.0	3.0
	미혼	60.0	15.0	10.0	0.0	5.0	5.0	5.0
자녀 유무	무	56.0	12.0	8.0	12.0	4.0	4.0	4.0
	유	63.3	6.7	10.0	6.7	6.7	3.3	3.3
가구 유형	1인가구	75.0	0.0	12.5	0.0	0.0	0.0	12.5
	다인가구	57.4	10.6	8.5	10.6	6.4	4.3	2.1
계약 형태	정규직	58.3	10.4	8.3	8.3	6.3	4.2	4.2
	비정규직	71.4	0.0	14.3	14.3	0.0	0.0	0.0

- 전반적으로 관외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서 군산으로 출퇴근하는 이유는 현 거주지의 익숙함과 군산시 인접 지자체에서 통근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8]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유(2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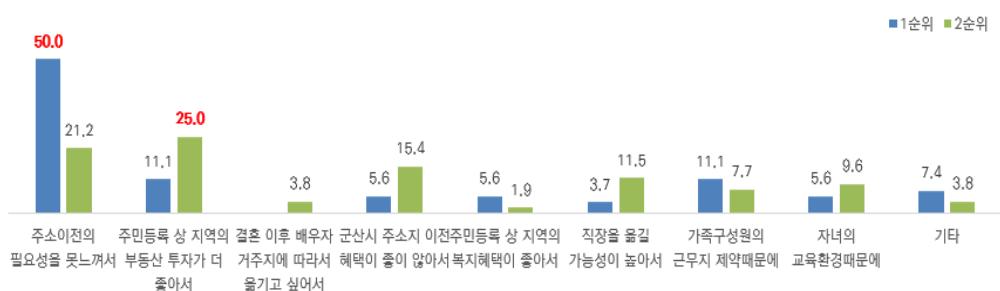
구분		현 거주지에 서 계속 살아 와서	출퇴근 시간 부담이 별로 없어서	전입할 경우 주거비 부담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	자녀의 교육 환경 때문에	군산시 기반,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기타
전체	n(명)	4	15	5	13	5	9	1
	비율(%)	7.7	28.8	9.6	25.0	9.6	17.3	1.9
성별	남	7.0	30.2	9.3	25.6	9.3	16.3	2.3
	여	11.1	22.2	11.1	22.2	11.1	22.2	0.0
연령	20대	0.0	28.6	28.6	28.6	0.0	14.3	0.0
	30대	5.0	25.0	10.0	30.0	5.0	20.0	5.0
	40대	13.6	31.8	0.0	18.2	18.2	18.2	0.0
	50대 이상	0.0	33.3	33.3	33.3	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9.7	22.6	12.9	19.4	16.1	19.4	
	미혼	5.3	42.1	5.3	31.6	0.0	15.8	
자녀 유무	무	4.2	37.5	4.2	25.0	0.0	25.0	4.2
	유	10.7	21.4	14.3	25.0	17.9	10.7	0.0
가구 유형	1인가구	0.0	57.1	0.0	28.6	0.0	14.3	0.0
	다인가구	8.9	24.4	11.1	24.4	11.1	17.8	2.2
계약 형태	정규직	8.9	28.9	8.9	26.7	11.1	13.3	2.2
	비정규직	0.0	28.6	14.3	14.3	0.0	42.9	0.0

- 군산시 관외 근로자는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기도 하지만 군산시 내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타지역에 두고 있는 관외 근로자도 존재하고 있어, 군산시에 살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음
- 군산시에 살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는 '주소 이전 필요성을 못느껴서' 가 50.0%(27명)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와 '가족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가 각 11.1%(6명)로 나타남

[표 3-9]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소 이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주민 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	군산시 주소지 이전 혜택이 좋지 않아서	주민 등록 지역의 복지혜택이 좋아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서	가족 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	자녀의 교육 환경 때문에	기타
전체	n(명)	27	6	3	3	2	6	3	4
	비율(%)	50.0	11.1	5.6	5.6	3.7	11.1	5.6	7.4
성별	남	47.8	13.0	6.5	6.5	0.0	13.0	4.3	8.7
	여	62.5	0.0	0.0	0.0	25.0	0.0	12.5	0.0
연령	20대	33.3	33.3	0.0	0.0	33.3	0.0	0.0	0.0
	30대	56.0	12.0	8.0	4.0	4.0	4.0	0.0	12.0
	40대	44.4	11.1	5.6	5.6	0.0	16.7	16.7	0.0
	50대 이상	50.0	0.0	0.0	12.5	0.0	25.0	0.0	12.5
혼인 상태	기혼	48.5	6.1	6.1	6.1	3.0	18.2	9.1	3.0
	미혼	52.6	21.1	0.0	5.3	5.3	0.0	0.0	15.8
자녀 유무	무	54.5	18.2	4.5	4.5	4.5	0.0	0.0	13.6
	유	46.9	6.3	6.3	6.3	3.1	18.8	9.4	3.1
가구 유형	1인가구	60.0	13.3	0.0	13.3	0.0	0.0	0.0	13.3
	다인가구	46.2	10.3	7.7	2.6	5.1	15.4	7.7	5.1
계약 형태	정규직	43.5	13.0	6.5	6.5	4.3	13.0	6.5	6.5
	비정규직	87.5	0.0	0.0	0.0	0.0	0.0	0.0	12.5



[그림 3-9] 관외 근로자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관외 근로자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2순위)는 ‘주민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가 25.0%(13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소이전 필요성을 못 느껴서’ 21.2%(11명) 등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외국인이 거의 점령)’, ‘전에 살던 사람이 퇴거를 하지 않아서’, ‘건설회사 특성상 지방발령 때문에’ 등으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례들도 나타남

[표 3-10]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2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소 이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주민 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	결혼 이후 배우자 거주지에 따라 옮기고 싶어서	군산시 주소지 이전 혜택이 좋지 않아서	주민 등록 지역의 복지혜택이 좋아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서	가족 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	자녀의 교육 환경 때문에	기타
전체	n(명)	11	13	2	8	1	6	4	5	2
	비율(%)	21.2	25.0	3.8	15.4	1.9	11.5	7.7	9.6	3.8
성별	남	18.6	25.6	4.7	14.0	0.0	11.6	9.3	11.6	4.7
	여	33.3	22.2	0.0	22.2	11.1	11.1	0.0	0.0	0.0
연령	20대	0.0	0.0	0.0	66.7	0.0	33.3	0.0	0.0	0.0
	30대	23.8	42.9	0.0	14.3	0.0	4.8	9.5	0.0	4.8
	40대	30.0	15.0	10.0	5.0	0.0	10.0	5.0	20.0	5.0
	50대 이상	0.0	12.5	0.0	25.0	12.5	25.0	12.5	12.5	0.0
혼인 상태	기혼	17.6	26.5	5.9	8.8	2.9	11.8	8.8	14.7	2.9
	미혼	23.5	23.5	0.0	29.4	0.0	11.8	5.9	0.0	5.9
자녀 유무	무	30.0	25.0	0.0	25.0	0.0	10.0	5.0	0.0	5.0
	유	15.6	25.0	6.3	9.4	3.1	12.5	9.4	15.6	3.1
가구 유형	1인가구	33.3	26.7	0.0	6.7	6.7	26.7	0.0	0.0	0.0
	다인가구	16.2	24.3	5.4	18.9	0.0	5.4	10.8	13.5	5.4
계약 형태	정규직	25.0	25.0	4.5	18.2	0.0	6.8	6.8	11.4	2.3
	비정규직	0.0	25.0	0.0	0.0	12.5	37.5	12.5	0.0	12.5

2) 산업단지 거주 환경

■ 산업단지 정주시간

- 관외 근로자의 산단 정주시간은 근로 시간에만 정주한다는 응답이 70.9%(7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야간 및 주말에도 정주 13.6%(14명) 등으로 대부분 근로 시간에만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관외 근로자의 산단 정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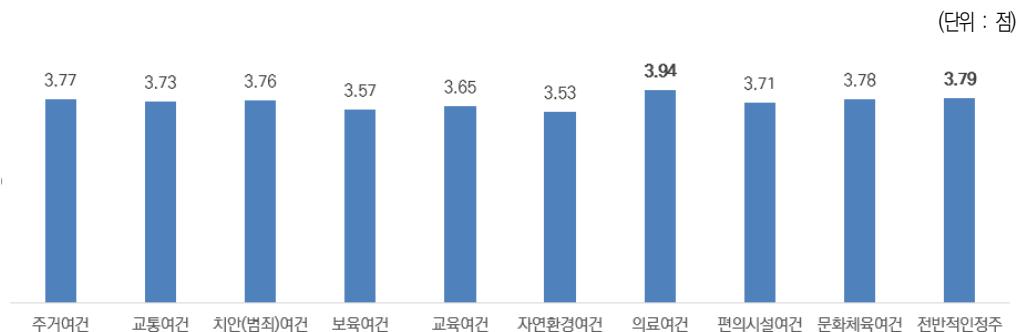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근로시간에만 정주	야간에도 문화, 체육, 회식 등을 위해 정주	주말에 정주	주야간 및 주말에도 정주
전체	n(명)	73	12	4	14
	비율(%)	70.9	11.7	3.9	13.6
성별	남	67.1	12.9	4.7	15.3
	여	88.9	5.6	0.0	5.6
연령	20대	88.9	0.0	0.0	11.1
	30대	73.3	6.7	6.7	13.3
	40대	62.2	21.6	2.7	13.5
	50대 이상	75.0	8.3	0.0	16.7
혼인 상태	기혼	68.9	13.1	3.3	14.8
자녀 유무	미혼	75.0	7.5	5.0	12.5
가구 유형	무	76.6	6.4	6.4	10.6
	유	66.1	16.1	1.8	16.1
계약 형태	1인가구	64.0	20.0	4.0	12.0
	다인가구	73.1	9.0	3.8	14.1
정규직	정규직	69.3	12.5	4.5	13.6
	비정규직	80.0	6.7	0.0	13.3

■ 산업단지 여건 개선

- 관외 근로자가 인식하는 산업단지 여건 개선 영역에서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은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높게 나타남

- 영역별로 보면 의료여건(3.94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체육여건(3.78점), 주거여건(3.77점), 치안(범죄)여건(3.76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0]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의 주거 여건 개선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전체 62.8%로 나타남

[표 3-12]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주거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5	6	27	33	31	62.8
	비율(%)	4.9	5.9	26.5	32.4	30.4	
성별	남	5.9	7.1	25.9	31.8	29.4	61.2
	여	0.0	0.0	29.4	35.3	35.3	70.6
연령	20대	11.1	11.1	33.3	22.2	22.2	44.4
	30대	2.3	7.0	25.6	32.6	32.6	65.2
	40대	7.9	2.6	26.3	31.6	31.6	63.2
	50대 이상	0.0	8.3	25.0	41.7	25.0	66.7
혼인 상태	기혼	4.9	4.9	27.9	37.7	24.6	62.3
	미혼	5.1	7.7	25.6	23.1	38.5	61.6
자녀 유무	무	6.7	6.7	28.9	22.2	35.6	57.8
	유	3.5	5.3	24.6	40.4	26.3	66.7
가구 유형	1인가구	12.5	12.5	25.0	33.3	16.7	50
	다인가구	2.6	3.8	26.9	32.1	34.6	66.7
계약 형태	정규직	5.7	5.7	26.1	27.3	35.2	62.5
	비정규직	0.0	7.1	28.6	64.3	0.0	64.3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산업단지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해 연령별로 20대(44.4%)는 주거 여건 개선 필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으나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관외 근로자 일 때(66.7%), 가구유형별로는 다인가구(66.7%)일 때 산업단지 주거 여건 개선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교통 여건 개선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56.3%로 나타남
- 관외 근로자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여성(72.2%)일 때, 연령별로 50대 이상(75.0%)일 때 상대적으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관외 근로자의 가구유형에 따라서 다인가구(58.2%)일 때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표 3-13]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교통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4	7	34	26	32	56.3
	비율(%)	3.9	6.8	33.0	25.2	31.1	
성별	남	4.7	8.2	34.1	23.5	29.4	52.9
	여	0.0	0.0	27.8	33.3	38.9	72.2
연령	20대	11.1	11.1	22.2	33.3	22.2	55.5
	30대	2.3	4.5	38.6	22.7	31.8	54.5
	40대	5.3	10.5	31.6	23.7	28.9	52.6
	50대 이상	0.0	0.0	25.0	33.3	41.7	75
혼인 상태	기혼	3.2	4.8	37.1	24.2	30.6	54.8
	미혼	5.1	10.3	28.2	25.6	30.8	56.4
자녀 유무	무	6.5	8.7	30.4	21.7	32.6	54.3
	유	1.8	5.3	35.1	28.1	29.8	57.9
가구 유형	1인가구	12.5	8.3	29.2	20.8	29.2	50
	다인가구	1.3	6.3	34.2	26.6	31.6	58.2
계약 형태	정규직	4.5	8.0	28.4	25.0	34.1	59.1
	비정규직	0.0	0.0	60.0	26.7	13.3	40

- 군산시 산업단지 치안(범죄)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58.3%로, 보통 32.0%, 불필요 9.8%로 나타남
- 관외 근로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여성일 때(77.8%), 가구유형별로 다인가구일 때(62.0%), 계약형태별로 정규직일 때(61.3%) 상대적으로 치안(범죄)여건 개선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혼인상태가 미혼일 때(61.5%) 상대적으로 치안(범죄)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표 3-14]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치안(범죄)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5	5	33	27	33	58.3
	비율(%)	4.9	4.9	32.0	26.2	32.0	
성별	남	5.9	5.9	34.1	25.9	28.2	54.1
	여	0.0	0.0	22.2	27.8	50.0	77.8
연령	20대	11.1	0.0	33.3	11.1	44.4	55.5
	30대	4.5	6.8	31.8	20.5	36.4	56.9
	40대	5.3	5.3	28.9	31.6	28.9	60.5
	50대 이상	0.0	0.0	41.7	41.7	16.7	58.4
혼인 상태	기혼	4.8	3.2	37.1	29.0	25.8	54.8
	미혼	5.1	7.7	25.6	17.9	43.6	61.5
자녀 유무	무	6.5	6.5	28.3	17.4	41.3	58.7
	유	3.5	3.5	35.1	33.3	24.6	57.9
가구 유형	1인가구	12.5	8.3	33.3	12.5	33.3	45.8
	다인가구	2.5	3.8	31.6	30.4	31.6	62.0
계약 형태	정규직	5.7	5.7	27.3	26.1	35.2	61.3
	비정규직	0.0	0.0	60.0	26.7	13.3	40.0

- 군산시 산업단지의 보육(어린이집 등)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55.3%, 보통 30.1%로 상대적으로 다른 여건보다 개선 필요도가 낮게 나타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일 때(72.2%), 혼인상태가 기혼일 때(61.3%), 자녀가 있을 때(64.9%) 상대적으로 보육(어린이집 등) 여건 개선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표 3-15]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보육(어린이집 등)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3	12	31	37	20	55.3
	비율(%)	2.9	11.7	30.1	35.9	19.4	
성별	남	3.5	14.1	30.6	32.9	18.8	51.7
	여	0.0	0.0	27.8	50.0	22.2	72.2
연령	20대	0.0	11.1	44.4	44.4	0.0	44.4
	30대	4.5	13.6	25.0	38.6	18.2	56.8
	40대	2.6	10.5	28.9	31.6	26.3	57.9
	50대 이상	0.0	8.3	41.7	33.3	16.7	50.0
혼인 상태	기혼	3.2	6.5	29.0	37.1	24.2	61.3
	미혼	2.6	20.5	33.3	30.8	12.8	43.6
자녀 유무	무	2.2	17.4	37.0	32.6	10.9	43.5
	유	3.5	7.0	24.6	38.6	26.3	64.9
가구 유형	1인가구	4.2	25.0	29.2	33.3	8.3	41.6
	다인가구	2.5	7.6	30.4	36.7	22.8	59.5
계약 형태	정규직	3.4	13.6	28.4	31.8	22.7	54.5
	비정규직	0.0	0.0	40.0	60.0	0.0	60.0

- 군산시 산업단지 주변 교육(학교 등) 여건 개선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58.8%, 보통 28.4%로 상대적으로 다른 여건 개선 필요도보다 높지 않은 편임
- 응답자 특성별로 혼인상태별로 기혼일 때(65.6%), 자녀유무에 따라서 자녀가 있을 때(66.1%), 가구유형별로 다인가구일 때(60.9%), 계약형태별로 정규직 일 때(60.9%) 상대적으로 교육(학교 등)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관외 근로자의 연령과 결혼 및 자녀 유무를 고려할 때, 가족생활주기 상 아동(0~18세)을 양육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와 보육, 그리고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표 3-16]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교육(학교 등)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2	11	29	39	21	58.8
	비율(%)	2.0	10.8	28.4	38.2	20.6	
성별	남	2.4	13.1	27.4	36.9	20.2	57.1
	여	0.0	0.0	33.3	44.4	22.2	66.6
연령	20대	0.0	22.2	33.3	44.4	0.0	44.4
	30대	2.3	14.0	30.2	34.9	18.6	53.5
	40대	2.6	7.9	23.7	36.8	28.9	65.7
	50대 이상	0.0	0.0	33.3	50.0	16.7	66.7
혼인 상태	기혼	3.3	4.9	26.2	41.0	24.6	65.6
	미혼	0.0	20.5	33.3	30.8	15.4	46.2
자녀 유무	무	2.2	17.4	30.4	37.0	13.0	50.0
	유	1.8	5.4	26.8	39.3	26.8	66.1
가구 유형	1인가구	4.2	29.2	25.0	29.2	12.5	41.7
	다인가구	1.3	5.1	29.5	41.0	23.1	64.1
계약 형태	정규직	2.3	11.5	25.3	36.8	24.1	60.9
	비정규직	0.0	6.7	46.7	46.7	0.0	46.7

- 산업단지 주변 공원 등 자연환경 여건 개선의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50.5%, 보통은 36.9%로 상대적으로 다른 여건에 비해 필요도가 낮게 나타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서 여성일 때(72.3%), 연령별로는 40대 일 때(60.5%) 자연환경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일 때(53.2%), 자녀가 있을 때(54.4%) 상대적으로 공원 등 자연환경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표 3-17]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자연환경(공원 등)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4	9	38	32	20	50.5
	비율(%)	3.9	8.7	36.9	31.1	19.4	
성별	남	4.7	10.6	38.8	25.9	20.0	45.9
	여	0.0	0.0	27.8	55.6	16.7	72.3
연령	20대	0.0	11.1	44.4	44.4	0.0	44.4
	30대	4.5	13.6	38.6	27.3	15.9	43.2
	40대	5.3	5.3	28.9	34.2	26.3	60.5
	50대 이상	0.0	0.0	50.0	25.0	25.0	50.0
혼인 상태	기혼	3.2	6.5	37.1	29.0	24.2	53.2
	미혼	5.1	10.3	38.5	33.3	12.8	46.1
자녀 유무	무	6.5	10.9	37.0	32.6	13.0	45.6
	유	1.8	7.0	36.8	29.8	24.6	54.4
가구 유형	1인가구	12.5	8.3	33.3	33.3	12.5	45.8
	다인가구	1.3	8.9	38.0	30.4	21.5	51.9
계약 형태	정규직	4.5	9.1	36.4	28.4	21.6	50.0
	비정규직	0.0	6.7	40.0	46.7	6.7	53.4

- 군산시 산업단지 주변의 의료 여건 개선의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68.6%, 보통 22.5% 등으로 의료여건 개선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성별에 따라서 여성일 때(83.3%), 혼인상태에 따라서 기혼일 때(73.8%), 자녀가 있을 때(75.0%), 다인가구 일 때(73.1%)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표 3-18]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의료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3	6	23	32	38	68.6
	비율(%)	2.9	5.9	22.5	31.4	37.3	
성별	남	3.6	7.1	23.8	28.6	36.9	65.5
	여	0.0	0.0	16.7	44.4	38.9	83.3
연령	20대	12.5	12.5	50.0	12.5	12.5	25.0
	30대	0.0	9.1	22.7	25.0	43.2	68.2
	40대	5.3	2.6	15.8	42.1	34.2	76.3
	50대 이상	0.0	0.0	25.0	33.3	41.7	75.0
혼인 상태	기혼	1.6	3.3	21.3	36.1	37.7	73.8
	미혼	5.1	10.3	25.6	20.5	38.5	59.0
자녀 유무	무	6.5	8.7	23.9	23.9	37.0	60.9
	유	0.0	3.6	21.4	37.5	37.5	75.0
가구 유형	1인가구	12.5	12.5	20.8	20.8	33.3	54.1
	다인가구	0.0	3.8	23.1	34.6	38.5	73.1
계약 형태	정규직	3.4	6.9	18.4	31.0	40.2	71.2
	비정규직	0.0	0.0	46.7	33.3	20.0	53.3

- 군산시 산업단지 편의시설 여건 개선 필요도는 59.8%, 보통은 32.4%로 나타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는 연령별로 30대의 필요도가 6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혼인상태 별로는 미혼일 때(64.1%), 자녀가 없을 때(63.1%), 가구 유형이 1인가구 (62.5%)일 때 높게 나타남
- 이는 다른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다른 여건에서 기혼이면서 다인가구 일 때 상대적으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한 것과 다른 양상으로 1인 가구, 미혼 등은 편의시설 여건에 대한 필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9]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편의 시설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2	6	33	40	21	59.8
	비율(%)	2.0	5.9	32.4	39.2	20.6	
성별	남	2.4	7.1	32.9	37.6	20.0	57.6
	여	0.0	0.0	29.4	47.1	23.5	70.6
연령	20대	11.1	0.0	44.4	22.2	22.2	44.4
	30대	0.0	4.5	27.3	43.2	25.0	68.2
	40대	2.7	10.8	32.4	37.8	16.2	54.0
	50대 이상	0.0	0.0	41.7	41.7	16.7	58.4
혼인 상태	기혼	0.0	6.6	37.7	39.3	16.4	55.7
	미혼	5.1	5.1	25.6	35.9	28.2	64.1
자녀 유무	무	4.3	4.3	28.3	37.0	26.1	63.1
	유	0.0	7.1	35.7	41.1	16.1	57.2
가구 유형	1인가구	8.3	4.2	25.0	45.8	16.7	62.5
	다인가구	0.0	6.4	34.6	37.2	21.8	59.0
계약 형태	정규직	2.3	6.9	28.7	37.9	24.1	62.0
	비정규직	0.0	0.0	53.3	46.7	0.0	46.7

-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문화체육 여건 개선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61.2%로 높게 나타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혼인상태에 따라서 미혼 일 때(64.1%), 가구유형이 1인 가구 일 때(62.5%), 계약 형태가 정규직(64.8%)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편의시설 여건과 유사하게 문화체육 여건 개선에 대해 기혼이나 다인 가구보다 미혼과 1인 가구일 때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20]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문화체육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2	8	30	34	29	61.2
	비율(%)	1.9	7.8	29.1	33.0	28.2	
성별	남	2.4	7.1	31.8	30.6	28.2	58.8
	여	0.0	11.1	16.7	44.4	27.8	72.2
연령	20대	0.0	0.0	33.3	55.6	11.1	66.7
	30대	0.0	15.9	25.0	34.1	25.0	59.1
	40대	5.3	2.6	31.6	26.3	34.2	60.5
	50대 이상	0.0	0.0	33.3	33.3	33.3	66.6
혼인 상태	기혼	1.6	8.1	32.3	25.8	32.3	58.1
	미혼	2.6	7.7	25.6	43.6	20.5	64.1
자녀 유무	무	4.3	8.7	26.1	39.1	21.7	60.8
	유	0.0	7.0	31.6	28.1	33.3	61.4
가구 유형	1인가구	8.3	4.2	25.0	45.8	16.7	62.5
	다인가구	0.0	8.9	30.4	29.1	31.6	60.7
계약 형태	정규직	2.3	6.8	26.1	33.0	31.8	64.8
	비정규직	0.0	13.3	46.7	33.3	6.7	40.0

-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필요+매우필요)는 64.1%로 높게 나타나, 군산시 산업단지 주변의 정주 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남성(63.5%), 여성(66.7%)로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 필요도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71.1%)의 개선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유형에 따라서 1인 가구(58.3%), 다인가구(65.8%)로 다인가구일 때 군산시 산업단지 주변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표 3-21] 군산시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정도_전반적인 정주 여건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도
전체	n(명)	3	6	28	39	27	64.1
	비율(%)	2.9	5.8	27.2	37.9	26.2	
성별	남	3.5	7.1	25.9	35.3	28.2	63.5
	여	0.0	0.0	33.3	50.0	16.7	66.7
연령	20대	0.0	11.1	33.3	55.6	0.0	55.6
	30대	2.3	4.5	31.8	31.8	29.5	61.3
	40대	5.3	7.9	15.8	39.5	31.6	71.1
	50대 이상	0.0	0.0	41.7	41.7	16.7	58.4
혼인 상태	기혼	3.2	4.8	27.4	37.1	27.4	64.5
	미혼	2.6	7.7	28.2	38.5	23.1	61.6
자녀 유무	무	4.3	6.5	28.3	39.1	21.7	60.8
	유	1.8	5.3	26.3	36.8	29.8	66.6
가구 유형	1인가구	8.3	8.3	25.0	37.5	20.8	58.3
	다인가구	1.3	5.1	27.8	38.0	27.8	65.8
계약 형태	정규직	3.4	6.8	21.6	38.6	29.5	68.1
	비정규직	0.0	0.0	60.0	33.3	6.7	40.0

3) 전입 의사 및 정책 요구

■ 전입 의사 및 이유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에 대해 전혀없음 24.0%, 별로 없음 26.0%, 조금있음 41.3%, 매우 있음 8.7%로 전입의사 없음 50%, 있음 50%로 나타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전입 의사가 높은 집단은 남성(52.3%),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50%), 가구유형별로는 다인가구(53.1%)일 때, 계약형태가 정규직(51.7%)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특성에 따른 전입 의사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표 3-22]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n(명)	25	27	43	9	50	50
	비율(%)	24.0	26.0	41.3	8.7		
성별	남	24.4	23.3	44.2	8.1	47.7	52.3
	여	22.2	38.9	27.8	11.1	61.1	38.9
연령	20대	33.3	33.3	33.3	0.0	66.6	33.3
	30대	22.2	22.2	44.4	11.1	44.4	55.5
	40대	21.1	28.9	42.1	7.9	50	50
	50대 이상	33.3	25.0	33.3	8.3	58.3	41.6
혼인 상태	기혼	22.6	29.0	41.9	6.5	51.6	48.4
	미혼	27.5	22.5	37.5	12.5	50	50
자녀 유무	무	25.5	25.5	38.3	10.6	51	48.9
	유	22.8	26.3	43.9	7.0	49.1	50.9
가구 유형	1인가구	32.0	28.0	36.0	4.0	60	40
	다인가구	21.5	25.3	43.0	10.1	46.8	53.1
계약 형태	정규직	22.5	25.8	43.8	7.9	48.3	51.7
	비정규직	33.3	26.7	26.7	13.3	60	40



[그림 3-11] 관외 근로자의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

- 관외 근로자가 향후 군산시에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1순위)는 ‘주거환경 때문에’가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3.5% 등으로 나타남

[표 3-23]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거환경 때문에	주거비 때문에	통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 때문에	문화편의시설부족 때문에	전입시혜택부족 때문에	배우자직장근무지 때문에
전체	n(명)	23	3	12	4	4	2	3
	비율(%)	45.1	5.9	23.5	7.8	7.8	3.9	5.9
성별	남	47.5	7.5	27.5	5.0	5.0	2.5	5.0
	여	36.4	0.0	9.1	18.2	18.2	9.1	9.1
연령	20대	33.3	16.7	33.3	0.0	16.7	0.0	0.0
	30대	42.1	5.3	21.1	0.0	15.8	5.3	10.5
	40대	42.1	5.3	26.3	21.1	0.0	5.3	0.0
	50대 이상	71.4	0.0	14.3	0.0	0.0	0.0	14.3
혼인 상태	기혼	48.4	6.5	19.4	12.9	3.2	3.2	6.5
	미혼	40.0	5.0	30.0	0.0	15.0	5.0	5.0
자녀 유무	무	41.7	4.2	29.2	0.0	12.5	4.2	8.3
	유	48.1	7.4	18.5	14.8	3.7	3.7	3.7
가구 유형	1인가구	73.3	6.7	6.7	0.0	6.7	0.0	6.7
	다인가구	33.3	5.6	30.6	11.1	8.3	5.6	5.6
계약 형태	정규직	44.2	4.7	25.6	9.3	7.0	4.7	4.7
	비정규직	50.0	12.5	12.5	0.0	12.5	0.0	12.5

- 관외 근로자가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2순위)는 ‘교육환경 때문에’(20.4%), ‘문화편의시설부족 때문에’(18.4%)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24]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없는 이유(2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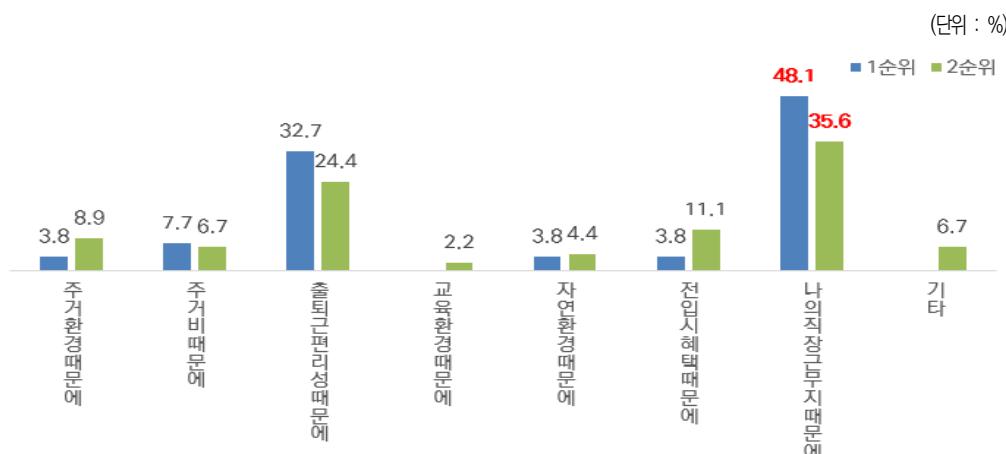
구분		주거 환경 때문에	주거비 때문에	통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 때문에	문화 편의 시설 부족 때문에	전입시 혜택 부족 때문에	배우자 직장 근무지 때문에	기타
전체	n(명)	6	8	6	10	9	4	5	1
	비율(%)	12.2	16.3	12.2	20.4	18.4	8.2	10.2	2.0
성별	남	15.8	21.1	13.2	21.1	15.8	5.3	7.9	0.0
	여	0.0	0.0	9.1	18.2	27.3	18.2	18.2	9.1
연령	20대	0.0	16.7	16.7	16.7	0.0	50.0	0.0	0.0
	30대	11.1	16.7	5.6	27.8	22.2	5.6	5.6	5.6
	40대	22.2	11.1	16.7	11.1	27.8	0.0	11.1	0.0
	50대 이상	0.0	28.6	14.3	28.6	0.0	0.0	28.6	0.0
혼인 상태	기혼	10.0	16.7	13.3	26.7	13.3	0.0	16.7	3.3
	미혼	15.8	15.8	10.5	10.5	26.3	21.1	0.0	0.0
자녀 유무	무	13.0	17.4	8.7	13.0	26.1	17.4	0.0	4.3
	유	11.5	15.4	15.4	26.9	11.5	0.0	19.2	0.0
가구 유형	1인가구	7.7	23.1	23.1	7.7	30.8	0.0	7.7	0.0
	다인가구	13.9	13.9	8.3	25.0	13.9	11.1	11.1	2.8
계약 형태	정규직	14.6	14.6	7.3	24.4	22.0	4.9	12.2	0.0
	비정규직	0.0	25.0	37.5	0.0	0.0	25.0	0.0	12.5

- 관외 근로자가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1순위)는 ‘나의 직장근무지 때문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출퇴근 편리성 때문에’ 32.7% 등 순으로 나타남
- 관외 근로자가 향후 군산시에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2순위)는 ‘나의 직장 근무지 때문에’가 3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퇴근 편리성 때문에’가 24.4%로 높게 나타나, 종합적으로 산단 내에 근무지가 있고 군산시로 전입했을 때 출퇴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군산시로 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5]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거환경 때문에	주거비 때문에	출퇴근 편리성 때문에	자연환경 때문에	전입시혜택 때문에	나의 작장근무지 때문에
전체	n(명)	2	4	17	2	2	25
	비율(%)	3.8	7.7	32.7	3.8	3.8	48.1
성별	남	2.2	6.7	33.3	4.4	4.4	48.9
	여	14.3	14.3	28.6	0.0	0.0	42.9
연령	20대	0.0	0.0	33.3	33.3	0.0	33.3
	30대	4.0	8.0	28.0	0.0	0.0	60.0
	40대	0.0	5.3	47.4	5.3	0.0	42.1
	50대 이상	20.0	20.0	0.0	0.0	40.0	20.0
혼인 상태	기혼	6.7	13.3	36.7	6.7	6.7	30.0
	미혼	0.0	0.0	25.0	0.0	0.0	75.0
자녀 유무	무	0.0	0.0	21.7	0.0	0.0	78.3
	유	6.9	13.8	41.4	6.9	6.9	24.1
가구 유형	1인가구	10.0	0.0	20.0	0.0	0.0	70.0
	다인가구	2.4	9.5	35.7	4.8	4.8	42.9
계약 형태	정규직	2.2	8.7	34.8	4.3	4.3	45.7
	비정규직	16.7	0.0	16.7	0.0	0.0	66.7



[그림 3-12] 관외 근로자의 향후 군산시 전입의사가 있는 이유

- 향후 군산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기타 의견으로는 ‘체육시설만 갖추어 진다면 조용해서 괜찮아 보임’ 등이 제시됨

[표 3-26]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가 있는 이유(2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거 환경 때문에	주거비 때문에	출퇴근 편리성 때문에	교육 환경 때문에	문화 편의 시설 때문에	자연 환경 때문에	나의 직장 근무지 때문에	기타
전체	n(명)	4	3	11	1	2	5	16	3
	비율(%)	8.9	6.7	24.4	2.2	4.4	11.1	35.6	6.7
성별	남	10.3	7.7	28.2	2.6	2.6	2.6	38.5	7.7
	여	0.0	0.0	0.0	0.0	16.7	66.7	16.7	0.0
연령	20대	0.0	0.0	33.3	0.0	0.0	0.0	66.7	0.0
	30대	15.0	5.0	50.0	0.0	5.0	0.0	20.0	5.0
	40대	5.9	5.9	0.0	5.9	5.9	17.6	47.1	11.8
	50대 이상	0.0	20.0	0.0	0.0	0.0	40.0	40.0	0.0
혼인 상태	기혼	4.0	8.0	12.0	4.0	4.0	12.0	48.0	8.0
	미혼	16.7	5.6	38.9	0.0	5.6	11.1	16.7	5.6
자녀 유무	무	14.3	4.8	47.6	0.0	4.8	9.5	14.3	4.8
	유	4.2	8.3	4.2	4.2	4.2	12.5	54.2	8.3
가구 유형	1인가구	11.1	0.0	44.4	0.0	0.0	22.2	11.1	11.1
	다인가구	8.3	8.3	19.4	2.8	5.6	8.3	41.7	5.6
계약 형태	정규직	10.3	7.7	17.9	2.6	5.1	10.3	38.5	7.7
	비정규직	0.0	0.0	66.7	0.0	0.0	16.7	16.7	0.0

- 관외 근로자가 군산시로 전입할 때 향후 함께 이전할 사람은 배우자 및 자녀(60.5%)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자(20.9%), 부모님(14.0%)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에 따라서 기혼은 배우자 및 자녀와 전입이 80.8%로 가장 높았고, 미혼은 혼자(46.7%), 부모님과 전입(2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7] 관외 근로자 향후 군산시로 함께 이전할 사람

(단위 : 명, %)

구분		혼자	부모님과	배우자 및 자녀와	기타
전체	n(명)	9	6	26	2
	비율(%)	20.9	14.0	60.5	4.7
성별	남	25.0	5.6	63.9	5.6
	여	0.0	57.1	42.9	0.0
연령	20대	0.0	0.0	0.0	100.0
	30대	40.0	15.0	40.0	5.0
	40대	5.9	17.6	76.5	0.0
	50대 이상	0.0	0.0	100.0	0.0
혼인 상태	기혼	7.7	7.7	80.8	3.8
	미혼	46.7	26.7	20.0	6.7
자녀 유무	무	41.2	23.5	29.4	5.9
	유	7.7	7.7	80.8	3.8
가구 유형	1인가구	42.9	0.0	57.1	0.0
	다인가구	16.7	16.7	61.1	5.6
계약 형태	정규직	17.9	15.4	61.5	5.1
	비정규직	50.0	0.0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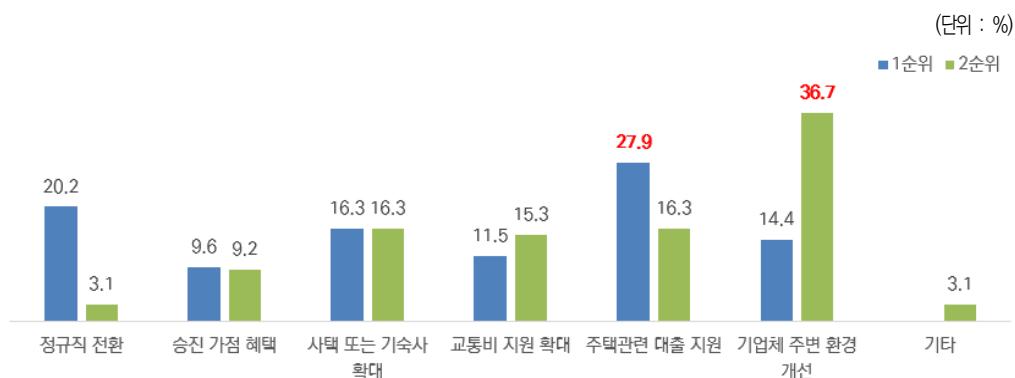
■ 기업의 지원

- 군산시로 관외 근로자가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을 보면 1순위는 ‘주택관련 대출 지원’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 20.2%,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16.3% 등 순으로 나타남
-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2순위)은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이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와 ‘주택관련 대출 지원’이 각 16.3%, ‘교통비 지원 확대’ 15.3% 등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급여 인상’,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주택관련 대출 지원’과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등 주거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표 3-28]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1순위)

(단위 : 명, %)

구분		정규직 전환	승진 가점 혜택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교통비 지원 확대	주택관련 대출 지원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
전체	n(명)	21	10	17	12	29	15
	비율(%)	20.2	9.6	16.3	11.5	27.9	14.4
성별	남	18.6	11.6	17.4	9.3	26.7	16.3
	여	27.8	0.0	11.1	22.2	33.3	5.6
연령	20대	66.7	0.0	22.2	11.1	0.0	0.0
	30대	20.0	13.3	4.4	11.1	37.8	13.3
	40대	13.2	7.9	23.7	10.5	23.7	21.1
	50대 이상	8.3	8.3	33.3	16.7	25.0	8.3
혼인 상태	기혼	14.5	8.1	22.6	11.3	30.6	12.9
	미혼	30.0	12.5	7.5	7.5	25.0	17.5
자녀 유무	무	31.9	10.6	6.4	8.5	25.5	17.0
	유	10.5	8.8	24.6	14.0	29.8	12.3
가구 유형	1인가구	36.0	4.0	16.0	0.0	32.0	12.0
	다인가구	15.2	11.4	16.5	15.2	26.6	15.2
계약 형태	정규직	13.5	11.2	18.0	11.2	29.2	16.9
	비정규직	60.0	0.0	6.7	13.3	20.0	0.0



[그림 3-13] 관외 근로자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

[표 3-29]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2순위)

(단위 : 명, %)

구분		정규직 전환	승진 가점 혜택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교통비 지원 확대	주택관련 대출 지원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	기타
전체	n(명)	3	9	16	15	16	36	3
	비율(%)	3.1	9.2	16.3	15.3	16.3	36.7	3.1
성별	남	2.5	11.1	18.5	14.8	17.3	33.3	2.5
	여	5.9	0.0	5.9	17.6	11.8	52.9	5.9
연령	20대	0.0	11.1	44.4	11.1	11.1	22.2	0.0
	30대	2.5	5.0	12.5	25.0	10.0	42.5	2.5
	40대	2.7	13.5	18.9	2.7	21.6	35.1	5.4
	50대 이상	8.3	8.3	0.0	25.0	25.0	33.3	0.0
혼인 상태	기혼	3.4	11.9	10.2	8.5	18.6	44.1	3.4
	미혼	2.7	5.4	24.3	27.0	10.8	27.0	2.7
자녀 유무	무	0.0	6.8	25.0	22.7	13.6	29.5	2.3
	유	5.6	11.1	9.3	9.3	18.5	42.6	3.7
가구 유형	1인가구	4.2	16.7	12.5	25.0	16.7	25.0	0.0
	다인가구	2.7	6.8	17.6	12.2	16.2	40.5	4.1
계약 형태	정규직	2.4	9.6	14.5	16.9	14.5	38.6	3.6
	비정규직	6.7	6.7	26.7	6.7	26.7	26.7	0.0

■ 군산시 정책 지원

- 관외 근로자의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1순위)은 ‘주택공급 시 우선분양’이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비관련 지원(이자 등)’ 31.7%,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13.5% 등 순으로 분석됨
- 특히 ‘주택공급 시 우선분양’에 대해 관외 근로자가 20대 일 때(55.6%), 미혼일 때(50.0%), 자녀가 없을 때(46.8%), 1인가구 일 때(56.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거안정성이 낮은 연령이 낮은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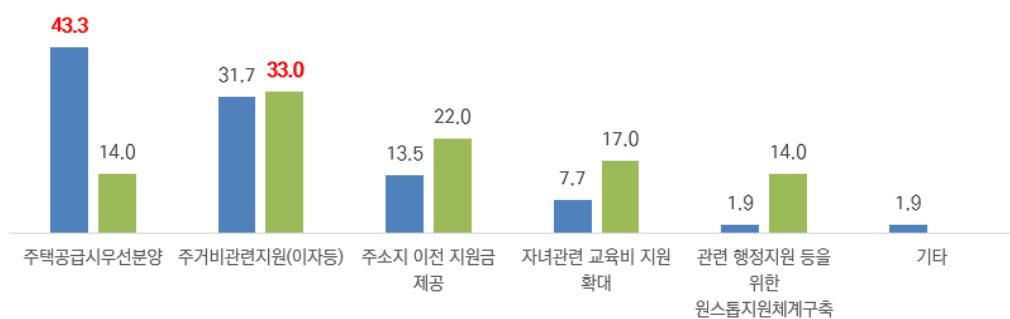
[표 3-30]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택공급시 우선분양	주거비관련 지원 (이자등)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자녀관련 교육비 지원 확대	관련 행정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 체계구축	기타
전체	n(명)	45	33	14	8	2	2
	비율(%)	43.3	31.7	13.5	7.7	1.9	1.9
성별	남	45.3	27.9	14.0	9.3	1.2	2.3
	여	33.3	50.0	11.1	0.0	5.6	0.0
연령	20대	55.6	33.3	11.1	0.0	0.0	0.0
	30대	42.2	33.3	13.3	6.7	2.2	2.2
	40대	47.4	28.9	7.9	10.5	2.6	2.6
	50대 이상	25.0	33.3	33.3	8.3	0.0	0.0
혼인 상태	기혼	38.7	38.7	11.3	6.5	3.2	1.6
	미혼	50.0	22.5	15.0	10.0	0.0	2.5
자녀 유무	무	46.8	25.5	17.0	8.5	0.0	2.1
	유	40.4	36.8	10.5	7.0	3.5	1.8
가구 유형	1인가구	56.0	28.0	12.0	4.0	0.0	0.0
	다인가구	39.2	32.9	13.9	8.9	2.5	2.5
계약 형태	정규직	43.8	30.3	13.5	7.9	2.2	2.2
	비정규직	40.0	40.0	13.3	6.7	0.0	0.0

(단위 : %)

■ 1순위 ■ 2순위



[그림 3-14] 관외 근로자 주소지 이전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2순위)은 ‘주거비관련 지원(이자 등)’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이 22.0% 등 순으로 나타남
-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주변 상권’, ‘체육문화시설’ 등으로 나타남

[표 3-31]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2순위)

(단위 : 명, %)

구분		주택공급 시우선분양	주거비관련 지원 (이자등)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자녀관련 교육비 지원 확대	관련 행정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 체계구축
전체	n(명)	14	33	22	17	14
	비율(%)	14.0	33.0	22.0	17.0	14.0
성별	남	14.5	33.7	21.7	15.7	14.5
	여	11.8	29.4	23.5	23.5	11.8
연령	20대	0.0	33.3	33.3	11.1	22.2
	30대	16.7	38.1	19.0	14.3	11.9
	40대	10.8	29.7	21.6	24.3	13.5
	50대 이상	25.0	25.0	25.0	8.3	16.7
혼인 상태	기혼	16.9	32.2	16.9	22.0	11.9
	미혼	10.3	33.3	28.2	10.3	17.9
자녀 유무	무	10.9	34.8	23.9	13.0	17.4
	유	16.7	31.5	20.4	20.4	11.1
가구 유형	1인가구	8.0	32.0	20.0	16.0	24.0
	다인가구	16.0	33.3	22.7	17.3	10.7
계약 형태	정규직	14.1	31.8	24.7	18.8	10.6
	비정규직	13.3	40.0	6.7	6.7	33.3

■ 군산시 산단 외국인 근로자 지원

-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1순위)은 ‘한국어교육지원’이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 지원’과 ‘외국인력 대상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체계화’가 각 16.5%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32]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1순위)

(단위 : 명, %)

구분		건강관리 지원	한국어 교육지원	외국인력 대상산업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체계화	공공 기숙사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고용과 일자리 연계 및 체류 관련 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체육 지원 제공	문화복지 센터, 카페, 공원조성 등을 통한 편의시설 확대
전체	n(명)	17	34	17	13	12	5	5
	비율(%)	16.5	33.0	16.5	12.6	11.7	4.9	4.9
성별	남	15.3	32.9	18.8	10.6	10.6	5.9	5.9
	여	22.2	33.3	5.6	22.2	16.7	0.0	0.0
연령	20대	22.2	33.3	33.3	11.1	0.0	0.0	0.0
	30대	15.6	37.8	22.2	8.9	8.9	2.2	4.4
	40대	13.5	29.7	5.4	18.9	16.2	8.1	8.1
	50대 이상	25.0	25.0	16.7	8.3	16.7	8.3	0.0
혼인 상태	기혼	19.7	34.4	11.5	16.4	11.5	3.3	3.3
	미혼	12.5	30.0	25.0	7.5	10.0	7.5	7.5
자녀 유무	무	17.0	31.9	21.3	6.4	10.6	8.5	4.3
	유	16.1	33.9	12.5	17.9	12.5	1.8	5.4
가구 유형	1인가구	20.0	16.0	32.0	8.0	8.0	16.0	0.0
	다인가구	15.4	38.5	11.5	14.1	12.8	1.3	6.4
계약 형태	정규직	11.4	34.1	18.2	11.4	13.6	5.7	5.7
	비정규직	46.7	26.7	6.7	20.0	0.0	0.0	0.0

-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2순위)은 ‘외국 인력 대상 산업안전교육강화 및 지원 체계화’가 2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지원’과 ‘공공기숙사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각 19.6%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군산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건강관리 지원과 공공기숙사 도입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표 3-33]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2순위)

(단위 : 명, %)

구분		건강 관리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 력대상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체계화	공공 기숙사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고용과 일자리 연계 및 체류 관련 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체육 지원 제공	문화복지센터, 카페, 공원조성 등을 통한 편의시설 확대	기타
전체	n(명)	6	20	22	20	14	9	9	2
	비율(%)	5.9	19.6	21.6	19.6	13.7	8.8	8.8	2.0
성별	남	4.7	21.2	18.8	21.2	12.9	9.4	9.4	2.4
	여	11.8	11.8	35.3	11.8	17.6	5.9	5.9	0.0
연령	20대	11.8	11.8	35.3	11.8	17.6	5.9	5.9	0.0
	30대	9.1	25.0	22.7	18.2	13.6	4.5	4.5	2.3
	40대	2.7	10.8	13.5	16.2	18.9	16.2	18.9	2.7
	50대 이상	8.3	25.0	25.0	25.0	8.3	8.3	0.0	0.0
혼인 상태	기혼	6.7	16.7	21.7	20.0	15.0	10.0	8.3	1.7
	미혼	5.0	25.0	22.5	20.0	12.5	5.0	7.5	2.5
자녀 유무	무	4.3	25.5	25.5	17.0	10.6	6.4	8.5	2.1
	유	7.3	14.5	18.2	21.8	16.4	10.9	9.1	1.8
가구 유형	1인가구	0.0	24.0	24.0	8.0	16.0	12.0	12.0	4.0
	다인가구	7.8	18.2	20.8	23.4	13.0	7.8	7.8	1.3
계약 형태	정규직	6.9	16.1	19.5	20.7	16.1	9.2	10.3	1.1
	비정규직	0.0	40.0	33.3	13.3	0.0	6.7	0.0	6.7

2. 산단 관외 근로자 FGI 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 과정

-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과제 발굴을 위한 FGI를 실시하고자 군산시의 협조를 얻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2024.10.7.~10.18. 12일 간 군산시 산단기업에 근로하며,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함
-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7명이 모집되었으나 실제 인터뷰 일정을 논의하는 중에 시간이 맞지 않은 관외 근로자 9명을 제외한 8명만 FGI에 참여하여 군산 산업단지 기업 중 군산시와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OO 기업의 협조를 얻어 7명의 관외근로자를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총 1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1~3차 FGI는 군산 산단 관외 근로자가 참석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주말과 야간 시간에 2~3명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고, 4차 FGI는 기업 회의실로 방문하여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단계	내용	세부내용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자문· FGI질문지 구성· 참여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내용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1차 참여자 모집('24.10.7.~'24.10.18.)· 2차 참여자 모집('24.11.8.~'24.11.15.)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FGI 실시 (24.11.2.~11.21.)- 1차(24.11.2.(토), 3명)- 2차(24.11.6.(수), 2명)- 3차(24.11.7.(목), 3명)- 4차(24.11.21.(목), 7명)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어록 작성 및 분석(24.11.25.~24.12.13.)

[그림 3-15]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FGI 조사 절차

- 인터뷰는 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 등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조사내용

- 군산 산단 관외 근로자 FGI 내용은 기본 정보, 근무형태, 관외 근무 사유와 주소 이전 요인, 정책제언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함
- 기본정보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실거주지와 현재 주소지, 기업유형과 근로형태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근무형태 영역에서는 기업과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출퇴근 방법, 관외 근무의 장단점, 주중과 주말의 군산에서의 체류시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함
- 관외 근무 사유와 주소 이전 요인 영역에서는 관외 근무 이유와 함께 근로안정성, 주택지원 등 주소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함
- 마지막으로 정책제언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외 근무자 정주(주소 이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개선이 필요한 정주 환경에 대한 내용을 질문으로 개발함

[표 3-34] 군산 산단 관외 근로자 면접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여부 및 자녀수 · 실거주지, 현재 주소지 · 기업유형, 근로형태
근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직무에 대한 소개 · 출퇴근 방법 · 관외 근무의 장단점 · 주중과 주말의 체류시간
관외 근무 사유와 주소 이전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외 근무 이유 · 주소 이전 요인 : 근로안정성, 주택지원, 특성화 중·고, 국제학교,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개원 등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산단 관외 근무자 정주(주소 이전)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등

■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은 남성(13명)으로 산업단지의 특성상 성별을 균등하게 모집하기 어려웠음
- 이들의 연령은 20대 5명, 30대 4명, 40대 6명으로 기혼은 7명, 미혼은 8명으로 성별을 제외한 기본적인 특성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특징적으로 미혼 관외 근로자는 대부분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군산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혼 관외 근로자는 전북 도내 타지역(전주, 익산, 완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보다 아웃소싱으로 하청, 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어 인터뷰 대상자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음

[표 3-35]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FGI 대상 일반 정보

구분	성별	연령	현재 거주지	주소지	결혼여부	자녀여부	고용형태
A	남	40세	군산(기숙사)	광명시	미혼	무	정규직
B	남	28세	군산(기숙사)	인천광역시	미혼	무	정규직
C	여	26세	군산(기숙사)	광주광역시	미혼	무	정규직
D	남	28세	군산(기숙사)	천안시	미혼	무	정규직
E	남	32세	군산(월세)	구미시	미혼	무	정규직
F	남	35세	전주시	전주시	기혼	무	정규직
G	남	40세	전주시	전주시	기혼	무	정규직
H	남	41세	전주시	익산시	기혼	유/2명	정규직
I	남	32세	군산(기숙사)	서울시	미혼	무	정규직
J	남	43세	전주시	전주시	기혼	유/2명	정규직
K	남	28세	군산(기숙사)	광주광역시	미혼	무	계약직
L	남	45세	익산시	익산시	기혼	유/2명	정규직
M	남	30세	군산(기숙사)	광양시	미혼	무	정규직
N	남	43세	완주군	완주군	기혼	유/2명	정규직
O	여	29세	익산시	익산시	기혼	무	계약직

나. 조사 결과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 FGI 결과를 분석한 종합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36] 군산시 산단 관외 근로자 사례연구 분석 결과

범주	상위주제	하위주제	세부 내용
산단 근로자 의 관외 근로 이유	군산과 산단의 낮은 생활 매력도	투자 가치가 낮은 군산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낮고, 현 주소지의 아파트 가치가 더 높음
		오식도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부정적 이미지와 범죄, 음주운전 등 치안과 환경 문제 · 오식도동의 병원, 헬스장 등 낙후된 생활 시설
	군산시 생활 인프라 부족	부족한 여가 및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롯O를 외에 쇼핑 시설 부족 · 레저 및 문화시설 부족
		불편한 교통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시내 버스 등 배차간격이 길고 교통정보 부정확 · 군산역이 멀고 KTX가 부족
		괜찮은 의료·교육 여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있는 의료·교육 시설 유치 중요 · 군산의 괜찮은 중·고등학교에 대한 명성도 하락세
	관외 지역 생활의 이점	가족과 사회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 도움을 위해 가족이 있는 전주, 익산으로 이주 · 군산보다 자녀 교육, 여가시설, 인프라가 전주, 익산 지역이 더 많음 · 전주, 익산에서 1시간 정도 거리로 출퇴근 가능
		관외 근로의 다양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에서 다양한 관외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군산시 주소지 이전 시 혜택이 적고, 다양한 혜택이 현재 주소지 혜택이 더 큼
주소지 이전을 위한 요건	좋은 일자리 마련	기업 유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사람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마련
		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감면, 전기료 지원 등 기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유형에 맞는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기혼자 등 주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 모색
		파격적인 대출 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원보다 낮은 이자율(1~2%) 지원 등 주택이자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쇼핑 및 여가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코스O코 등 대형 유통 시설 확충
		가족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산부인과, 조리원, 소아과 등 필요 · 군산 내 가족중심의 휴식·체험 공간 확충
	산단 지역 환경 인프라 개선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보수, 정확한 교통정보 등 교통관련 인프라 개선
		산단 지역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자전거 미등 지원, 범죄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 · 산단 지역 공원 이용, 복합문화센터 이용 등을 위해 환경 관리 및 확대

1) 산단 근로자의 관외 근로 이유

가) 군산과 산단의 낮은 생활 매력도

■ 투자 가치가 낮은 군산 아파트

-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들은 군산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가치가 현 주소지(서울, 광명, 인천 등)보다 낮고, 군산 내에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도내 지역(전주) 아파트 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점이 없다고 여김
 - “사실 군산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지는 않잖아요. 지금 조촌동 이편한세상 그런 데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사실 내홍동이나 이런 데 계속 주택들이 생겼는데 지금 미분양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명에 주소지를 두면서 청약을 계속 들고 있고...”(A, 광명시)
 - “누구나 군산으로 오려면 조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된 상태에서 굳이 그 가격 주고 이사를 올 필요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전주나 이런 데서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차로 30분이면 오는데..”(J, 전주시)
 - “서울, 경기권의 분양 조건이 몇 년 이상은 최소 거주를 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I, 서울시)

■ 오식도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산업단지가 위치한 오식도동에 기업의 기숙사들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이 밤에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며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해 오식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오식도에 살면 사실 군산에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수송동 살거든요. 저는 수송동 살고 나가면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내가 일하는 것도 이제 이쪽 산단이고 오식도에 내가 산다...군산에서 전입자 생길까 그런 생각들도...”(A, 광명시)
 - “여기 오식도에 외국인들끼리 되게 무리지어 다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에 가라오케나 노래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 맨날 베트남, 중국인들 무리지어서 들어오거든요.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H, 익산시)
 - “(오식도)여기 안 괜찮아요. 산업단지가 많아 가지고 차량도 좀 그리고 차라리 나운동 쪽이 훨씬 낫죠.”(D, 천안시)

-
- 오식도동 내에는 생활용품 매장(다O소)이 없고, 헬스장도 오래되었고, 병원·약국 등을 믿을 수 없는 등 생활 필수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살기 어렵다고 여김

- “오식도 근처에 헬스장 다니고 싶어서...근데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운동하신다고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B, 인천광역시)
-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이제 마트나 이런 다이소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이럴 텐데 다이소가 없어 가지 고 소룡동 쪽인가 그쪽에 있어 가지고”(C, 광주광역시)
- “익산은 공단하고 좀 가까운 데가 좀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군산(산단)은 너무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O, 익산시)

나) 군산시 생활 인프라 부족

■ 부족한 여가 및 문화시설

- 군산에는 롯O몰 외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쇼핑할만한 시설이 없어 대전으로 나가 게 되고, 선유도 외에 즐길 수 있는 레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군산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인식함
- “새만금에 코스O코나 생기면 난리 날 걸요 아마...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롯O몰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물건 없다고...기왕 나가는 거 대전 가서 코스트코 가고 대전에 있는 아울렛까지 다 한번 들려볼까 이런 느낌으로”(A, 광명시)
 - “차라리 오식도동 넘어서 선유도나 새만금은 가는데 공단에 공원 있다고 시간 내서 오거나 이용은 잘 안 할 것 같고”
 - “전주에도 신도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살다가 군산 가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가...즐길거리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물론 전주도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군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G, 전주시)

■ 불편한 교통 여건

- 오식도동에서 군산 시내로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앱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안내하는 교통정보가 틀릴 때가 많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 “버스도 어플이나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정확성이 너무 안 맞으니까...갑자기 버스 지나가고 있고 30분 뒤에 간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5분 뒤에 나가면 버스 이미 지나간 뒤 ...”(C, 광주광역시)

-
- “아마 수송동이나 이런 데서 택시 타고 오식도동 가자 그러면 잘 안 갈 것 같은데. 갔다가 나오는 나올 때 빈 택시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버스 이런 게 더 안 좋고..”
 - 군산역 위치가 멀고 KTX가 없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시외버스터미널 낙후 등 전반적으로 전북자치도 외 타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분석됨
 - “교통...버스나 기차 같은 것들이 좀 주변 도시랑 잘 이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군산역 자체가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고 산단이랑 뭐 이렇게 기차나 대중교통 이용이...”(E, 구미시)
 - “저는 약간 교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TX 같은 게 이건 좀 크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도...결국 버스 타게 되고...”(H, 익산시)
 - “아무래도 기차 같은 게 없으니까 그거는 좀. 여기서 광주 가는 거는 자차가 더 빨라요. 값은 거의 엇비슷한데 시간은 2배로 걸리다 보니까...버스 타면 2시간 넘게 잡고 거기서 시내버스 같은 거 타려면 그냥 두 배 걸린다고 보면 되고....”(K, 광주광역시)

■ 괜찮은 의료·교육 여건 부족

- 군산에 전북대병원이나 국제학교 등과 같은 의료·교육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괜찮은 시설인가에 따라서 군산시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현재 군산시에 명성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유지도 힘든 상황임
 - “학교가 전통이라든지 지명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송동에 있는 전북외고도 사실 폐교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오고 있거든요....뭐가 들어온다고 해도 전주에 있는 상산고처럼 그 정도급 이면 가능하겠죠. 입학할 때 그 학교의 반을 군산 지역 내 관내 거주자로 채우겠다...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하면 그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A, 광명시)
 -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내가 중병 치료를 할 때는 결국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 가야 되니까 익산에서 KTX 타고 수서에서 내려서 강남에 있는 서울삼성병원을 가든지 아산병원을 가든지 그려겠죠.”(A, 광명시)
 - “(국제학교나 전북대 병원) 이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어떤 병원이 와도 (큰 병에 걸리면) 저도 서울 가서 치료받을 거거든요. 암이나 중요한 진단을....”(C, 광주광역시)
 - “군산 같은 경우는 회현중학교가 군산에 특화된 곳이고 그쪽 동네가 부자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은....엄마들이 전라북도에서는 딱 두 곳을 봐요. 회산중학교하고 회현중학교. 그런데 지금은 회현은 아예 제외하고 화산중학교 골짜기로...”(H, 익산시)

다) 관외 지역 생활의 이점

■ 가족과 사회적 기반

- 기혼 관외 근로자들은 군산에서 거주하다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전주, 익산으로 이사하기도 하였고, 도내 타지역이 군산보다 자녀 교육(학교, 학원 등), 여가시설 등 인프라가 더 잘 되어 있어 현재 거주지를 바꾸기 어려움
 - “와이프 직장이 전주인 것도 있고 가족들도 다 전주에 있고. 군산에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그리고 전 주에 비해서 군산이 작은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F, 전주시)
 - “저는 군산에서 계속 있다가 (애들이) 학교 갈 시점에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 집 옆으로...고향이 전주거든요.”(J, 전주시)
 - “저도 여기 군산에 한 3년 거주하다가 애들 커가면서 이제 교육도 그렇고 애들 봐주실 장모님도 필요하고...”(N, 완주군)
 - “(군산에서) 한 6개월 살고 기숙사 생활하다가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신혼집을 이제 익산에서 마련하면서 익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데 익산에 장모님이 계셔서 ...”(L, 익산시)
- 관외 근로에서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전주, 익산에서 출퇴근할 때 약 1시간 정도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산시와 도내 타지역과 교통 연결성이 높음
 - “전주 군산 도로가 한 번 막히면 사람들이 그려더라고 옆으로 막히면 사고 나면 빠질 곳이 없어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J, 전주시)
 -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2년 정도 출퇴근했거든요. 근데 적응되니까 좀 괜찮은 것도 있고”(F, 전주시)
 - “익산에서도 여기 군산까지 출퇴근하는데 자차로 25분, 30분이면 와요...(익산이) 역도 그리고 KTX 다 가깝고 시내에 있고 대학병원 다 있고 학교도 공원 조성도 이런 것도 잘 돼 있고...공단이 시내랑 좀 가까워요.(O. 익산시)

■ 관외 근로의 다양한 혜택

- 관외 근로를 하면 회사 복지 차원으로 제공되는 기숙자 지원,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이 있고, 일부 군산시보다 현재 주소지에서 제공되는 복지가 더 좋아서 군산시로 주소 이전을 하는 것보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내가 주소지 이전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하면 결국 기숙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내 돈을 써야 돼요.. 지금은 관리비 5만원만 내긴 하는데... 사실상 회사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보면 돼요."(A, 광명시)
 - "저는 회사에서 월세 지원해 주고... 관외 근무를 하니까 주유비를 지원해줘요.."(C, 광주광역시)
 - "기숙사는 있고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공과금 정도만 내면은 살 수 있도록 지원이 다 되고. 지금 저희 외국인들도 좀 있고 현장 분들이 좀 많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E, 구미시)
 - "일단 하지 않은 이유가 원래 살던 광양시가 조금 거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많아요.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코로나 그럴 때는 한 30만 원 50만 원씩..."(M, 광양시)
- 반면 군산시에서는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적고, 주소 이전 시에도 혜택이 거의 없어서 군산시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뚜렷한 장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미혼들은 현장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고 지원금을 바로 준다면 이전할 의사를 밝히기도 함
 - (지금 군산시 주소지 이전하면) 뭐가 있으면 할텐데 없으니까...(익산은 10만원 지원해주는 데) 그런거라도 있었으면...(중략) 구미도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생들 기숙사나 이런 데서 살면서 주소지 이전하면 10만 원 주겠다...(E, 구미시)
 - 10만 원 벌려고 어차피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좀 출장 와서 주소 이전 하면 바로 10만원 주면) 바로바로 하죠.(D, 천안시)
 - (군산시가) 혜택이... 복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둘째를 낳고 이사를 가기는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둘째 낳으면 30만원을 지원 해줬나? 근데 군산은 3만 원 줬나 5만 원 됐나.(N, 완주군)

2) 주소지 이전을 위한 요건

가) 좋은 일자리 마련

■ 기업 유치 필요

-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인프라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좋은 일자리 마련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 "근데 여러 가지 정주 조건 이렇게 있긴 한데 결국은 인구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만든다 치더라도 유지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좋은 일자리..."(O, 익산시)

-
- “오히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데...이 사람도 군산 있고 싶어 했어요. 일자리만 있으면 있고 싶어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군산 있고 싶은데...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고..있는 사람이라도 안 뺏겼으면 좋겠거든요.”(J, 전주시)
 - “기업하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프라는 따라오거든요. 옛날에는 인프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사람 따라 인프라가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O 같은 경우도 삼O공단을 지으면 삼O이 학교 지어주고 쇼핑몰도 다 지어주니까...그런 것처럼 군산도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면 대한민국 법상 학교 들어와야 되고 균린생활지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H, 익산시)

■ 기업 지원 확대

- 세금 감면, 전기료 지원 등 현재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분석됨
 - “(기업을) 지원해서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오히려 기업을 더...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말레이시아로 다 가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나...”(J, 전주시)
 - “저도 그냥 우선 생각나는 거는 뭐 해줄 수 있는 건 세금 혜택이나 좀 지원해서 전기값 싸게 주는 거...”(J, 전주시)
 -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땅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좀 저렴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지금 직장 회사 대표라면 올 마음이 생기는 거지.”(L, 익산시)

나) 주거 안정 지원

■ 유형에 맞는 주거 지원

- 공통적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청약 우선권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청년, 1인 가구, 미혼, 기혼자 등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주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모색이 필요함
 - “가장 중요한 건 청약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리로 용자를 지원해 주는 거..그 두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A, 광명시)
 - “제가 최근에 원룸에서 벗어나서 전세 이런 데 좀 알아보려고 청약 보고 있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군산 거주자를 우선으로 배점을 줘야겠지만...도 외에 있는 사람들 끌어당기려면 특별 전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군산에 근무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전형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넣어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E, 구미시)

-
- “월세나 이건 굉장히 적게...군산 시내에서 25만원 관리비 8만 원에서 한 30만원에서 한 40만원 나가는데...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H, 익산시)
 - “청약에 대한 우선권이나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까...”(C, 광주광역시)

■ 파격적인 대출 이자 지원

- 중앙 정부나 군산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1~2%)지원이 필요하고, 맞벌이 가구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 주택지원에서 이자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요즘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좀 일하면 부부 합산해서 6천 7천은 다 찍을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허들 낮게 해야...”(A, 광명시)
- “군산하면 조촌동 디오션시티예요. 근데 막말로 여기 삼북동 이쪽으로 와서 살 의미가 없잖아요...(중략)...그러면 이런 데를 더 개발을 해서 주택 자금을 저리로 막 이렇게 해준다든가 하면 생각해 볼 사람은 또 있겠죠..무이자면 제일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 군산시에서 이제 무이자까지는 해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실제 도입할 수 있을 정도의 한 수준을 1~2%대”(L, 익산시)
- “좀 파격적인 조건이면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임대주택만큼은 그냥 저렴하게 월세나 이자 정도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G, 전주시)
- “저는 이제 신축이나 이런 데...브랜드 있는 아파트 기준을 했을 때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대부분 다른 정부 정책보다도 저렴해야지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F, 전주시)

다) 생활 인프라 확충

■ 쇼핑 및 여가 시설 확충

- 백화점, 코스O코 등 갈만한 대형 유통 시설 유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즐길거리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군산 쇼핑 시설이 없어요. 지금 군산 시내도 되게 가봤죠. 물론 약한거 같고....”(I, 서울시)
- “대형마트...코스O코나 트레이더스 있으면은 생긴다. 단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좀 사려 많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K, 광주광역시)
- “즐길게 그닥 없는 것 같은데 군산에....새만금을 개발하면 좀 좋을 텐데 그런 걸 안하잖아요. 테마파크 같은...”(L, 익산시)

■ 가족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 미혼같은 경우 결혼을 통해 군산에 정주할 수 있는데 결혼과 자녀 출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산부인과, 조리원, 소아과 등이 군산에 필요하고, 군산 내 가족 중심의 휴식·체험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결혼한 직원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은 좋은 산부인과가 없다. 그리고 좋은 산후조리원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큰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그런 품질이 좋은 작은 병원들 있잖아요. 결혼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소아과 되게 믿음 있는 소아과...그게 더 필요해 보여요”(A, 광명시).
 - “군데 군데 공원 같은 게 오식도에는 있는 것 같은데...안 가죠...대전에 가보면 정부 기업들 막 놓여 있는 곳에 보면 호수 하나 만들었고 산책로 엄청 큰 거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거라도 좀 조성을 해놓으면 그래도 이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E, 구미시)
 - “익산은 어린이 과학원이 있고...전주는 창의체험관. 완주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고...근데 군산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N, 완주군)
 - “공원...여기 군산 사람들 다 서천으로 공원가요...서천은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려서 애들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거죠... 국립생태원인가? 그런데 가는데 여기 군산에는 그런게 없으니까.”(N, 완주군)

라) 산단 지역 환경 인프라 개선

■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리

- 산단 지역 도로 개보수,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타이어 터지는 소리 수시로...”(L, 익산시)
 - “군산 살아보서 아는데 침수...(겨울이면) 이제 폭설도...최근에 공단 출퇴근하는 지인 얘기 들어도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아서...도로 정비 같은 게 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어찌 됐든 시내에서 모든 시외에서 모든 도로는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관리를 좀 더 해주면.”(O, 익산시)

■ 산단 지역 환경 관리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자전거 미등 지원,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산단 지역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
- "(외국인) 자전거 미등이나 헬멧 빛나는 거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해 서…"(C, 광주광역시)
 -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치안이 좀..."(E, 구미시)
 - "저는 군산 와서 물론 인천에도 그런 게 많지만...불법적인 운영을 하는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엄청 안 좋은...암암리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에요. 오식동 보면 파출소 옆에서도 하는데..."(B, 광주광역시)
- 산단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관리, 복합문화센터 이용시간 개선 등 기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확대가 필요함
- "보통 여기 8시까지 하는데 그럼 사람이 엄청 몰려요. 여기가 크면 상관이 없는데 2시간 운동하는데 좁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외국 애들 한 이만한 애들이 막...무서워서 여기서 못하겠고...(복합문화센터) 운영 시간이 너무 약간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여기서 9시부터 한 3시까지 운동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B, 광주광역시)
 - "여기(복합문화센터) 있다가 봤는데 시간이 보니까 8시면 닫고...한 2시간만 더 열어줬으면 하는데"(H, 익산시)
 - "오식도는 진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다 잔디가 이렇게 못 걸어 다닐 정도고 공원도 다 그냥 풀밭이고…"(C, 광주광역시)

3. 요약

가.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거주 실태) 관외 근로자의 실거주지는 군산(52.1%)이 가장 많았고, 익산(21.9%), 전주(14.6%) 등 순, 주거 형태는 자가(33.7%), 기숙사(28.8%), 전세(20.2%), 월세(14.4%) 기숙사나 월세 등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 하지 않은 관외 근로자 비율이 높음
- 군산시에 살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소 이전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주민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가 높게 나타나 군산시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유인 정책 필요성이 제시됨

[표 3-37] 군산 산업단지 및 주변 여건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

영역	불필요도	필요도	불필요도 대비 필요도
전반적 정주 여건	8.7	64.1	7.4
주거	9.8	62.8	6.4
교통	10.7	56.3	5.3
치안(범죄)	9.8	58.2	5.9
보육	14.6	55.3	3.8
교육	12.8	58.8	4.6
자연환경	12.6	50.5	4.0
의료	8.8	68.7	7.8
편의시설	7.9	59.8	7.6
문화체육	9.7	61.2	6.3

- (산단 여건 개선 필요도) 산업단지 및 주변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 불필요도는 8.7%, 필요도는 64.1%로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영역 별로는 의료시설, 편의시설, 주거환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기업의 지원)** 관외 근로자 주소 이전을 위해 기업에게 원하는 지원은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과 ‘주택관련 대출 지원’,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산단 지역의 생활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인프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남
 - **(군산시 정책 지원)** 관외 근로자의 주소지 이전을 위한 군산시의 정책 지원 요구는 ‘주택공급 시 우선 분양’, ‘주거비 관련 지원(이자 등),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등으로 FGI 결과와 유사하게 주택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군산 산단 관외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건강관리 지원’, ‘공공기숙사 도입’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대상자의 요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반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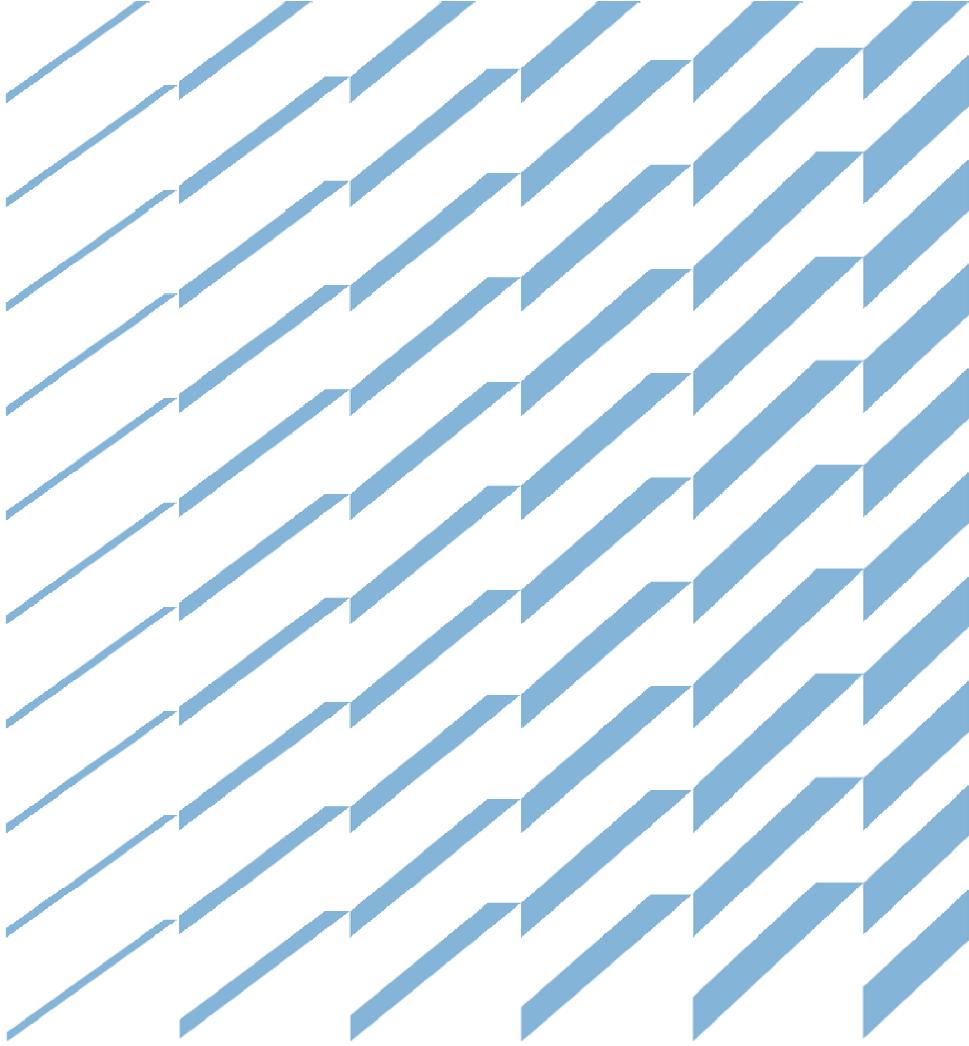
나. FGI 주요 결과 요약

■ 산단 근로자의 관외 근로 이유

- **(군산과 산단의 낮은 생활 매력도)** 관외 근로자의 현재 주소지보다 군산 아파트의 부동산 투자 가치가 낮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음주운전 등 산단 생활권에 대한 치안과 환경 문제, 헬스장 등 생활 필수시설 낙후로 군산 산업단지와 군산시의 생활 매력도가 낮은 편임
- **(군산시 생활 인프라 부족)** 관외 근로자들은 군산시 내에 대형 쇼핑 시설 등 여가 및 문화시설 부족, 시내 대중교통 문제와 KTX 등 교통 여건 불편, 괜찮은 의료·교육시설 부족 등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뚜렷하지 않은 관외 지역 생활의 단점과 뚜렷한 장점)** 전주나 익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외 근로자는 거주지와 군산시가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교, 자녀 양육을 지원해주는 조부모 등 가족생활 기반이 전주, 익산 등에 위치하고 있음. 반면에 군산시 내 생활 인프라 부족, 주소지 이전 혜택 및 자녀 출산 지원금 등 전반적인 혜택 부족 등으로 관외 생활의 단점보다 장점이 뚜렷하여 군산시로의 가족의 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외 근로자의 주소지 이전을 위한 요건

- **(좋은 일자리 마련)**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를 위해 세금 감면 등 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 안정 지원)** 관외 근로자들은 중앙 정부 또는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낮은 이율 지원, 관외 근로자 특별 전형, 청약우선권, 맞벌이 가구 이자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상향 등 주거 지원의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생활 인프라 확충)**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유치 필요성이 나타났고, 미혼 관외 근로자의 군산 정주를 위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도움이 되는 기반(소아과, 조리원 등) 형성, 가족 중심 휴식 및 체험 공간 확충 등을 통해 가족 기반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산단 지역 환경 인프라 개선)**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의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단 지역 도로 개보수,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산단 지역 공원 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산단 치안 문제 해결, 복합문화센터 이용 시간 조정 등 산단 지역 내 인프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제4장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방안

1. 체류인구 정주화 정책 방향
2.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방안



제4장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방안

1. 체류인구 정주화 정책 방향

가.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방향설정

1) 체류시간 연장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의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군산시의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 군산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기 마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에 의하면, 체형관광객 중 특히 1인 체류형 관광객은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에서 일상적 경험 및 지역생활 문화활동을 추구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 체류형 관광객의 관광특성

구분		내용
활동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관광지 방문, 일상생활 경험, 동반인과 일상시간, 지역생산문화활동 (시장, 농작물수확 등)
	주민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일상적 대화 또는 긴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정도,• 동반인이 없는 경우 더 많은 교류.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및 지역주민과 관련한 어려움은 많지 않음.• 준비과정에서 정보부족, 비용문제, 허위/불일치 정보에 대한 어려움 호소.• 현지생활에서 비싼물가, 교통불편, 주민불친절, 즐길거리 부족, 생활기반 부족, 경제활동기회 부족 등 어려움 호소.
개선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요금개선, 대중교통시설확충보안, 신뢰성있는 정보제공, 숙박비등 정부지원, 체험프로그램 확대, 생활기반 개선, 주민태도개선, 치안강화, 경제활동기회 확대 등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연경험, 동반인과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주민과 관계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편.• 전반적 만족도, 지역애착, 해당지역에서 체류형 관광을 다시 할 의지가 높은 편.

자료: 김송이(2019),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분석과 정책적 이슈 도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지역의 생활환경, 문화, 인프라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체류인구가 군산시에 대한 호감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정착 의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 또한, 더 많은 시간을 군산에서 보내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소속감을 느끼고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의 체류시간이 증대하면 군산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통근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군산 내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은 동기가 강해지는 긍정적 효과 발생
 - 이는 군산 내 주택이나 생활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정주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 특히 관외 근무자의 군산시 내 체류시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군산시로의 전입을 촉진하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2) 도시매력도 증대

- 사람들이 단순히 머무르는 곳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하려면, 해당 지역이 주거지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정주는 선택이 아닌 매력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냄
- 도시 매력도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그곳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 체류인구가 군산시가 아닌 인근 지역(예: 전주, 익산 등)으로 이주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군산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해야 함
- 군산의 역사적 유산(근대문화유산), 해양 관광 자원(선유도, 고군산군도), 산업단지와 연계된 일자리 등 군산만의 특성을 매력적으로 개발할 때 체류인구의 도시매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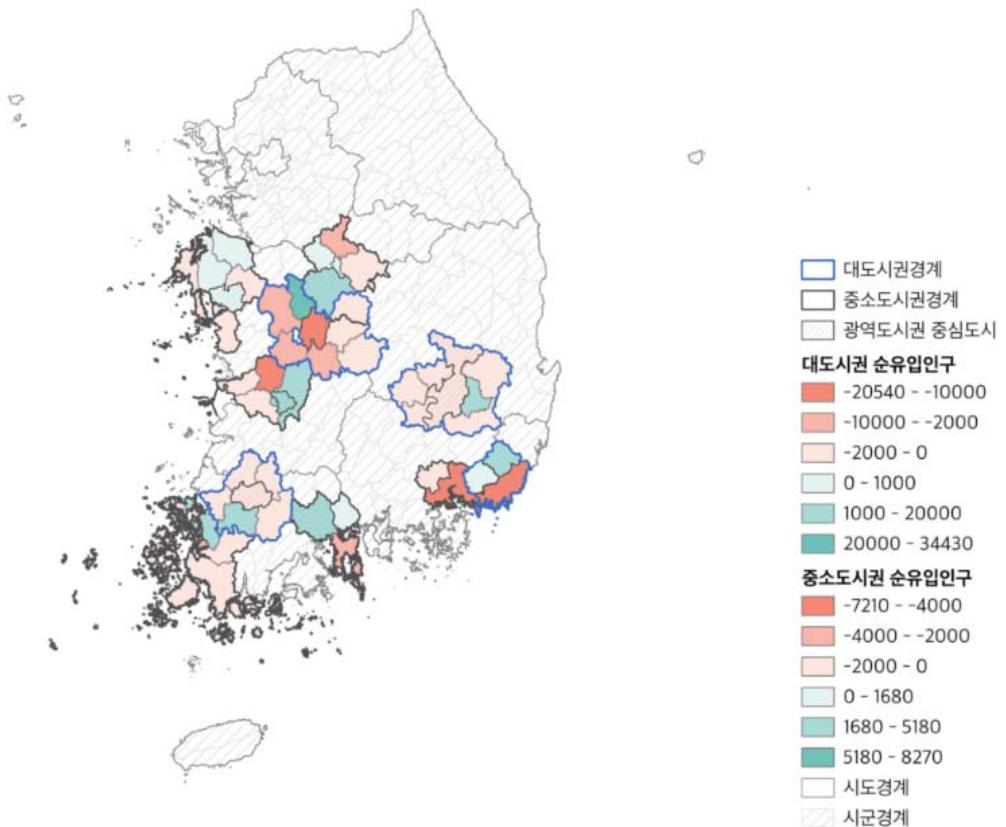
- 국토연구원(2023)에 따르면 관광 방문인구는 뚜렷한 계절적 절정기를 갖는 반면에 일상생활을 위해 이동하는 체류인구는 계절성보다 다소 고르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음

[표 4-2] 관광방문인구, 체류인구, 정주인구의 특성

구분	관광 방문인구	체류인구	정주인구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한 변경 없음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한 변경 없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등록
목적 및 목적지	소비(비보수 활동) 비일상생활권	생산, 교육, 소비(보수, 비보수 활동 포함) 일상생활권, 비일상생활권 포함	거주 일상생활권
기간	비영구적(당일)	비영구적(1박 이상~)	영구적
빈도	'더 자주, 많이, 가볍게' 추구 경향 확대	일회적 또는 반복적인 사건	일회성
계절성	뚜렷한 계절적 절정기 (주말, 공휴일, 휴가철, 학기 중 방학 등)	비일상생활권으로의 이동은 계절성을 지니지만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은 다소 고르게 일어남	일년 내내 다소 고르게 일어남
지역 연계성	약함 (동반자 및 다른 여행자와의 관계에 중점)	약하거나 중간 (지역, 지역주민과 다양한 깊이의 관계 형성 가능)	강함
영향	지역 경제적 기여 중점	지역 경제적 기여 + 사회·문화적, 환경적, 혁신지원 등 다양한 측면으로 지역사회 기여 가능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 재분배, 누적

자료: 국토연구원(2023),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안

- 매력적인 도시는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체류시간을 늘리며, 궁극적으로 정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임
- 매력적인 도시는 정주인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 도시 매력도가 높아지면 체류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의 비수도권 도시의 청년인구 이동 패턴 및 요인분석: 지역의 매력요소를 중심으로(2024)에 의하면, 비수도권에서 청년인구의 이동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관계가 있는데, 지역의 풍부한 문화시설과 공원환경, 신규주택비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
- 도시 매력도는 근로자 중심의 산업 도시 이미지를 넘어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발전을 촉진



[그림 4-1] 비수도권 도시의 청년인구 이동패턴 및 요인분석

자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온라인 아카이브(2024)

- 군산시가 단순히 일하는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 근로자와 가족 모두가 군산시에 정착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

3) 지역정착 지속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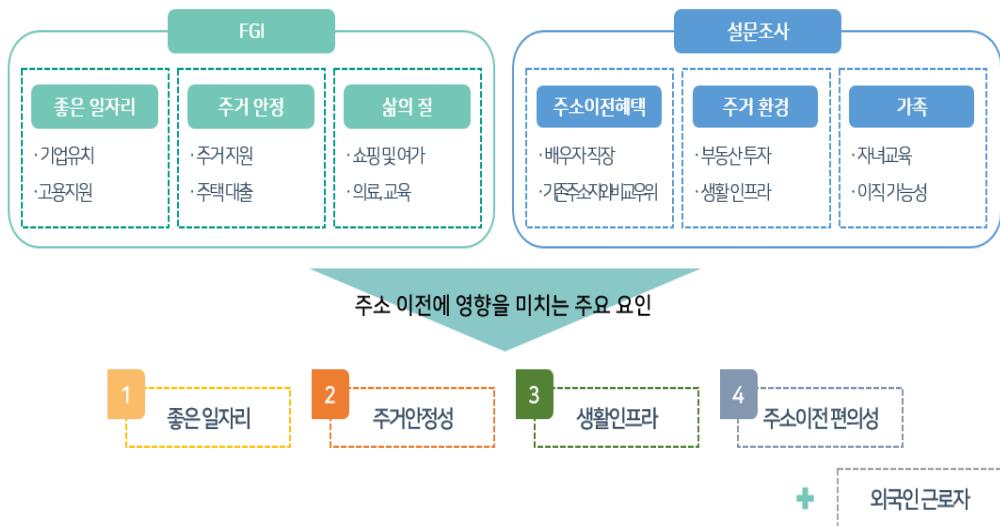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의 정주화는 단순한 일회적 주소이전을 넘어 장기적으로 군산시에 정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체류인구가 정착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 정착 인구는 지역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군산시와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
 - 체류인구가 완전히 정착하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 안정적인 정착 인구는 지역 기업과 산업단지에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단순 주소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완전한 정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군산시가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착 인구는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단순한 주소 이전은 일시적 효과만 제공하며,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지만, 체류인구의 완전한 정착과 지속적 지역 정착은 군산시의 경제적, 사회적, 인구적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나.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요인도출

- 설문조사 결과 관외 근로자의 실거주지는 군산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주소 이전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산단여건 개선과 기업 지원 및 군산시 정책지원, 외국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거주 실태) 관외 근로자의 실거주지는 군산(52.1%)이 가장 많았고, 익산(21.9%), 전주(14.6%) 등 순, 주거 형태는 자가(33.7%), 기숙사(28.8%), 전세(20.2%), 월세(14.4%) 등으로 기숙사나 월세 등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 하지 않은 관외 근로자 비율이 높음
 - 군산시에 살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소이전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주민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가 높게 나타남
 - (산단 여건 개선 필요도) 산업단지 및 주변의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 불필요도는 8.7%, 필요도는 64.1%로, 영역별로 의료시설, 편의시설, 주거환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함
 - (기업의 지원) 관외 근로자 주소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은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과 '주택관련 대출 지원', '주택 또는 기숙사 확대', '정규직 전환' 등
 - (군산시 정책 지원) 군산시의 지원 요구는 '주택공급 시 우선 분양', '주거비 관련 지원(이자 등),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등
 -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군산 산단 관외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건강관리 지원', '공공기숙사 도입' 등 정주 여건 개선 필요
- FGI 결과 산단 근로자의 관외 근로 이유는 낮은 생활 만족도, 인프라 부족, 비교우위 없음 등으로 나타남
 - (군산과 산단의 낮은 생활 매력도) 현재 주소지보다 군산 아파트의 부동산 투자 가치가 낮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음주운전 등 산단 생활권에 대한 치안과 환경 문제, 헬스장 등 생활 필수시설 낙후
 - (군산시 생활 인프라 부족) 대형 쇼핑 시설 등 여가 및 문화시설 부족, 시내 대중교통 문제와 KTX 등 교통 여건 불편, 괜찮은 의료·교육 여건 부족
 - (뚜렷하지 않은 관외 지역 생활의 단점과 뚜렷한 장점) 도내 지역과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가족생활 기반이 전주, 익산 등에 위치
- 주소지 이전을 위한 요건은 좋은 일자리, 주거안정, 생활인프라확충, 산단 환경개선 등으로 나타남

- (좋은 일자리 마련) 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를 위해 세금감면 등 기업 지원 확대 필요
- (주거 안정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낮은 이율 지원, 관외 근로자 특별 전형, 청약우선권, 맞벌이 가구 이자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상향 등 주거 지원 확대
- (생활 인프라 확충) 대형유통시설 유치, 군산 정주를 위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도움이 되는 기반(소아과, 조리원 등) 형성, 가족 중심 휴식 및 체험 공간 확충
- (산단 지역 환경 인프라 개선) 산단 지역 도로 개보수,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산단 지역 공원 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산단 치안 문제 해결, 복합문화센터 이용 시간 조정 등 산단 지역 환경 인프라 관리 필요
- 군산시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소지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면, 좋은 일자리, 주거안정성, 생활인프라, 주소이전 편의성 4개의 요인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4+1요인도출 가능



[그림 4-2]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로자 주소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좋은 일자리) 군산 관외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를 위해서 기업 유치와 고용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마련 필요

-
- (주거안정성) 가족중심적인 군산 관외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지원과 주택 대출 지원 등 주거 관련 혜택 필요
 - (생활 인프라) 주거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 문화·체육, 교육 등 다각적인 분야의 생활 인프라 구축
 - (주소이전 편의성) 기존 주소지와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가족 중심의 주소지 변경을 위해서는 주소이전 편의성 필요
 - (외국인 근로자) 군산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방안과 이들을 위한 정주 지원 정책 필요

2.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방안

가. 좋은 일자리

1) 기업유치 투자지원에 주소이전 비율 차등지원 추가

가) 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이 군산시에 투자하면서 근로자들의 주소 이전과 정주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 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지역 사회 간 상생의 구조를 형성
- 주소 이전 비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군산시에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지역 정착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현재는 투자금액과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히 기업이 지역에 입지하는 것만으로는 외부 근로자의 주소 이전을 보장할 수 없고, 주소 이전 비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단순한 경제적 투자 규모가 아닌, 지역 사회와의 통합 노력(예: 근로자의 주소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더 질 높은 지역 발전이 가능
- 주소 이전 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주소 이전 비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군산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군산시로의 주소 이전 비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주거 지원, 교통비 지원, 가족 복지 서비스 등을 기업 차원에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음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군산시 전체 투자 및 유치기업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산업혁신과
- 사업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다) 주요내용

■ 군산시 기업지원 조례 현황

- 군산시는 2000년에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내용에는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고용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근로자의 정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종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3. 집단화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 5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 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국내기업 투자지원 항목에 주소이전비율 추가

- 현재 기업지원에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항목이 있음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에 기존 근로자의 주소이전비율을 추가하여 기업에 대한 차등지급 내용을 포함

기준	개정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9조의4(고용규모 및 주소이전비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 및 기존 근로자의 주소이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라) 관련사례

- 지자체마다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투자규모와 고용규모에 비례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 하지만, 기존 근로자의 주소이전을 조건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에는 없는 상황
 - 기존 근로자의 주소이전 비율에 따른 기업유치 보조금 차등지급은 군산시가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마) 기대효과

- 주소 이전 비율을 고려한 인센티브는 군산시의 독특한 투자 유치 정책으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단기적인 주소 이전을 넘어,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군산시의 인구와 경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
-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
-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군산시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내 출생률 증가와 인구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
- 주소 이전과 정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과 주거의 일체화로 생활 안정성이 강화
- 지역 근로자 채용과 정착을 중시하는 고용 구조로 변화하여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형성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주소이전) 인센티브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규직은 군산시로의 주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가 주택관련대출지원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1순위 중 60%가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1순위)

(단위 : %)

구분		정규직 전환	승진 가점 혜택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교통비 지원 확대	주택관련 대출 지원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
계약 형태	정규직	13.5	11.2	18.0	11.2	29.2	16.9
	비정규직	60.0	0.0	6.7	13.3	20.0	0.0

-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향후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의 부담으로 군산시로의 주소 이전을 꺼리는 경향이 높음
- FGI에 참여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이 안정되고 군산시에서의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산시로의 주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 안정성 강화와 함께 군산시로의 이주 동기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이는 군산시 산업단지 내 인력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정규직 전환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정책은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고용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적 생활 안정과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군산시 투자 및 유치기업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사업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다) 주요내용

■ 법률과 조례 현황

- 군산시는 군산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제정하여 시행 중
- 군산시의 비정규직 관련 조례는 군산시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조례는 아니며, 군산 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로 제정
-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 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법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시 기간제근로자 우선 고용과 통상 근로자의 전환 시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군산시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개정

- 대부분의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안정 관련 조례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있는 합계를 가지고 있음
- 군산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비정규직 지원 부문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공공부문은 그대로 두고 민간 부문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내용을 추가

- 민간 부문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내용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향상과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포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추가적인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추가

기준	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p>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p> <p>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p> <p>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 제00조(우수기업 등 우대) ① 시장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우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융자 2.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시책 참여 우대 <p>② 시장은 비정규직의 노동개선,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기업,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동시에 주소이전을 추진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라) 관련사례

- 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비정규직 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민간 부문 비정규직 지원내용에는 크게 노동조건 향상사업과 우수기업 우대로 구분할 수 있음
- 노동조건 향상사업의 경우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 상담 및 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우수기업 우대에는 융자지원, 신용보증지원, 공공부문 시책참여 우대 및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이 외에도 시·군 및 민간 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 수립 권장 및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공로 표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있음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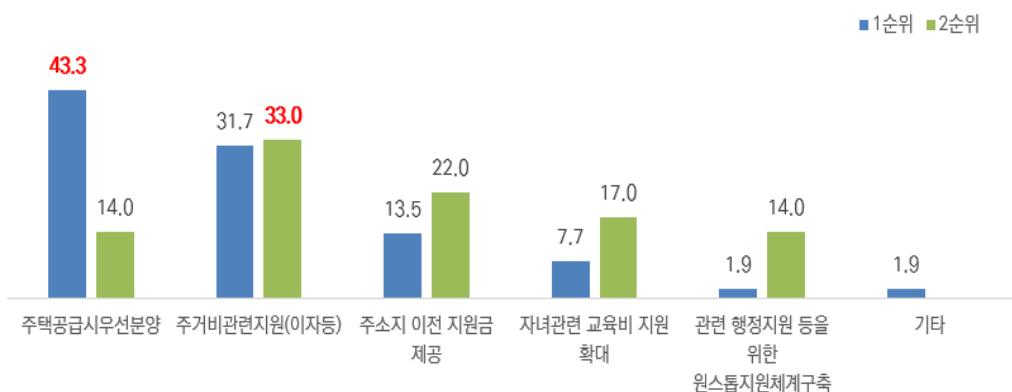
- 정규직 전환과 주소 이전 지원 정책은 근로자들이 군산시로 이주하도록 유도하여 인구 감소 문제 완화
- 특히 젊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입은 지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성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이는 군산시 산업단지의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기업 경쟁력 향상과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
-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는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강화
- 정규직 전환은 고용 형태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군산시 내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주소 이전 지원은 군산시가 근로자 친화적 도시로 인식되게 만들며, 이는 군산시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

나. 주거안정성

1) 산업단지 장기근속자 주택(아파트) 우선 분양

가) 배경 및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관외 근로자의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1순위)은 ‘주택공급시 우선분양’이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비 관련 지원(이자 등)’ 31.7%,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13.5% 등 순으로 분석됨
- 특히 ‘주택공급 시 우선분양’에 대해 관외근로자가 20대 일 때(55.6%), 미혼일 때(50.0%), 자녀가 없을 때(46.8%), 1인 가구 일 때(56.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거안정성이 낮은 연령이 낮은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한 시점임



[그림 4-3] 관외 근로자 주소지 이전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 FGI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청약 우선권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청년, 1인 가구, 미혼, 기혼자 등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주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모색이 필요함
 - “가장 중요한 건 청약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리로 응자를 지원해 주는 거..그 두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A, 광명시)

-
-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토대로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제공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군산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인력 이탈을 줄이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산업단지 장기근속자(5년 이상)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 사업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산업단지 장기근속자(5년 이상)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다) 주요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85m^2$ 이하)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 가능
 -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음
- 군산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조건을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우선 공급(특별공급) 물량을 일정 비율 사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1.)



[그림 4-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단기업 근무자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 등과 연계하여 공급하며, 공급대상 중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또는 장기근속자, 무주택, 주택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지역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량권 부여

[표 4-4] 일자리계층 유형별 입주계층

일자리계층 유형	판단기준	입주계층
① 창업지원형	근로형태 등	창업인(예비), 창업기업종사자
② 지역전략산업지원형	산업분야 등	해당지역 전략산업종사자
③ 산단·중기근로자형	산업단지, 기업형태, 규모 등	산업단지 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라) 관련사례

- 국토교통부는 매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 경기 부천(LH)



- △ (위치) 경기 부천시(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
- △ (사업시행자) LH
- △ (사업비/호수) 2,992억/일자리 300호(연면적 7,800m²)
- △ (주요내용) 통합공임 1,002호(일자리연계형 300호), 지원시설(추후 지자체 협의)

□ 강원 횡성(LH)



- △ (위치)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횡성군
- △ (사업비/호수) 236억/80호(연면적 5,574m²)
- △ (주요내용) 통합공공임대 80호(일자리연계형 80호), 지원시설(없음)

- 고창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고수면 소재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총 200세대의 주택 공급 예정
-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인근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320억원 상당)를 지원받고 전용면적 36m² 100호, 56m² 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LH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



[그림 4-5] 고창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계획도

자료: 고창군

마) 기대효과

-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
- 군산시 산업단지의 장기근속자 아파트 우선분양 정책은 지역 경제, 사회 안정성, 기업 유치, 근로자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정착이 늘어나면서 지역 인구 증가 효과 기대

2)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대출 이자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군산시 주소지 이전에 필요한 지원(2순위)은 ‘주거비관련 지원(이자 등)’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이 22.0% 등 순으로 나타남

[표 4-5] 군산시 주소 이전에 필요한 지원(2순위)

구분		주택공급 시우선분양	주거비관련 지원 (이자등)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자녀관련 교육비 지원 확대	관련 행정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 체계구축
전체	n(명)	14	33	22	17	14
	비율(%)	14.0	33.0	22.0	17.0	14.0

- FGI 결과 중앙정부나 군산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 이자(1~2% 대)지원이 필요하고, 맞벌이 가구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 주택지원에서 이자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요즘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좀 일하면 부부 합산해서 6천 7천은 다 찍을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허들 낮게 해야…”(A, 광명시)
 - “좀 파격적인 조건이면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임대주택만큼은 그냥 저렴하게 월세나 이자 정도 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G, 전주시)
-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 이자 등으로 이러한 지원은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
- 주거비용 지원은 단기적 전입이 아닌 장기적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
- 주거 지원 정책은 군산시가 외부 인구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보이도록 하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군산시의 미래 세대 유치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군산시 전입자(산업단지 근로자) 중 주택구입(전세)자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 사업예산: 1억원/년
- 주요내용: 군산시 전입자 중 주택구입(전세) 대출 년 최대 500만원 이자지원

다) 주요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

- 군산시는 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사업기간: 2024. 1. 15 ~12.10(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율(최대2%)에 해당하는 금액
세대당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지원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불법건축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에 산업단지 근무자 중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한 특정비율을 지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을 강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근로자 중 신혼부부에 한하여 매년 전체 지원대상의 10%를 특별지원대상으로 지정 운영
- 지원대상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외에 주택마련(구매) 대출이자지원을 추가하여 주택구매를 통한 이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지원
 -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지원을 추가하고 전체지원 대상의 10%를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에 특별지원
-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금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연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의 지역이주 촉진
 -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연 300만원 이내 지원회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않음

라) 관련사례

- 익산시는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사업대상: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청년인 신혼부부
 - 사업내용: 구입자금 대출이자 3.0%지원(연 최대 3백만원)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입금
-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대상: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 사업내용: 구입자금 대출이자 3.0%지원(연 최대 6백만원, 청년 3백만원)

*신혼부부는 신혼연차별,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지급방법: 협약은행(NH농협은행, 전북은행) 이차보전



[그림 4-6] 약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마) 기대효과

- 주거 안정은 이직이나 이주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
- 신혼부부 대상 지원은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근로자와 그 가족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켜 사회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

다. 생활 인프라

1) 명문학교 재도약

가) 배경 및 필요성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80%가 30~40대로, 생애주기 상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심이 집중될 시기임
- 지역 명문학교는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포함하여 수준 높고 차별화된 교육을 추구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 구성원의 정주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
- 하지만 군산시 소재 일부 중학교가 명문학교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어 재도약을 통해 입지를 공고히 다져야 정주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현재는 공·사립 고등학교에서만 기숙사를 운영 중이지만, 중학교까지 확대·적용된다면 자녀 돌봄의 사회화가 가능해질 것임
- 일부 중학교의 기숙학교 전환과 야간학습지도 실시 등 커리큘럼 개편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면 학부모의 지역 정착 결정을 돋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군산시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타지 학생들과 일가족의 유입을 이끌어 인구 순유입을 꾀할 수 있음
-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면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전반적인 지역 정주 여건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명문학교 교육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추후 새만금 수변도시에 추진 중인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인구 유입 효과가 배가될 것임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회현중학교 등 군산시 내 공립 중학교 일부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 사업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군산시 내 명문학교를 기숙학교로 전환, 야간학습지도 시행 등

다) 주요내용

■ 군산시 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 군산시에는 19개의 중학교(공립 15개, 사립 4개)와 12개의 고등학교(공립 8개, 사립 4개)가 설립되어 있음 (2024.04.01. 기준)
- 이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음

[표 4-6] 군산 기숙사 운영 중·고등학교 현황

설립	학교명	모집단위	기숙사 정원		
			남	여	계
공립	군산고	전북	112	-	112
	군산동고	전북	68	-	68
	군산여고	전북	-	68	68
	전북외국어고	전북	160	400	560
	군산기계공고	전국	312	-	312
사립	군산제일고	전북	92	-	92
	군산중앙여고	전북	-	52	52
	군산중앙고	전북	140	-	140

■ 중학교 일부를 기숙학교로 전환

- 동원중학교, 동신중학교, 회현중학교 등 군산시 내 명문중학교 중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무한 실정임

- 동산중학교(금동 26-83), 군산초등학교(중앙로1가 13-1) 등 폐교 및 통합·이전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기숙사 완비, 야간학습지도 시행 등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내 생활시간 연장
-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타지 학생들의 입소를 정원 일부에 한해 허용하여 군산시 외 전북지역과 전북지역 외에 거주하는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 가족의 이주 실현

라) 관련사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공·사립 기숙사 운영학교 중 중학교는 총 12곳으로 다음과 같음

[표 4-7] 전북특별자치도 기숙사 운영 중학교 현황

설립	지역	학교명	구분	모집단위
공립	순창	동계중	일반중	전북
	정읍	전북동화중	특성화중	전북
	완주	전북체육중	특성화중	전국
사립	정읍	왕신여중	일반중	전북
		태인중	일반중	전북
사립	고창	고창북중	일반중	전북
		영선중	자율중	전국
사립	부안	백산중	자율중	전국
	남원	용북중	자율중	전국
	완주	화산중	자율중	전국
		전주예술중	특성화중	전국
	김제	지평선중	특성화중	전국

- 도내 자율중학교는 완주, 남원, 군산, 고창, 부안 등 5곳 6개교로, 완주(화산중), 부안(백산중), 고창(영선중), 남원(용북중) 등 군산을 제외한 4곳에서 기숙형 자율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 국내 최초 기숙형 자율학교인 완주 화산중학교는 도내 세 번째로 IB(국제 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되는 등 차별화되고 내실화된 교육 인프라로 전국 각지 학생들의 지원이 몰려(2024년 기준, 15.17:1의 경쟁률) 완주군 체류인구 증가에 기여함

-
- 이와 유사하게, 부안 백산중학교도 2024년 입학생의 67%가 타지역 출신으로 기숙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인해 체류인구가 유입됨
 - 한편, 국제학교가 위치한 제주 대정읍은 2011년(7,005가구 16,552명) 이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24년 33%나 증가함(10,850가구 22,006명)
 -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공립 중학교는 순창, 정읍, 완주 등 3곳에 불과하며 대안교육 또는 체육 특성화중학교이므로 공립 일반중학교와 자율중학교의 기숙학교 전환은 군산시가 최초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마) 기대효과

-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오고 싶은 명문학교 보유 지역으로써의 인지도와 명성 획득
- 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모까지 군산시에 정착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자녀 양육·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교육 인프라에 대한 인식 개선
- 부모의 청소년 자녀 교육 및 양육·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친화도시로써의 경쟁력 강화
- 명문학교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은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정주화 실현

2)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원서비스 확충

가) 배경 및 필요성

- 군산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므로 근로자의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면 전입 및 정주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FGI 결과 복합문화센터(체력단련실)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는데, 운영 시간 확대로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한다면 현재 근로 시간에만 정주하는 대다수의 관외 근로자(71%)의 주야간과 주말 체류시간이 점차 늘어나 정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너무 운영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 6시에 퇴근하는데 8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엄청 몰려요. 근데 여기가 크면 상관없는데 그 2시간 운동하는 게 좋고…” (B, 인천광역시)
 - “시간이 보니까 8시면 닫고… 한 2시간만 더 열어줬으면 하는데…” (H, 익산시)
- 설문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주변 환경 중 의료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68.7%로 가장 높으므로 의료서비스 추가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전입·정주 의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52%가 생애주기 상 진지한 연애와 결혼, 취업을 통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새로운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20~30대 청년층인데, FGI 결과 직장 내 성비 불균형 문제(남성 83%) 등으로 인해 군산 내 가족 형성과 정주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사회 내 사회적 관계 결여가 이주를 저해하므로 인적 네트워크 확충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저는 결혼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가 있고 내가 그분하고 이제 혼인을 해서 이제 정착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관외근무를 포기하고 여기(군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군산 산단에 있는 산업들이 (중략) 성비가 거의 뭐 8대2, 9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 광명시)
 -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그러지(군산으로 전입하지) 않을까” (L, 익산시)
 - “(군산으로의 이주는) 결혼을 하면 군산 여자를 만나거나…” (I, 서울시)
 - “가족도, 친구들도 다 광주에 있고 이러니까… 군산은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더 막 ‘여기 내가 오래 살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B, 광주광역시)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산업혁신과
- 사업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시간 확대, 의료·문화서비스 추가지원

다) 주요내용

■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황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시간과 시설은 다음과 같음

[표 4-8]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황

운영 시간	평일(월~금)	09:00~20:00 (*09:00~18:00 근로시간 중복)	
	토요일	09:00~13:00	
	일요일/공휴일	휴관	
시설	행정시설	기업지원센터, 산단민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총괄사무실, 민원실
	문화시설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도서 열람 및 대여, 프로그램실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헬스장, 체육행사 및 농구코트
	복지시설	다목적실, 소·대회의실, 공유오피스, 휴게실	회의공간, 휴게공간
	부대시설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의료시설	-	-

■ 운영 시간 확대 및 의료·문화서비스 확충

- (운영 시간) 근로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야간에 운영 시간을 1~2시간 연장하여 복합 문화센터 활용도와 만족도 제고

-
- (의료서비스) 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2개)이나 다목적실(2개) 중 한 곳을 물리치료실(물리치료사 상주) 및 근로자마음건강상담실로 재구성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직업 특성에 부합하는 기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이동진료서비스 추가와 지정 약국(상비약품) 확보를 통해 의료 편의 향상
 - (문화서비스) 청년뜰 청년센터와 협력하여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도울 수 있는 온·오프라인 문화공간을 개설하고,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등 부대 시설에 한시적 간이부스를 설치하여 지역민과의 네트워킹 형성의 장이 되는 이벤트를 간헐적으로 개최

라) 관련사례

- 진주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6시~오후 5시) 등은 근로시간 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운영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하였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스트레스와 직업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함. 예를 들어 전북근로자 건강센터의 완주분소는 완주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직업건강 전문가(의사)와의 무료 상시 상담과 산업간호사의 지속적 관리가 제공됨
- 군산시 「청춘, 섬愛잇다」, 진주시 「굿바이 SOLO」, 담양군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대구시 「너랑나랑두근대구」 등 군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미혼남녀 만남 주선 행사를 주최하고 있지만, 횟수와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보다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네트워킹 구축 프로그램으로는 김제 청년 소모임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놀이터」 등이 있음

2024 김제 청년 소모임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림 4-7] 김제 청년놀이터 사업

마) 기대효과

- 군산시 내 생활시간 사용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
- 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장기근속을 가능케 해 잠재적 정주 인구(장기체류) 확보
- 군산시 내 체류 시 외로움과 고립감 등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 소속감을 높여 체류시간 연장과 정주의 동기로 작용
- 산업단지 및 주변 환경의 의료, 체육, 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직업 만족도 향상과 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 삶의 질 증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 도모

라. 주소이전 편의성

1) 산업단지 근로자 주소이전 현장 서비스

가) 배경 및 필요성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향후 군산시 전입 의사에 대해 전혀없음 24.0%, 별로 없음 26.0%, 조금있음 41.3%, 매우 있음 8.7%로 전입의사 없음 50%, 있음 50%로 나타남
- 관외 근로자 특성별로 전입 의사가 높은 집단은 남성(52.3%),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50%), 가구유형별로는 다인가구(53.1%)일 때, 계약형태가 정규직(51.7%)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관외 근로자 중 군산시로의 주소 이전 의사가 있는 50% 특히 적극적으로 전입 의사가 있는 8.7%에게 주소 이전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전입효과 극대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제시 필요
- 근로자들이 전입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느껴 주소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장사무소를 통해 간소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러한 불편함 해소 가능
-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기관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현장사무소를 통해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 극복
- 주소 이전 시 제공되는 지원금,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의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전입 의사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
-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추가 서비스(근로 조건 상담, 주거 상담 등)를 제공하여 전입과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사무소 운영 필요
-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복지 실현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로, 현장사무소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 사업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주소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다)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외 근무자 현황

- 군산시의 산업단지 현황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10인 이상 산업단지 내 기업은 530개 소에 이르며, 기업체 협조요청 및 유선조사 병행을 통해 147개소의 6,254명의 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관내 근로자 4,622명(74.54), 관외 근로자 1,592명(25.4)으로 나타남
- 군산시는 샘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내를 70로 관외를 30로 추정하여 현재 530개소 근로자 30,439명을 근거로 관내 21,307명, 관외 9,132명으로 추정
- 관외 근무자 9,132명 중 설문조사 전입 의사 50%를 대입하면 4,566명은 군산시로의 주소 이전 의사가 있으며, 특히 적극적으로 전입 의사가 있는 8.7%에 해당하는 794명의 경우 주소 이전 편의성을 제공하면 바로 전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적극 전입 대상으로 추정

■ 전입신청을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군산시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찾아가는 주소 이전 현장사무소 운영

-
- 관외 근무자의 군산시 주소 이전을 위한 현장접수는 물론 정부24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현장 주소 이전 도모
 - 군산시 전입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추가로 추진할 전입지원금 지원 등의 즉각적인 전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현장 주소 이전 동기부여
 - 1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으로 주소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산업단지는 물론 관내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도 동시에 운영

라) 관련사례¹⁾

- 김제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과 유관기간에 김제시 인구플러스!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 시 인구성장팀과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은 현장 전입창구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기숙사 입교생과 관외 주소를 두고 관내 실거주하는 신입생,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이전 안내 및 전입혜택 홍보
-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은 관내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 등을 찾아 김제시의 다양한 전입지원 정책과 복지혜택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주소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제시의 인구성장 시책
- 시는 현장접수와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 전입창구를 통해 전입장려금 등 청년의 삶이 보장되는 김제형 인구청년정책(결혼축하금, 청년부부 주택수당,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청년창업지원)을 자세히 안내하고 관내 실거주자에게 주소이전을 적극 홍보
- 김제시는 전입장려 시책으로 ▲전입장려금 ▲전입이사비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창업 도전지원 아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청년층을 위한 인구정책도 세분화해 추진 중

1) 김제시 보도자료



[그림 4-8] 인구플러스 찾아가는 전입창구(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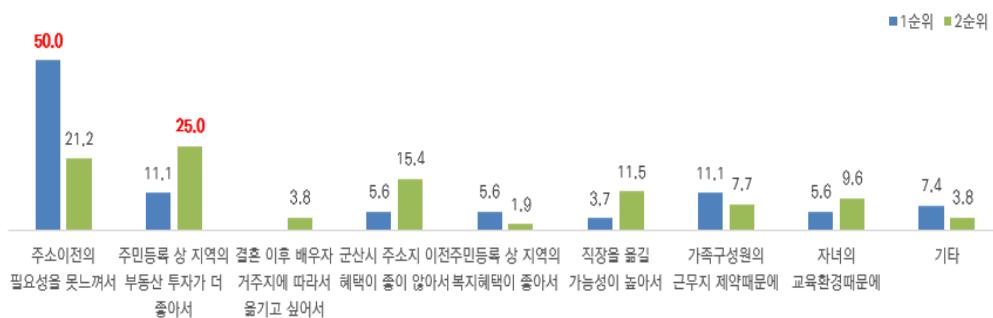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현장사무소를 통해 주소 이전,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주소 이전 편의성 제공
- 주소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주택 지원, 세제 혜택, 생활 편의 지원 등) 및 지역 내 생활 인프라, 문화시설, 교육환경 등 군산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근로자들의 인식을 개선
- 전입 과정의 불편함을 제거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유입 유도
- 현장사무소는 근로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여 정책 개선 및 근로자들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전입지원금 지급

가) 배경 및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군산시에 살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는 ‘주소 이전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50.0%(27명)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등록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와 ‘가족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에 각 11.1%(6명)로 나타남



[그림 4-9] 관외 근로자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전입 근로자에게 주거 지원금,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주소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함
- 특히, 주소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입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입 의사是有이나 별다른 이유없이 전입을 미뤘던 관외 근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소 이전의 필요성 제공
- 전입지원금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전입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관외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인력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도구
- 전입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향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 가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군산시 신규 전입자
- 사업기간: 2025년 ~
- 시행주체: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 사업예산: 1억원
- 주요내용: 군산시 신규전입자 전입지원금(지역화폐) 20만원 지급

다) 주요내용

■ 군산시 전입지원사업 현황

- 군산시 전입지원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무료 수강, 신규 관외 전입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타지자체 대비 전입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편임

[표 4-9] 군산시 전입관련 지원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살기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	군산시 전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평생학습 타임테이블 제공 및 평생학습개설강좌 무료 이용•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연계, 포인트 달성(30,000점)에 따른 도서 수령	전입일 기준 2년 이내
군산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혜택	군산시 전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평생학습관 이용시 개설강좌 무료 이용	전입일 기준 2년 이내
군산시 신규 관외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군산시 전입 후 1 년 이내에 18세 이상 검진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5종(신장, 간기능 검사 등)에 대한 무료 검진 안내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군산시에 주민등록 을 둔 모든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 등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타 지역 전입자 쓰레기 봉투 교환사업	타 지역에서 전입 한 세대주(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군산시 쓰레기 봉투 20L로 환산하여 교환	전입일 6개월이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지급	타 지역에서 전입 한 세대주(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주택 등으로 전입한 세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 지급(1회)	

출처 : 군산시 내부자료

■ 군산시 전입지원비 지원

- 군산시로 새롭게 주소 이전을 통해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대상별 전입지원금을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로 지급
 - 지급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산시로 전입한 사람
- 전입지원금은 대상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여 전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설계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군산시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라) 관련사례

- 합천군은 2023년 4월 이후 전입장려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4-10] 합천군 전입장려지원 사업 현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입지원금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 ※ 생애 1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10만원· 2023. 1. 1. 이후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4인 이상 가족 : 100만원(이전 전입가족은 7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전입 시 1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10만 원	미래성장 활력과
전입유공 장려금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전입자 1인당 1회에 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자 5명~9명 : 50만 원· 전입자 10명~14명 : 100만 원· 15명 이상 : 150만 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 ※ 생애 1회 지급	· 1인당 50만 원	
종량제봉투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같은 날, 같은 주소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	· 1인당 20리터 12매	환경위생과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 5년 이내 영농 종사 세대주 ※ 만65세 이하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최대 300백만원 한도)	농업정책과
	귀농 5년 이내 영농 종사 세대주	· 영농 정착 지원(농기계 구입, 기반조성 등) · 노후화 된 농가 주택(본체) 수리비 지원 · 세대당 최대 7백만원 한도 지원	

출처: 합천군 홈페이지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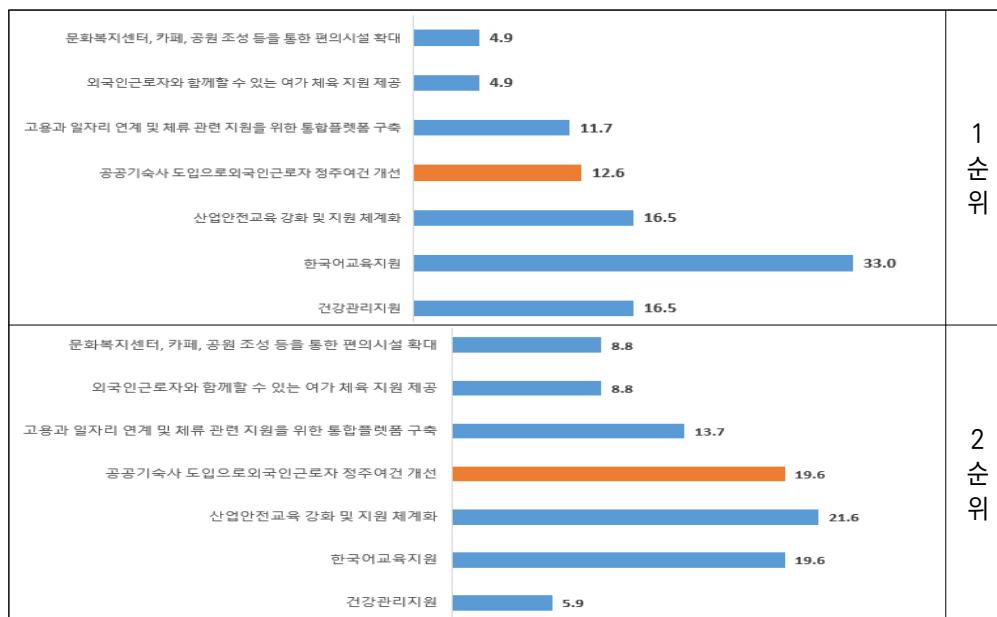
- 전입지원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관외 거주자,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층의 전입동기 제공
- 군산사랑상품권을 전입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지역 내 소비 활동이 증가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전입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와 인구 구조의 안정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제공
-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함으로써 지자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
- 전입지원금 정책은 군산시의 인구 유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근로자 정착,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마. 외국인 근로자

1)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공공 기숙사 건립 운영

가) 배경 및 필요성

- 산단 관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산단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1순위로 ‘한국어교육지원’이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 지원’과 ‘외국인력 대상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체계화’가 각 16.5%, 공공기숙사 도입 12.6% 순으로 나타남
- 군산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순위로는 ‘외국인력 대상 산업안전교육강화 및 지원 체계화’가 2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기숙사 도입’과 ‘한국어교육지원’이 각 19.6%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군산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공공기숙사 도입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4-10] 군산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1, 2순위)

- 또한, 군산시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군산 지역 등록외국인(9,123명) 중 취업 체류자격인 외국인 근로자가 3,779명(41.4%)으로 등록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 등을 통해 군산 산업단지로 매년 지속 유입이 확대될 전망임

- 김제 등록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35%로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약 6.4%p 더 높은 상황

[표 4-11] 군산시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자격별		2020	2021	2022	2023	'24. 6월말	'24. 9월말
취업	전문인력(E1~E7)	161	165	185	393	437	486
	비전문인력(E8,E9,E10)	2,017	1,904	2,327	3,099	3,149	3,293
유학	유학(D2)	668	807	871	1,073	1,261	1,405
	한국어연수(D4-1)	307	367	680	655	572	536
재외동포(F4)		915	946	985	1,152	1,227	1,230
결혼이민자(F21,F52,F6)		1,010	1,035	1,050	1,067	1,084	1,104

자료 :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24. 9. 기준)

- 군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 중심 지속적인 인력난은 사업 경영의 어려움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나 중소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 규모의 한계와 부족으로 외국인력 추가 채용이 힘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군산 산업단지(중소기업 중심) 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증가될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정주를 위한 주거 지원 마련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 (위치) 산단 내 오식도동 인근 *산단 내 외국인기숙사가 필요 사업체 수요 파악 후 수요 높은 지역 선정
 - (대상) 기숙사 규모 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 추가 채용에 어려움 있는 산단 중소기업체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가족)

-
- 사업기간: 2026년 ~ 2031년 (6년)
 - 시행 주체: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 사업예산: 약 30억(국비), 주택도시기금), 150호(원룸 100호, 가족룸 50호)
 - 주요 내용
 - 산업단지 내 공공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립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 병행
 - (기숙사 내 특화시설) 공유 오피스, 회의실·교육실, 피트니스, 커뮤니티 카페, 국적별 작은 가게, 컴퓨터 및 OA룸(컴퓨터, 프린터, 인쇄 등) 등
 - 추진체계
 - (시행방법) 국토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국비 공모사업 추진)
 - (추진절차) 국토부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시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기숙사 건립의 가능성 검토 → 산단별 기숙사 필요 규모 파악 및 기숙사 필요 수요가 가장 높은 산단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공공임대주택 기획·설계를 위해 산단의 중소기업체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 공모 접수 → 심사 → 최종 선정

다) 주요내용

- 산단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대표 요구사항들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체의 약 80%가량은 공공외국인기숙사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사업체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공기숙사 건립 및 확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산의 경우 농업 외국인 근로자 대상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20명 수용 규모로 운영할 계획은 있지만,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임에도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국토부가 주관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기숙사 조성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 영월군의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국비 16억, 군비 54억 등 총 70억원 투입 예정)
 -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 유치 경쟁력 향상,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도모

라) 관련사례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
 -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거주환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안성, 파주, 포천, 양주, 연천 등 5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공공 기숙사를 짓는 사업이 진행 중
 - 공공기숙사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성격으로 지자체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간을 개·보수해 공급
 - 해당 사업은 도비 27억에 시·군비를 합쳐 약 63억원 투입, 시군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 재정력을 고려하여 매칭 비율(40%, 50%) 산정 실시 중



[그림 4-11]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

-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운영
 - 대불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는 대불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영암군이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센터(휴스테이)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단공이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음
 - (영암군 운영 근로복지센터 - 휴스테이) 대불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정착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40억원을 투입해 2019년 7월 10일 개관, 내국인 66실, 외국인 72실 규모로 보증금 12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대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협력기업 근로자 등이 입주 가능

- (산단 운영 기숙사)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건립 및 운영
- 영암군은 외국인 인구 전남 1위, 외국인 비율 전국 2위 지역으로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
- 영암군 대불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휴스테이'로 불리는 근로자 복지센터가 건립되었고 이 곳은 선주민(원주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입주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임. 현재 공실 없이 138실 모두 입주해 있고 매년 100여 명의 신규 입주 수요 있음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열악한 정주 환경으로 구인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근로자 기숙 시설 지속 증가



[그림 4-12]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휴스테이)



[그림 4-13]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근로자 기숙사

마) 기대효과

- 공공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산업단지 내 추가 외국인력 확보와 유지 용이, 또한 산단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 및 경제적 성장 등 도모
- 산업단지 내 공공외국인기숙사 인근 주변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근로자(가족)의 기숙사 이용으로 지역 내 소비 활동이 증가하여 지역민과 상생 구조 형성 기대
-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주택가 등에 분산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지역민들과의 주거 환경에 대한 상호 만족도 제고

2) 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공모방식)

가)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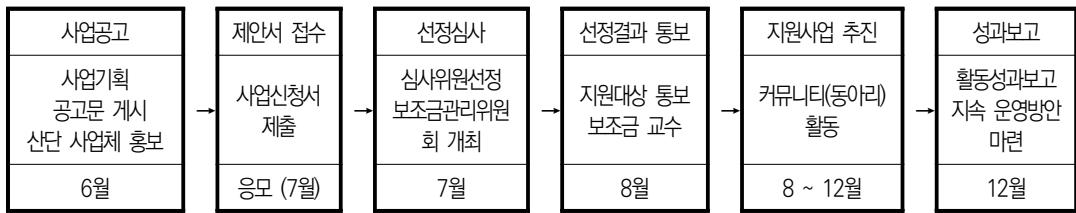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산단의 관외 근로자들은 오식도동에 기업의 기숙사들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무리 지어 돌아다니거나 크고 작은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산단의 정주 여건과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향후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관외 및 관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문화적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및 갈등을 예방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협동과 상호존중을 통한 업무 효율성과 조직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적 연결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단 내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간 상호교류 등 관계적 증진과 더불어 심리적 안전감 제고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의 문화적 가치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직장 내 및 산단 정주 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 및 갈등을 방지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위치) 산업단지와 군산시 일원, (대상)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구성한 커뮤니티(동아리)
- 사업기간: 2025년 8월 ~ 12월(시범 운영), 2026년부터 정식사업 추진
- 시행주체: 인구대응담당관
- 사업예산: (시범사업) 15백만원, (정식사업) 30백만원
- 주요내용: 산단에서 근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다양한 커뮤니티(동아리)가 친목 도모 및 상호교류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원 분야 : 스포츠(축구, 족구, 탁구 등), 교육(한국어, 외국어 등), 문화·예술, 친목모임, 다문화행사, 멘토링 등
- 커뮤니티(동아리) 구성 :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참여
-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성격과 단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최종 선정하여 차등적으로 예산 지원 *산단 내 내국인·외국인이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동아리) 5개 선정

○ 추진절차



다) 주요내용

-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편견과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와 치안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언어적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오해와 편견 및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다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군산 산업 단지 발전을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상호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 제고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 확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산단에서 근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문화적 이해 증진과 상호교류 및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내·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수행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 추진

라) 관련사례

- 안산시 산업단지복지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안산시 산업단지 관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지원과 새로운 동아리 결성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신청 가능함
 - 지원자격은 5인 이상 참여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외국인의 커뮤니티의 자발적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외국인 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사업의 성과와 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지원하며, 총 5개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3개 커뮤니티는 최대 100만원, 2개 커뮤니티는 90만원 지원
 - 지원자격은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이며,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국가별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함
 - 지원분야는 행사, 프로그램 방식으로 문화, 예술, 체육, 전시, 축제, 교육 등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관내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그림 4-14] 외국인 주민 및 근로자 대상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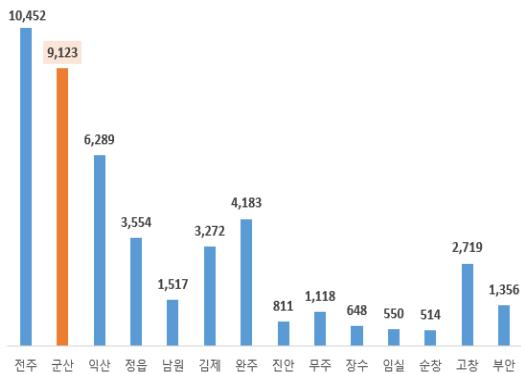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산단 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상호 문화적 이해도와 상호존중 제고 및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편견과 갈등 감소 및 예방
- 산단 사업체 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과 상호교류가 증가하여 팀워크 강화를 통한 작업 생산성 증가 기대
-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률 증가 및 이탈률 감소와 더불어 타 지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 가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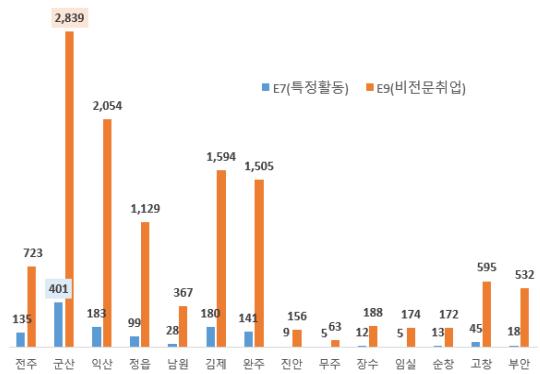
3)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센터 운영

가) 배경 및 필요성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현황('24. 9월 기준)을 보면, 등록외국인은 14개 시군 중 전주시가 10,4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9,123명)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근로자 현황만 별도로 살펴보면, 14개 시군 중 군산시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비전문 취업(E9) 2,849명, 특정활동(E7) 401명)



[그림 4-15]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현황



[그림 4-16] 전북 시군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군산시의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취업 체류자격인 외국인 근로자가 3,77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어 연수를 포함한 유학생이 1,941명이며, 재외동포 1,230명, 결혼이민자 1,104명 순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확대 정책으로 향후 외국인근로자가 군산 산단내로 유입 확대것으로 전망되며, 산업단지 내 기업체별 외국인근로자 유치 확대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고용허가제의 E-9(비전문취업) 비자 인력 규모는 '23년 12월 기준 2,708명이고, E-7(숙련기능인력) 비자 인력은 100명으로 군산 등록외국인 전체(8,443명)의 33.3% 차지
- 이상과 같이 전북도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군산 지역에 거주하며 그 중 많은 비율이 군산 산단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체류 적응 지원과 고용주와의 문제 발생 시 각종 법률·노무 상담, 의료정보제공과 임금체불과 폭력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한 고충 상담 등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단에 안정적 정착 및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산단 정주 여건 조성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위치) 산단 내 오식도동, (대상) 산단 내 기업체 근로 외국인근로자
- 사업기간: 2025년 하반기 ~
- 시행 주체: 인구대응담당관
- 사업예산: 50백만원(1차년도 시범 운영 후 예산 점진적 확대)
- 주요 내용

-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과 통·번역 서비스 지원
- 한국어교육(TOPIK 교육),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의 전화·방문 상담, 의료·법률·노무 지원, 고충 상담 등 문제 해결 지원
- 체류자격 갱신을 위한 자격증 교육 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체 간 구인구직과 채용 정보 제공 등 재취업 지원
- 외국인근로자 단기간 무료 숙식과 임시보호(쉼터) 및 생활 편의 제공, 동아리활동, 문화체험 등

다)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도-시군협업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이 중 하나의 사업이 ‘1시군 1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이라 할 수 있음. 전북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양적으로 유입 확대되고 있고,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유익된 외국인들을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센터를 도-시군 협력으로 추진·운영 함.

이에 군산시도 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 2025년부터 “1시군 1 외국인 주민센터”를 운영 예정임

- “1시군 1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 예산을 매칭(사업비 560백만원, 도3:시7)하여 운영되며, 센터 전담인력 1인의 인건비와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주요 사업은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 연계 상담과 사례관리, 취업·부동산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활동 추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동반가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숙련기능 인력 비자 대상자 발굴·취업 등의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전북도-시군 협력사업 “1시군 1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 예정 〉

- 도내 14개 시군 대상
- 사업비 560백만원(도 3 : 시군 7)
- (지원사항) 전담인력 인건비와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연계 상담과 사례 관리
 -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 인력 시군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모집, 접수, 사후관리 추진 등

- 한편, 전북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높은 비율이 군산 산업 단지로 유입되고 있기에 ‘1시군 1외국인 주민 센터 운영 사업’에 군산시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기존 인력(1명)에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및 센터 활성화할 필요 있음

라) 관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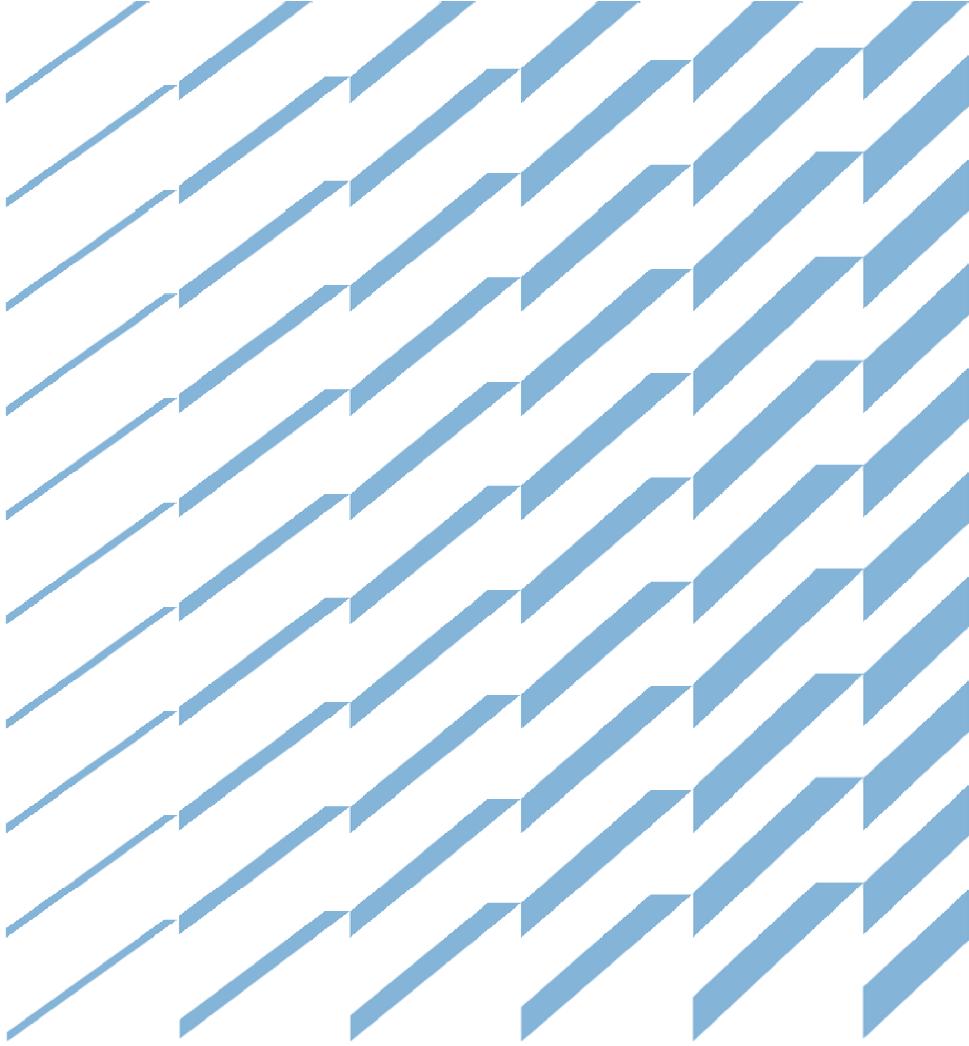
- 경상북도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 조직구성 : 총 4인(센터장 1인, 국장 1인, 팀장 1인, 팀원 1인)
 - 주요 사업 내용 : 취업 연계, 취업박람회, 7개국 다국어 제공, 문화·사회통합지원, 가족동반 캠프, 기업, 대학 네트워크 구축, 메토링 사업, 외국인정서지원 상담, 유학생과 외국인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그림 4-16] 경상북도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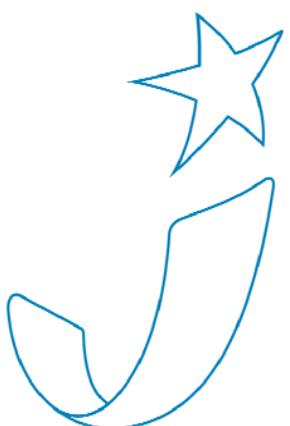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언어교육, 법률 상담, 고용·주거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으로 지역 사회와 직장 근무 환경에 대한 조기 적응 도모
- 외국인 근로자들의 군산 산업단지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내 고용 연계를 강화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산 산업단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과 지역 정주·정착 환경 개선 도모를 통해 향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확대 도모



제5장

제언



제5장 제언

- 체류인구관련 정책은 총인구 감소시대에 주민등록 상의 정주인구만으로는 인구증가 및 인구활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적 인구개념 검토과정에서 탄생
- 체류인구는 인구감소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생활인구의 법정인구 개념에 포함된 개념으로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체류인구의 법적개념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 외의 지역에 월1회 이상 최대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음
- 체류인구는 정주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체류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의 정주인구를 대체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의 체류인구정책은 체류인구의 확대와 체류시간의 연장 등을 통해 체류인구를 통한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는데 있음
- 본 연구는 군산시의 산업단지에 중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연구로 정부의 체류인구 정책에서 한 단계 진전된 체류인구의 정주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체류인구의 정주화정책연구는 도시의 매력을 높여 체류인구의 일상적 정주화로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총인구 감소시대 한정된 인구의 지역쟁탈이라는 제로섬게임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
-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체류인구 활성화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체류인구의 정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구쟁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의 필요성도 내재하고 있는 연구라는 특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군산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능한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연구라는 점을 감안

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야별 정책과제는 도정정책 및 군산시 민선8기 정책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은 생애주기별 또는 대상별 전체 사업의 한 분야로 이해될 때 전체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차원에서 도정정책과 군산시 민선8기 주요시책을 연결하여 수요자에게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등록제를 통해 지속적인 체류인구의 관리와 정착지원 등의 정책활용 필요
- 정부의 생활인구 활성화정책에 맞춰 생활인구 등록제와 같은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등록제를 통해 체류인구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
- 셋째, 인구대응담당관과 정책 실행부서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모든 사업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각 사업의 시행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기에, 각 사업의 추진부서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인구대응담당관의 사업총괄기능 부여가 필요
- 넷째, 군산시 산업단지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대응필요
- 심층인터뷰결과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정주환경에서 치안과 휴식공간부재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산시차원의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개선노력 필요
- 결론적으로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해서는 정책 요인 및 대상별 맞춤형 정책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의 지속적 관리 및 종합적 정책추진, 총괄부서 지정 등을 통해 정책의 시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관계부처합동(2022.11.3.). 혁신적·역동적 新산업공간으로의 전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토연구원 (2023).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안.
김송이. (2019). 체류형관광의 개념 및 특성분석과 정책적 이슈 도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4.6.26.).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거부담 덜어드려요.
서연미, 김광익, 류승한. (2014). 혁신·생활기반 강회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온라인 아카이브. (2024).
조성철, 황명화, 장철순, 이인희, 노영희. (2018).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조혜영, 박종배, 김광국, 김래현. (2015).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수요조사. 고용노동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2024년2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등록공장현황(2020022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

SUMMARY

A Study on Settling Industrial Complex Populations in Gunsan City

Dong Young Kim · Juyeon Lee · Hyun Su Kim

1. Research Purpose and Method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opulation in Soryung-dong, Gunsan City—where industrial complexes are concentrated—decreased by more than 2,000 from 2016 to 2023; it was 19,042 in 2016, before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Gunsan Shipyard ceased operation in 2017, but shrunk to 16,968 in 2023. To increase Gunsan City's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flow and settlement of workers.
- This study aims to find methods for increasing population inflow to Gunsan City by mitigating the second mass population outflow caused by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Gunsan Shipyard in 2017 and the closure of the GM Korea Gunsan Plant in 2018. Furthermore, it explores measures for attracting new companies by leveraging Gunsan City's secondary battery specialized complex designation.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settling inflowing industrial complex workers.
-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the settlement of workers in Gunsan City who are currently living outside the city, in addition to exploring population revitalization measures through these policy measures. It also outlines a potential virtuous cycle of attracting companies and promoting population inflow by deriving settlement measures for workers living outside the city, who account for up to 30% of all workers in Gunsan City's industrial complexes.

■ Research Method

-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 surveyed opinions regarding the settlement of workers living outside Gunsan City, including essential information such as gender, commuting methods, pros and cons of living outside the city, reasons for living outside the city, crucial factors for the relocation decision, and policy suggestions for workers living outside the city.
- Actual Survey: We surveyed the residential status of workers living outside Gunsan Cit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tention to move in, workers' policy demands, and support for foreign worker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Policy Direc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Population in Gunsan City Industrial Complexes

- Extension of Stay Time: The longer workers stay in the city, the more they experience the local environment, culture, and infrastructure. Consequently, workers' stay time is vital in helping those living outside Gunsan City develop a favorable impression of the city, thereby increasing their intention to settle there.
- Increasing Urban Attractiveness: To attract workers to live in Gunsan City for a long period, the city must hav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ttractiveness as a residential area. Thus, workers' decision to settle down in Gunsan City is not only their choice but also a result of the city's attractiveness.
- Securing Settlement Sustainability: The policy should target the long-term settlement of workers in Gunsan City's industrial complexes, as opposed to short-term relocation.

■ Derivation of 4+1 Policy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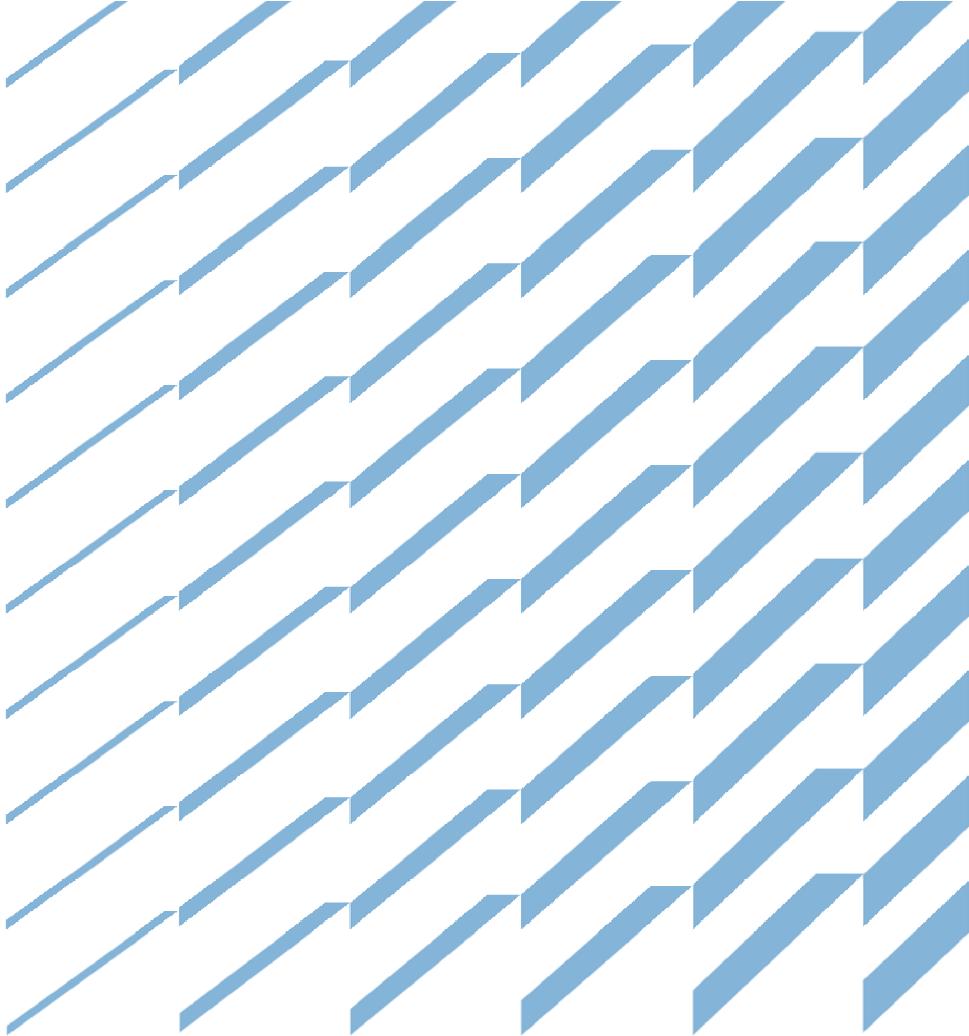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GIs and the actual survey conducted with workers living outside Gunsan City,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relocation decision were derived from the 4+1 policy factors (targets): good jobs, housing stability, a good living environment, and the convenience of the relocation process, as well as support for foreign workers.

■ Promotion Strategy for the Settlement of the Population in Gunsan City Industrial Complexes

- Good Jobs: Gunsan City must offer differential support for addressing relocation costs and converting from non-regular to regular worker status (address change) as incentives to attract companies to Gunsan City.
- Housing Stability: Gunsan City must give priority to long-term employees in the distribution of housing (apartments) and assist newlyweds with their housing loan interest charges.
- Living Environment: Gunsan City must develop excellent schools and expand support for industrial complex cultural centers.
- Convenience of Relocation: Gunsan City must provide on-site service for address change and help with relocation costs.
- Foreign Workers: Gunsan City must establish dormitories for foreign worker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launch community support projects to promote mutual exchang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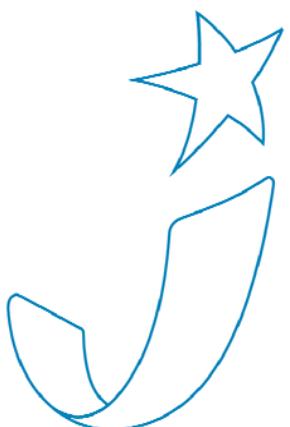
Key Words

Population Inflow, Worker Settlement, Relocation Policy, Urban Attractiveness, Gunsan City



부록

1. 설문지
2. FGI 조사지



부 록

APPENDIX

1. 설문지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에서는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의 통근 및 전입 의사 등을 파악하여 군산시 정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결과 분석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군산시 산업단지 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주소지가 군산시 외 타지역 일 때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북연구원(김동영 책임연구위원 063-280-7174, 김현수 전문연구원 063-280-7137)
2024.11

〈연구참여 및 자료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하며 응답 내용을 추후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 관외 근로자 현황

1.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합니까?

① 예(→ 1-2로 이동) ② 아니오(→ 1-1로 이동, 응답 후 1-2로 이동)

1-1.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 ()시/군

1-2. 현재 실 거주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도 ()시/군

2.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숙사 ② 자가 ③ 전세 ④ 월세 ⑤ 기타

3. 현재 주된 통근 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 ② 대중교통 ③ 통근버스 ④ 자전거 또는 도보 ⑤ 기타()

3-1. 평균 통근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 ① 10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1시간~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4. 현재 군산 외 타 지역에서 근무자로 통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4-1로 이동) ② 아니오 (→ 5로 이동)

4-1.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이유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② 출퇴근 시간 등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③ 전입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④ 가족구성원의 근무지 제약때문에

⑤ 자녀의 교육환경 때문에 ⑥ 군산시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의 부족 때문에

⑦ 기타()

5. 현재 군산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이유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해당없음

② 주소 이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③ 주민등록 상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더 좋아서

④ 결혼 이후 배우자 거주지에 따라서 옮기고 싶어서

⑤ 군산시 주소지 이전 혜택이 좋지 않아서

⑥ 주민등록 상 지역의 복지혜택이 좋아서

⑦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서

⑧ 가족구성원의 근무지 제약 때문에

⑨ 자녀의 교육환경 때문에

⑩ 기타()

B. 산업단지 거주 환경

1. 산업단지 내 정주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주로 근로 시간에만 정주한다 ② 야간에도 문화, 체육, 회식 등을 위해 정주하는 편이다

③ 주말에 정주하는 편이다 ④ 주야간 및 주말에도 정주하는 편이다

2. 군산시에 정주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차로 10분 이내)의 여건 개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1. 주거여건	①	②	③	④	⑤
2. 교통여건	①	②	③	④	⑤
3. 치안(범죄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4. 보육여건(어린이집 등)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여건(초·중·고등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6. 자연환경여건(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7. 의료여건(병원, 약국 등)	①	②	③	④	⑤
8. 편의시설(마트, 세탁시설, 식당 등)	①	②	③	④	⑤
9. 문화체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인 정주여건	①	②	③	④	⑤

C. 전입 의사 및 정책 요구

1. 향후 기회가 된다면 군산시로 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1-1.로 이동) ② 별로 없다(→1-1.로 이동)
③ 조금 있다(→1-2.로 이동) ④ 매우 있다(→1-2.로 이동)

1-1. 군산시로 전입할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이유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주거환경 때문에 ② 주거비 때문에 ③ 통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④ 교육환경 때문에
⑤ 문화·편의시설(의료, 문화체육 등) 부족 때문에 ⑥ 자연환경(공원 등) 부족 때문에
⑦ 전입 시 혜택 부족 때문에 ⑧ 배우자 직장근무지 때문에 ⑨ 기타()

1-2.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군산시로 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요 이유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주거환경 때문에 ② 주거비 때문에 ③ 출퇴근(교통) 편리성 때문에
④ 교육환경(학교, 학원 등) 때문에 ⑤ 문화·편의시설(의료, 문화체육 등) 때문에
⑥ 자연환경(공원 등) 때문에 ⑦ 전입 시 혜택 때문에 ⑧ 나의 직장근무지 때문에
⑨ 기타()

1-3. 군산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이전할 계획입니까?

- ① 혼자 ② 부모님과 ③ 배우자 및 자녀와 ④ 기타

2. 군산시로 주소지 이전에서 필요한 기업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정규직 전환 ② 승진 가점 혜택 ③ 사택 또는 기숙사 확대 ④ 교통비 지원 확대
⑤ 주택관련 대출 지원 ⑥ 기업체 주변 환경 개선 ⑦ 기타()

3. 군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할 경우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주택공급 시 우선 분양 ② 주거비 관련 지원(이자 지원 등)
③ 주소지 이전 지원금 제공 ④ 자녀관련 교육비 지원 확대
⑤ 관련 행정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⑥ 기타()

4. 군산 산업단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지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정주하며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② 한국어교육 지원
③ 외국인력 대상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체계화
④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도입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⑤ 외국인력 고용과 일자리 연계 및 체류 관련 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⑥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체육지원(체육행사, 외국인과의 한마당 등) 제공
⑦ 문화복지센터, 카페, 공원 조성 등을 통한 편의시설 확대
⑧ 기타()

S.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4. 귀하의 자녀 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5.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는(본인 포함)?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6. 현재 귀하의 근무지에서 계약형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일용직, 파견근로직 등)
7. 현재 귀하의 근무 형태는? ① 주간 ② 야간 ③ 교대근무(주야간)

2. FGI 조사지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FGI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은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산시 정주(주소이전)화 방안관련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조사 결과는 향후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의 정주화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 ▶ 조사 기관 :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작팥죽로 1696)
- ▶ 연구 책임 : 김동영 책임연구위원 (담당 김현수 전문연구원 063.280.7137)

S. 기본 정보

S1 다음 중 귀하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귀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① 없음	② 있음(→ 명)
5	귀하는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실거주지)	()시/군 ()읍/면/동 예) 전주시 효자동	
6	귀하의 주소지는 어디인가요?	()시/군 ()읍/면/동	
7	귀하의 기업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8	귀하의 근로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기타 ()	

A. 근무형태

A1. 귀하의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2.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A3. 관외 근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A4. 군산시 산업단지 내에 주로 체류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십니까?(주중과 주말 구분)

B. 관외근무 사유와 주소이전 요인

B1. 관외근무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B2. 근로안정성이 확보된다면(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군산시 주소이전을 고려하시겠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B3. 주택지원이 있다면 군산시 주소이전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주택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B4. 군산시에 특성화 중·고등학교 및 국제학교가 생긴다면 주소이전을 고려하시겠습니까?

B5.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개원이 군산시 주소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C. 정책제언

C1.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무자의 정주(주소이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2.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 의료, 문화, 레저, 교육(평생교육), 쇼핑시설 등)

C3.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무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기타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책연구 2025-06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발행인 | 이 남호

발행일 | 2025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59-3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시장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